현대불교



금주 법구

높고 높은 산봉우리 아래에
가을이 개이고 옛 절이 깊은데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을 묵을 제
소나무의 달이 참선하는 마음을 돕네.

-최굉집-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336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송광사 종무전산화 교육

조계종 21교구 본사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가 14~15일 말사 운주사에서 총무 보리스님, 재무 정행스님 등 주요 소임자 4명을 포함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교구 종무행정 전산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구사찰의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강사와 보조진행자등 5명이 수강생들의 질문에 실습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송광사가 이같이 전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구본사 차원에서 종무전산화 교육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1월 주지 현봉스님과 재무 정행스님이 종무행정을 전산화하기로 하고 20개월에 걸친 시범실시이후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다.

송광사는 엄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외부에서 전문회계사를 초빙하여 자체 재무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회계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고 자료의 깔끔한 정리 및 보관 등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입증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구 내 전 사찰에 종무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하고 교구차원의 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송광사는 앞으로 전산교육을 상설화 하여 초, 중,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교육미필 사찰에 대하여서는 종무지도 감사를 통하여 교육이수를 적극 권유키로 했다. 또 스님들의 전산화에 대한 관심 여하에 따라 말사 주지 인사에도 반영키로 하는 등 종무행정 전산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광사는 교구 전산화 첫 단계로 본사 홈페이지에 각 말사 네트워크 방을 만들고 전산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내년 말까지 전 말사에서 종무전산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말사에 컴퓨터 보급운동을 병행과 동시에 11월 중 2차 전산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 사찰이 홈페이지 개설은 커녕 사이버포교에 대한 관심조차 저조한 불교계 현실에 비추어 이번 송광사 스님들의 전산화 교육은 정보화 시대 인터넷 포교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송광사의 의지가 반영되 있어 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송광사의 주요 소임 스님과 종무원들이 종무행정 전산화 교육을 받고 있다.

장 군 죽 비

◇사찰 · 불교 단체 인터넷 사이트 '적막강산'. 네티즌 관심 부족 탓하기엔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9면)

◇부처(佛)를 떠나 부처(覺)를 구할 수는 없다. 초기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육성에서 깨달음의 싹을 찾자. (15면)

◇비지정문화재 도난 후 회수율 1%. 먼 훗날 모든 비지정문화재가 사라졌을 때, 지정문화재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 (16면)

◇사찰 폐양초 재활용하는 '관음손 양초공장'. 장애인에겐 일자리로 재활의 빛을, 지구 환경엔 재생의 빛을 -. (23면)

교계 복지시설 후원자 줄고 있다

소쩍새마을 월 중단 369명 - 신규가입 65명

연꽃마을 · 나눔의 집 · 불자련도 운영난 심각

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후원자가 대폭 줄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숙자, 무의탁노인 수용 시설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후원자 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강원도 소쩍새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승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는 월평균 3백 69명인데 반해 신규 후원자는 65명으로 한달에 3백여명씩 후원자가 줄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월평균 신규후원자 1백37명임에 비하면 올해 신규 후원자는 현저하게 감소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30여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이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삶 공동체인 나눔의 집, 결식아동과 무의탁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의 교계 복지시설도 같은 처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꽃마을은 7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10%의 후원자 감소를 보이고 있고, 나눔의 집 역시 9월 현재 2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8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

후원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 이외에 부족한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메우는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후원자 감소로, 비인가 시설인 소쩍새 마을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지원 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 관계자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보용지를 이용하는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고 있다"며 "후원자는 보시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 공덕을 느낄 수 있는 후원자 관리의 새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식지나 감사편지,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후원자를 관리해온 기존의 방식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쩍새 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후원이란 생명의 동등성을 실현하는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실시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계 복지시설은 후원자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그 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후원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자구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오중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남-북 불교 실무회담 11월경 평양서 연다

남북불교계 실무회담이 11월경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종단협회장단의 방북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조선불교도연맹 참여, 향후 단청지원 등 남북불교 교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는 13일 종단협에 공문을 보내, 남한불교계가 11월 17~24일에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늦어도 10월중으로 대표단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실천승가회, 불교인권위, 정의구현 사제단 등 통일연대산하 11개 종교단체는 21일 미 대사관 앞에서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템플 스테이' 지원책 적극 검토

문화부 · 월드컵조직위

교계에서 추진 중인 '템플 스테이'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 남궁진 장관과 월드컵조직위원회 이연택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월드컵시 사찰을 이용한 숙박은 단순한 숙박대책 차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체험상품개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며 "종단협 등 불교계에서 추진 중인 템플 스테이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10일과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와 문화관광부, 월림픽조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각각 2002년 월드컵대회시 부족한 숙박시설문제를 지적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템플스테이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원우 기자

"문화환경평가제 도입하자"

이미경 의원 국감서 주장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 '문화환경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환경평가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교문화시설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사전에 실시해 이에 대한 훼손을 막자는 것.

이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왕복 8차선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천년고찰 30여곳의 문화재 및 자연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美 테러희생자 추모 보복전쟁은 반대"

종교단체들 잇단 행사

종교인들이 미국 테러로 인해 희생된 미국인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연대 산하 11개 종교단체는 21일 미 대사관 앞에서 헌화의식 및 추모 묵념을 갖고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17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비폭력 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상임대표 백창기)'는 15일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미국정부는 테러와 범죄의 구조적 단절과 평화를 위해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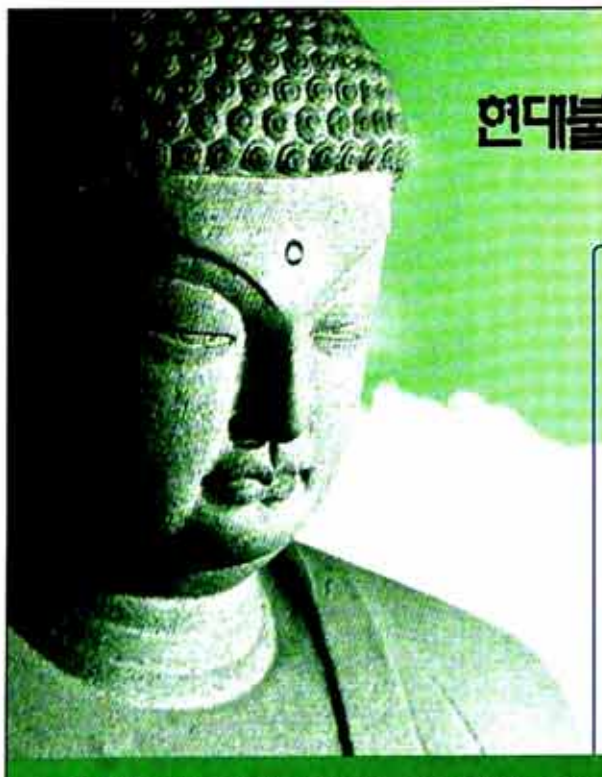
제 7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15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1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현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총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스님 좋고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재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2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3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특별이벤트 · 초기 연회비 면제
· 9월 1일~10월 31일 가입자는 S-OIL 4천원 주유쿠폰 증정

신속1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신속2 주유할인 서비스
신속3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행소나안심보험
신속4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신속5 스피드 카드론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불교카드사업단 대표 02)6678-1115~6
· 부산지사 051)463-5331~2 · 영주지국 054)674-1199 · 목포지국 061)244-4520 · 강릉지사 033)643-5599 · 대구지사 053)768-8008 · 포항지국 054)284-4575
· 충청지사 042)527-0559 · 광주지사 062)375-9886 · 밀양지국 055)353-1196 · 전북지사 063)255-2274 · 울산지사 055)387-1500

사 설

불교학 결집대회에 바란다

시대와 유리된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설사 사회적 일탈을 일삼는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시대를 반영한다. 16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의 경우, 많은 부분 한민족의 성쇠와 함께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고도성장기와 변혁기를 거치면서 '은둔'의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내년 5월 3~4일 동국대에서 열릴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첫째, 규모와 내용면에서 경전 성립의 시원을 이루는 초기불교의 '결집' 전통과, 한국 불교의 대표적 특성인 '통불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참여 학술단체가 30여개에 이르는데다 한국불교학회나 인도철학회 같은 학술단체뿐 아니라 경전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진각종의 회당학회나 원광대학교까지 포괄하면서 초종파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불교학뿐만 아니라 불교문헌학·불교사학·불교예술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시도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둘째,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도 적지않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 결집대회의 성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공개될 것인데, 이는 그 성과의 주인이 대중임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국가나 문화권에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 주제 선정이나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결집이라는 연구 공동체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소장 학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불교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규모의 방대함이 질적 우수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특정 학회의 테두리에 갇힌 폐쇄적 연구 태도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학풍에 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의의는 크다.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 갖자

불교복지시설의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경기 악화의 결과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 알의 콩도 열 명이 나누어 먹었다는 우리네 전통 사회의 미덕을 되살리자. 그것이 곧 보살심의 발현이다.

불교사회복지재단인 승가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가 한 달에 평균 369명인 데 비하여, 신규후원자는 한 달 평균 6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월 300여 명의 후원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다. 후원 중단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퇴사, 이민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외근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국가의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장애복지시설인 소쩍새 마을이나 노인복지시설인 자광원 등은 당장 다가오는 겨울나기와 내년 살림살이 걱정으로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래 들어 종단도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님들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도 복지학 전공자가 늘어나고 있다. 종단차원에서도 사찰단위의 복지후원회의 조직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다.

이제는 '인강방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종단 종책으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주지스님들에게 표창하는 제도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복지시설후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생명존중, 즉 더불어 사는 인간애를 공덕으로 삼도록 하였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단체에서도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에 대한 자체점검과 반성을 통해 후원자 관리에 대한 각오를 다시해야 할 것이다.

자비보시는 불법 가운데 왕(王)이라고 하였고, 육바라밀에서도 보시가 으뜸이라고 하였다. 네 가지 고통 중에서 병고를 먼저 들 듯이, 모든 불자가 십시일반하는 후원자가 된다면 부처님의 자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이요, 불우 이웃이 모두 부처님의 은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사회가 한층 밝아질 것이다.

불교 사이버상담시대 본격 개막

불교상담개발원 jabi24.org 28일 오픈

성격·대인관계·신행등 전문가 조언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이 홈페이지를 구축,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이버 상담에 나선다. 또 전문면접 상담실을 개설, 심층적인 상담도 이뤄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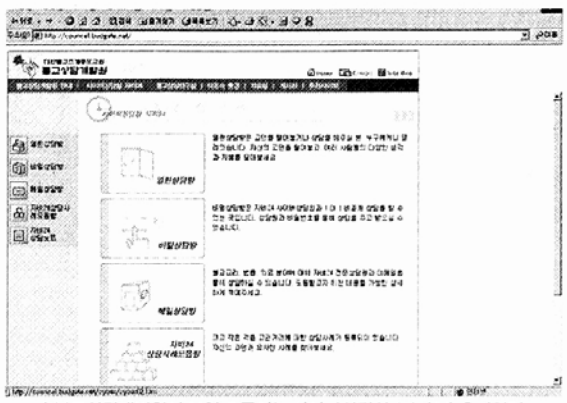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은 19일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사이버상담실 및 면접상담실 설명회를 갖고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비24(jabi24.org)'로 도메인 명이 확정된 사이버상담실은 열린상담방, 비밀상담방, 메일상담방, 자비24 상담사례모음방, 자비24 상담노트 등 다섯 가지 메뉴로 구성돼있다.

특성별로 보면 열린상담방은 공개게시판 상에서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자비24 사이버상담원뿐만 아니라 스님이나 일반 네티즌도 각자의 견해와 조언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내담자와 상담자의 글은 모두 공개된다. 비밀상담방은 내담자와 사이버상담원과의 1대1 상담이 비공개로 이뤄져 상담의 심도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메일상담방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불교교리, 법률, 의료(정신과)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이뤄진다. 내담자가 분야를 선택해 상담요청 메일을 발송하면 자비24 전문상담원이 상담요청메일을 읽고 답변 메일을 작성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비24 상담사례모음방에서는 성격·정서, 교육·학업진로, 가정생활, 신행, 성·이성, 대인관계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종 상담사례를 수록해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움을 될 수 있는 상담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비24 상담노트는 상담진행상황을 메인화면에 소개해 생생한 상담현장을 네티즌들에게 보여준다.



◇불교상담개발원이 28일 오픈하는 사이버상담실 '자비24' 초기화면.

이와는 별도로 불교상담개발원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문 면접상담실을 개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성격·적성·지능검사 등 심리검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통된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http//:councel.budgate.net)에는 불교상담 칼럼을 비롯해 불교와 상담에 관한 논문과 서적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며, 각종 연구논문 및 상담원 교육강좌 등 자료실도 운영된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사이버 상담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 전화보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메일상담의 경우 내담자의 질문에 상담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문화관광부장관 남궁진씨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에 남궁진(59세, 사진)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신임 남궁진 장관은 친화력이 있는 성격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와 한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궁진 장관은 전북 익산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 14, 15대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1999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김원우기자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조계종 재논의키로

조계종 총무원은 19일 전통사찰보존법개정안 검토 간담회를 갖고 현안이 되고 있는 '관람료 징수'에 대해 실효성을 파악한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종회의원인 현응스님과 법등스님은 '논란이 많아 토론이 필요하다' '관람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할 것이다' '관람료 징수는 사회에 거부감을 주고 불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후 논의와 관람료 징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문화재보호법등 각 법을 비교한 뒤 실효성을 파악하여 다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법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협의해 불자의원들의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김원우기자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조계종 10월20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제13회 포교대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일반신도 등 일반포교분야와 군, 경찰, 공무원, 교정교화, 장애인, 국제, 방송언론, 문화, 예술, 출판 등 특수포교분야 및 기타 분야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며, 10월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720-7060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나눔=빈 곳 채우기

'부처님 일대기' 영어교재 1천부 배포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8일 포교원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영역한 테이프와 책자 발간 고불식을 봉행했다.

어린이 포교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부처님 일대기' 카세트테이프 및 교재는 테이프의 경우 영어로만 구성돼 있고 교재는 원문과 삽화 및 우리말 해설이 실려 있다.

또 학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30개 항목의 'Q&A'와 함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도 수록돼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어린이 법회가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교재 1천여부를 무료 배포한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 관통로 대책위 발족

봉선사 스님 11명…위원장 각원스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계종 제25교구 대책위원회'가 20일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발족됐다.

11명의 봉선사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위원장에 봉선사 부주지 각원스님(관련 인터뷰 4면), 부위원장에 무착스님, 실무위원에 봉선사 총무국장 선우, 기획국장 동산, 교무국장 여산스님 등 9인을 선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의정부시 외곽을 경유하는 대안노선 제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각원스님은 "다음주중 서울외곽고속 순환도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서명 및 시위 등을 펼치는 한편 의정부 외곽을 도는 대안노선을 마련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천성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27개 사찰신도회 성명

통도사 본·말사의 27개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들은 최근 임로 개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천성산 문제와 관련해 16일 성명을 내고, 천성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천성산은 내원사와 미타암, 원효암 등 부처님 도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생태계 보고"라며 "천성산 일대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습지복원과 보호를 위한 정밀조사 실시 및 구체적인 보존대책 수립 △천성산 출입금지 및 휴식년제 도입 △임로의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경제 살리기 천일기도(千日祈禱) 회향(回向) 및 만등법회(萬燈法會)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法)이 아무리 좋다지만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使命)이요 책임(責任)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業)에 절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에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의 광명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 수 없으며 칠흑처럼 캄캄한 생사의 거센 물결을 건너감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彼岸)에 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밝혀 짙은 업을 참회하고 쌓여있는 더러운 업을 불살라 다음 생에는 보살의 육도(六道) 만행(萬行)을 닦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는 홍원(弘願)을 한층 굳히기 위하여 우리 홍천사(興天寺)에서는 경제 살리기 및 가정 성불(成佛)을 위한 천일기도 회향 날에 만등(萬燈)불사(佛事)의 넓은 문을 열어 놓고 자타(自他)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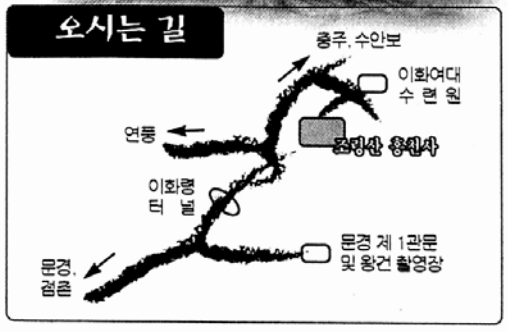
자아(自我) 진아(眞我)를 깨치고자 하는 이는 광명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愛情)의 등을,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容恕)의 등을, 소외(疎外)된 이에게는 관심(關心)의 등을,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快癒)의 등을, 조상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밝혀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고 가정마다 지극한 서원(誓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흥천사 만등법회

- 주 최 : 조령산 흥천사 신도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흥천사
- 진 행 :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산 스님외 4명
- 1인1등 : 1만원
- 전 화 : 조령산 흥천사 043-833-6640, 833-5525
  대 구 포교원 053-635-5932
  스 님 휴대폰 011-503--9737
- 계 좌 : 15008-51-001366 농협
- 예금주 : 흥천사(동봉)



오시는 길



문경새재 조령산 흥천사 조실 동봉(東奉) 합장

목어

테러에 숨은 마음



누가 그랬던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맞는 말이다.

인간의 심층에 숨어 있는 심리적 근간도 두려우려니와 의식 수준에서의 공격성 또한 두려움의 극치다.

흔히 못된 사람을 지칭하여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을 즐겨 쓴다. 요즈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나 전쟁의 위기를 생각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의 모순이 생각난다.

제발 짐승만큼의 분별만 있어도 세상은 참 온전하지 않을까 하는 역설적인 생각을 해본다. 짐승은 생각이 다르다지만 종교가 같지 않다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한다.

개인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면서 리비도와 데스트루도란 말을 쓴다. 성적 욕구와 공격적 욕구를 말하는데, 테러는 이런 공격적 욕구의 발로이리라. 이런 본능적 성욕과 공격욕구가 생산과 파괴를 주관하지만 조화를 이룬다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조화를 깨면 파괴의 원인이 된다.

미국이 얼마 전에 당한 미증유의 테러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결과에 보복하여 공격적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조건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테러를 저지르는 원시 본능적 충동이나 이를 사회적 조건과 결합시켜 합리적인 공격성을 부추기는 것이나 심리적 근간은 같다.

어느 쪽이건 이 흥분할만한 사건을 두고 소용돌이치는 목표지향적인 공격적 활동은 멈추어야 한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미국사람들에게 악연을 누군가가 먼저 끊어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들릴 이치는 없겠지만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끊어야 악연이 끊긴다. 그 고리를 끊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이다. 짐승만한 질서라도 가져보자.

이근후(열린마음 크리닉 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타워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개발보다 '문화·문화재 보호' 우선

이미경 의원 제안 '문화 환경 평가제' 핵심

'환경영향평가' 허점 보완 문화유적 사전조사 필수



◇10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미경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 제안한 '문화환경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교문화시설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사전에 실시하자는 제도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은 모두 3개 분야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 지형 및 지질 동·식물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연환경 분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및 진동 악취 경관 등 11개 항목의 생활환경 분야, 인구 주거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 7개 항목의 사회·경제환경 분야가 그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제5조2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은 평가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사업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시설과 비지정 문화재 등 문화환경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문화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로 인한 소음과 먼지, 진동, 지하수 고갈 등 사찰의 간접적인 환경피해와 함께 이에 따른 신앙활동의 피해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종교문화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폐사지, 가마터, 미발굴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평가항목도 추가돼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의 문화 환경을 훼손할 경우 초래되는 사찰수행환경의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헌법상 종교신앙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경 의원은 이와 관련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의 주장을 담은 문화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요인만을 강조, 종교문화 및 역사환경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시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년간 실태조사 한번 안해" "보물급 성보 국고지원 전무"

'문화재 보수비' 국감서 논쟁

문화재보수비 국고보조금 사용이 올 정기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서 12일 열린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과 우선 순위, 예산 집행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의 문제를 꼬집었다. 고 의원은 "각 지자체가 신청한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은 2년 동안 실태조사 한 번 안 나갔다"며 "이런 식으로 문화재 보수 국고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1999년도의 경우 1천478억 원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으나 이 중 실태조사를 한 15%에서 모두 175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아예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2000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문화재 수리 공사 847건에 대한 문화재청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화장실이나 요사채 개축 등에 지급된 건수가 60건이 넘었다고 밝히고 "문화재 수리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의원은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상 개축 등에는 예산이 지원된 곳이 많은 반면, 김천 한천사 출토 금동자물쇠외 일괄(보물 1141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505호) 해체보수 등의 사업은 보물급 문화재인데도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등의 보수사업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화장실이나 요사채의 신·개축 등 주변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은 1999년 5월과 6월에 각각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과 시행령 42조 제2항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과 함께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의원들의 질책과 애정은 반드시 수용해야 겠지만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따른 오해는 불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신도교육 10월로 연기

사찰·신도 부담 최소화 교육수준 어떻게 '고심'

조계종 포교원이 9월부터 전국 사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신도기본교육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포교원은 추석이 지난 10월 중순쯤에야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처럼 신도기본교육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선 사찰들이 당초 포교원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원은 신도기본교육 계획 수립당시 3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던 것을 최장 1년 이내에 12시간만 이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찰과 신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사찰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한 요인이다. 사찰간 신도수준 격차가 큰 데에다, 아직도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포교원으로서는 최대한 '균형 잡힌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론 수렴에 중요한 창구역할을 했던 교구 본말사주지연수가 지난 13일 끝난 것도 10월 중순으로 늦춰지게 된 이유다. 수렴된 여론을 각 사찰에 내려 보낼 교안이나 지침서에 반영하기에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포교원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이사장이 18일 한국을 방문했다. 동국대 초청으로 방한한 마에다 이사장은 학회 창립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내년 정기 학술대회(7월 6~7일 동국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20일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내년 동국대서 학술대회' 준비차 방한
日 인도학불교학회 마에다 이사장

"실천과 동떨어진 불교학은 무의미"

◆내년 학술대회는 학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다?

"내년은 마침 동국대가 학회 이사학교로 가맹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맞아 일본 불교의 조국인 한국에서 지금까지의 학회를 회고하고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밖에서 보는 한국 불교학계에 대한 인상은?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과 만나 보면 한국 불교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산스크리트어 등에 대한 관심도 낮다. 자국 불교 연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와 스리랑카 등 외국의 불교에도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불교학계의 흐름은?

"단체간, 국가간 상호 교류 활성화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제협력의 테두리를 넓혀 가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불교 祖國"
"불교, 21세기 사상 기반"

◆일본 불교학만이 지닌 강점이라면?

"문헌학적, 역사학적 연구에 있어 일본불교는 분명 우수하다. 그러나 불교의 본영역은 실천에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을 삶으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활성화 없는 불교학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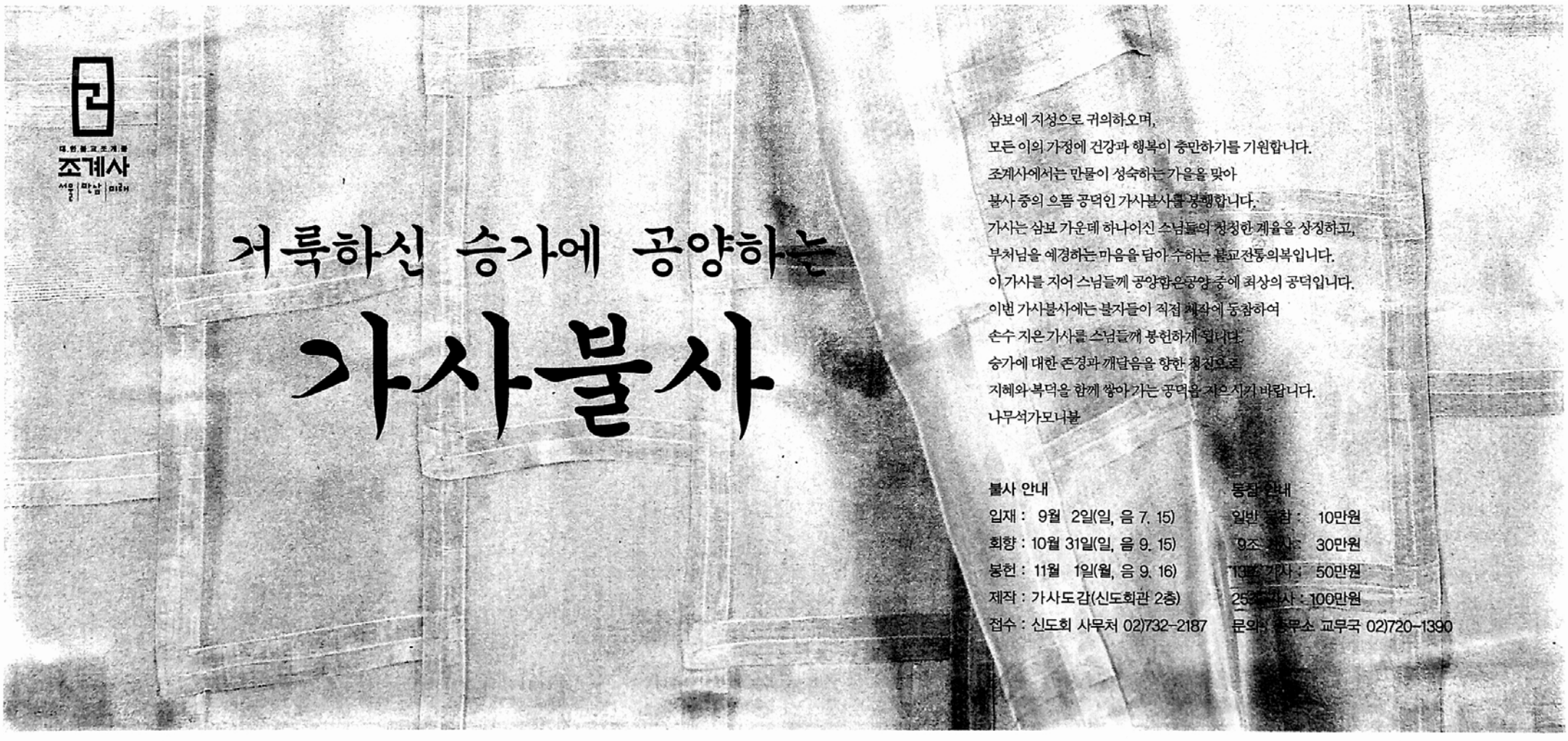
◆어떤 점에서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물의 평등성과 상호의존성을 말하는 불교는 21세기의 키워드인 '상생'의 사상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 국면에 있다. 앞으로 한일 교류를 넓혀 나가기 위해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은 불자라는 점에서 공통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있다. 불교에는 국경이 없다. 먼저 한일의 불교도가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951년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를 중심으로 창립한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는 한국, 대만,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 학자 2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세계적인 학술단체다. 권형진 기자



일주문



광주생명나눔회 3돌 법회

영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장 스님(증심사 주지)은 19일 사무실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경제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동봉 홍천사 주지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충주 홍천사에서 '경제 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및 만등법회'를 봉행한다.



평통자문 상임위원에

법혜 민족통일불교협의회장은 13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도심포교당 반야사 개원

원욱 스님은 23일 서울 양천구 목 3동에 도심포교당 '반야사'를 개원,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02)652-1370



10월 다보법회 법문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0월 10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27일 시원건축 특강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7시 경주 신라문화원 강당에서 '사원건축'을 주제로 특강한다.

조계종 초임주지 연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21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초임주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행정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임주지교육은 종단구조 및 종무행정 일반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종단정보화 개요, 종무행정 전산화 활용, 문화재 관리방안, 사찰의 사회활동과 환경, 교육 포교종책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에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70여개 사찰 사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찰 사무장교육을 실시했다. 김원우 기자



◇민주당 한광옥 대표(왼쪽 사진)와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1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을 신임 인사차 방문했다.

"방송 광고공사 유지" 당부

정대 스님, 한광옥 대표 면담 … 박준영 처장도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9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신임 민주당 한광옥대표의 예방을 받고, "요즘 방송계에 코바코(광고공사) 유지둔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바코 체제가 흔들리면 종교방송의 존립이 어렵게 되니 불교방송이 공영화 될 수 있도록 광고공사체제의 유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광옥대표는 "햇볕정책이 자리를 잡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한광옥대표의 면담에는 사회부장 양산스님, 문화부장 정각스님, 사서실장 혜자스님,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의장, 윤호중 부대변인이 배석했다.

같은날 오전 10시에는 박준영 신임 국정홍보처장과 조영달 청와대 교문수석이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30년 '참선의 힘' 킬로만자로 올랐죠"

83세 등정 박희선 교수



"30년동안의 참선을 통해 익힌 정신집중과 호흡법이 킬로만자로 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게 했습니다."15일 83세라는 고령으로 아프리카 최고봉 킬로만자로(5895m)를 등정한 박희선 건국대 명예교수. 9일부터 박 교수는 참선을 함께 해온 제자 6명과 함께 킬로만자로 중간기점인 미랑구(2800m) 호롬보 (3290m) 등을 거쳐 6일만에 정상을 밟았다.

"참선이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가 봅니다. 10년이상씩 참선한 제자들은 모두 함께 정상에 올랐는데 참선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제자는 젊은데도 중간쯤 올라가다가 포기하더군요."68년 일본에서 박사학위 준비를 하던중 일본인 경산 스님을 만나 참선을 배운 후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선을 해온 박 교수는 95년 이미 76세의 나이로 히말라야 메라피크봉(6065m)을 무산소로 등정해 노익장을 과시한 바 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에서는 정신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박희선 교수는 앞으로 참선과 운동을 계속해 5년안에 7천미터급 등정을 계획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수행환경 지키려 100만 서명운동"

봉선사 북한산 관통로 대책위원장 각원 스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쇳물을 부어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려 한 북한산을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터널과 8차선 도로를 내어 망가뜨려서는 안됩니다."

20일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발족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계종 제25교구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각원스님(봉선사 부주지)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종단협의회, 의정부사암연합회,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불교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찰 수행 및 문화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원스님은 "도로건설로 인해 토지수용 예정인 흥법사 천인사 보현사 등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 이내에 위치한 미타사 용수암 청룡사 등 13개 사찰, 200m 이내에 위치한 원각사 법화사 등 4개 사찰 등 30여개의 사찰이 소음, 진동, 지하수 고갈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면서 "우선 해당 사찰이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원스님은 다음주중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서명 및 시위 등을 펼치는 한편 의정부 외곽을 도는 대안노선을 마련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봉선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청년 신행공동체로"

조계사 새 청년회장 정우식 씨



"수행과 교육, 실천이 하나되는 청년 신행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일 108배 하기' 운동을 비롯해 한달에 한 번씩 1080배 기도정진과 자자 포살법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수행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사 청년회 정기총회에서 19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우식 회장은 취임 후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지난 96년부터 조계사 청년회원으로 활동한 정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조직국장과 조계사 청년회 기획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불청 정책기획실장으로 청년불교 활성화에 전념해 왔다.

자신을 비롯해 임원들부터 모범적인 실천 수행을 하겠다는 정 회장은 또"영화 '달마야 놀자' 시사회와 산악인 박영석씨와 함께하는 등반대회, 만해 마라톤 대회 등 청년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포교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조계사 청년회 19대 회장단 취임법회는 11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 무량종 승려 · 법사 연수

대한불교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13~15일 2박3일간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2001년도 승려 및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산하 사찰 주지스님들과 법사, 포교사 등 70여명이 동참한 이번 연수 교육에서 혜안 스님은 미타 염불과 정토신앙에 대해, 원로원장 지은 스님은 종단 단합과 발전에 대해 특강했다.



방학동 미타불교대학 개원식

서울 방학동 미타불교대학(학장 대명 스님)은 20일 개원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명 학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타불교대학은 강북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달해 참불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무원 신도교육

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종무기관과 유관 부서 및 단체 종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종무원 신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원장 무비스님과 포교원장 도영스님의 '부처님 생애와 기초교리'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발우공양 선 실수 등 신행실습으로 진행됐다.



축서사 2기 불교대학 입학식

경북 봉화 축서사(주지 무여)는 5일 부설 불교교양대학 '제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무여 스님은 2기 신입생 50여 명에게 "기초교리와 소양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불자의 상을 세우자"고 말했다. 축서사 불교교양대학은 봉화 지역의 유일한 교육 도량으로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다.

訃 告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龍山堂 大布敎師께서 世緣이 다하여 佛紀2545年 9月 19日 오후9시10분에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불기 2545년 9월 23일(음 8월 7일) 오전 10시30분**

■ **永訣式場 :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대구본당**

문도대표 : 효선(공덕원 부산포교원 주지)
은 상 좌 : 효선, 법낭, 일광, 월광
법 상 좌 : 지광, 경원, 도혜, 민광, 고봉
유발상좌 : 길상, 경진
속가친지 : 김명호, 김양호, 김교정, 김미연, 박연웅, 김대인, 김홍익
신도총회장 : 자비행
부산신도회장 : 대등명
대구신도부회장 : 이우석
부산신도부회장 : 김무연
대구신도회 : 극락행, 대비행, 무애심, 外 신도일동
부산신도회 : 월명정, 반야등, 공덕화, 공덕향, 지혜심, 무량행, 자재화, 선묘화, 능인화, 감로화, 문수성, 금다화, 신행화 外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 : 김종성, 정종석, 이상대, 박근홍, 김귀련, 정방영, 김교정, 조군자, 김진아 外 임직원 일동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617-4번지
(053)741-0077(대구본당)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번지 용성빌딩 5층
(051)625-2253(부산포교원)

龍山堂 大布敎師 葬儀委員會

龍山堂 四十九齋案內

龍山堂 大布敎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두루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 소	일 시
초재	부산포교원	9월 25일(음. 8. 9) 사시
2재	대구본당	10월 2일(음. 8. 16) 사시
3재	부산포교원	10월 9일(음. 8. 23) 사시
4재	대구본당	10월 16일(음. 8. 30) 사시
5재	대구본당	10월 23일(음. 9. 7) 사시
6재	부산포교원	10월 30일(음. 9. 14) 사시
막재	대구본당	11월 6일(음. 9. 21) 사시
문의	대구본당 : (053)741-0077 부산포교원 : (051)625-2253	

11년째 인기 경찰청 '찬불가 교실'

노래하는 1등 포교사

서울 서대문에 소재하는 경찰청 본청 법당에서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찬불가 교실'이 본청 근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포교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찬불가 교실은 본청 경찰불자회(회장 박재진)가 만들었지만, 회원보다도 일반 경관이나 사무직원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1천 2백여 본청 근무자들에게 자연스레 불심의 씨앗을 심는 발심의 요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게 눈 감추듯' 점심 공양을 마친 본청 근무자들이 찬불가 교실이 열리는 법당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다.

원로가수 남강수씨 지도
가요·최신곡에 법문까지
일반인 불교귀의 이끌어

찬불가 교실 운영을 맡고 있는 최옥자(본청 과학수사과) 씨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운영돼 온 찬불가 교실에 드나 든, 종교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는 수계를 받을 정도로, 찬불가 교실은 불자 만들기의 일등 공로자다.

우선 '보현행', '푸른 연꽃', '연꽃 피는 날' 과 같은 찬불가 외에도 흘러간 가요에서 최신 노래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불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부담 없이 찬불가 교실을 노크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지금의 찬불가 교실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여기에 노래 지도를 맡고 있는 원로가수 남강수(대한불자가수회 고문) 씨가 노래 지도 과정에서 간간히 풀어놓는 불교 관련 이야기가 발심시키는 단초로 작용했다. 지난 91년 본청에 찬불가 교실의 문을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남 씨는, 매주 일요일 사찰 법회에 참석, 스님의 법문을 요약해 다음날인 월요일 정오 찬불가 교실에서 노래를 지도할 때 이를 재미있게 재구성해 들려주곤 했다.

이러한 과정이 11년간 반복되면서 찬불가 교실이 본청 안에서의 포교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본청 현관에 마련된 '호돌이 문화강단' 에서의 찬불가 공연과 본청 내 공식 동호회로 등록된 점도 찬불가 교실이 본청 내에서 인기를 얻는 데 일조했다.

최옥자 씨는 "본청 경불회가 지난 5년간 회장의 공석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맥이 단절되지 않고 불자 경찰들의 신심을 다지는 것은 물론 일반 근무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발심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찬불가 교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회장을 선출, 5년간의 공석을 메운 본청 경불회는 6일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승실장 자우스님의 강의로 진행된 기초교리 시간에는 40여 회원들이 참석, 불교공부에 열의를 보여주었다. 기초교리 강좌의 총 12회 강의가 끝나면 수계법회로 회향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본청 경불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자우스님의 집전으로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마음공부의 일환으로 '서예교실' 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소년가장 후원등 봉사 재발심

대우 항공우주 법우회 14돌

25일 오후 6시 성주사 대웅전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회장 정진한)가 기념법회를 봉행한 것.

"신행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을 찾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는 정 회장의 말이 있었던 탓인지, 기념법회에 참석한 50여 회원들은 14주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법하는 신행 활동에 더 주력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14년간 법우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는 일 외에도 지역 불교 발전에 밑거름이 됐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창원의 '시민의 날' 이나 '초파일' 에 어김없이 연등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매달 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은 1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특히 직장 내에서 법우회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적극 홍보해, 현재 200여



◇불교법우회가 3월 창원병원을 방문해 위로법회를 봉행한 모습.

직장 동료들이 매월 2,000원을 보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법우회의 빼놓을 수 없는 신행의 성과다.

또한 법우회는 청년 불교회,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등 창원시 주요 신행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단초도 제공하고 있다. 정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서로의 신심을 북돋우는 자양분으로 삼는 모임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불자 타면 택시요금 할인"

운불련 임원회의 추진 결의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가 불자 운임료 할인을 추진하는 등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12~13일 제주시 홍법정사에서 열린 운불련의 전국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역 회장단은 "운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자"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신도증을 제시한 승객의 운임료를 할인하는 것 외에도 △지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호출택시 사업제 등을 확대하고, △운불련 제복 △운불련 택시 마크 등을 통일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단의 관심과 지원 촉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주본 회장은 "하루 평균 1백여 명의 승객을 만나고 있는 회원들은 불교포교의 첨병"이라며 "결의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아상 깨고 이웃을 부처로 보자"

금강경 독송회 전국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가 15, 16일 5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주 일대에서 전국통합철야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15일 저녁 9시 김재웅 법사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번 철야법회는 금강경 7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과 독송회의 발원으로 이어졌다. 이어 새벽에는 회원들의 신행 발표회와 불우이웃 및 북한동포를 위한 모금도 진행됐다. 신행 발표회에서는 각자 생활 속에서 자기를 초월해 복을 지어가는 실천, 직장에서 동료 및 부하직원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신행, 업보를 해탈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던 체험, 등이 발표돼 동참한 회원들의 신심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김재웅 법사는 "누구든지 나보다 선근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누가 잘못한 것이든, 비록 나라에서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자신의 업장을 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석불연 홍천지역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16일 강원도 홍천 및 양평지역 석불을 친견하는 9월 석불친견답사를 실시했다(사진). 15명의 동참자들은 이날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양평 파사산성 내 마애여래입상 등을 친견했다.

은평구불심회 정기법회

은평구청불심회는 17일 서울 진관외동 삼천사에서 오후 7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50여 회원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지도법사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의 법문과 금강경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불심회는 관내 70여개 사찰을 돌며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우회 독송정진

도시철도 법우회는 20일 오후 7시 서울 답십리 관음정사에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참한 20여 회원들은 천수경 독송과 정근 그리고 관음정사 주지 경덕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우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 한빛은 참선실수

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8일 오후 5시 부산 수영구 망미동 영주암 자비원에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 회원들의 108배로 시작한 이번 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의 법문과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빛은행 부산 및 서울 불자회는 11월 3~4일 합동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중석석불회 관음정근

대한중석초경(주) 석불회는 3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일정을 논의하는 등 하반기 신행 활동을 점검했다. 또한 9일 청도 운문사에서 20여 회원들이 동참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게시판

알림

▲무료법률상담=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전세, 채무, 보상, 노동, 이혼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방법은 복지관 접수 → 전화상담 → 변호사 사무실 의뢰. (20)271-0560

▲어르신 사랑방 개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한 '사랑방'을 개설했다. 사랑방에서는 TV를 시청하고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적외선 치료, 전신 및 발 마사지 등의 서비스가 마련됐다. 이용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02)817-8054

▲창작찬불가 공모=조계종은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된 노래 2곡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마감은 10월 14일까지이며, 가사가 적힌 멜로디 악보 1부와 카세트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 (02)739-1830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모집

▲사랑의 쌀 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28일까지 한가위를 맞이해 사랑의 쌀 모금 참가자를 모집한다. 쌀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02)385-1351

▲능인선원 출판사원=능인선원은 출판관련 업무를 맡게 될 유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인문사회계열 대졸자. (02)577-5800

▲수감자 후원자=정토회는 교도소 1방 1사람 인연맺기 동참자를 모집한다. 동참자는 수감자 1인에게 매달 1500원을 후원해 '월간정토' 를 법보시한다. (02)587-8992

▲수화교육 희망자=연화복지원은 수화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수시로 개별 지도된다. 한편 불교교리, 운전(실기), 컴퓨터 교육도 신청 받는다. (02)2202-5831

▲발마사지 교육 희망자=한솔종합복지관은 발마사지 교육 및 파출부 희망자를 모집한다. 발마사지 교육은 무료이며, 선착순. (031)716-4215

▲유급 가정봉사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유급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50세이며, 무의탁노인에게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02)2203-3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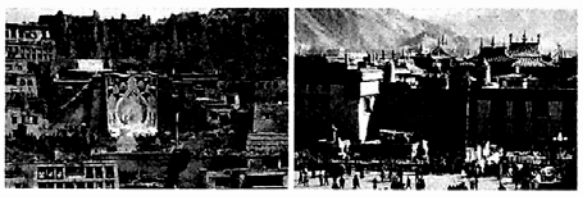
▲북카페 청소년 자원봉사자=보리수향 북카페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내용은 정리 및 소개이고, 월~금요일 오후 1~6시 실시된다. (02)2282-1100

▲가정봉사원 모집=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주 1회 성동구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정봉사는 식사준비, 청소, 주변정돈, 편지쓰기, 생활상담 등. (02)228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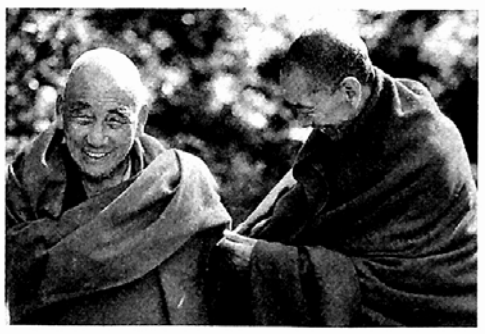
▲명절용품 후원금=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용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 방법은 과일 구매에 사용될 후원금 기탁. (051)866-0454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봐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입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봐타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티베트 성지순례 노하우 - 국내 1위



티베트 성지순례



놓치지 마십시오!
본 여행사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제1일(10/21)	오후 7시 45분 인천공항 출발, 중국 성도공항 도착 후 성도호텔 1박	
제2일 (10/22)	성도공항출발 후 티베트 라싸공항 도착, 라싸시내관광, 장경가, 쵸캉가	특별불교행사 1 강의 "티베트불교의 오늘 그리고 내일"- 티베트국립대학 조광명연구원
제3일 (10/23)	링코르, 쵸캉, 바르코르, 대소사, 세라사	특별불교행사 2 세라사에서 티베트 라마승들의 전통수행법인 변증수행의식 참관 특별불교행사 3 히말라야의 돌에 새긴 불경인 석경을 만드는 라마석경장 및 높이 25M의 석경탑 관람
제4일 (10/24)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달라이라마의 포달라궁, 쩌방사	특별불교행사 4 티베트 최대의 승보사찰인 쩌방사에서 티벳불교의 환생한 활불 린포체 스님과의 만남, 대화, 사진촬영 후 린포체스님의 인도하에 사원참관
제5일 (10/25)	세계에서 가장 높은 티베트 얌드록쵸 호수, 티베트 불교 재래향 채취장 탐방, 시가체	
제6일 (10/26)	타쉬룬포 사원, 라마예불참석, 판첸라마와 달라이라마의 실제 등신불을 모신 영탑, 천장터산, 재래불교유물시장	특별불교행사 5 판첸라마와 달라이라마의 육신불 두구를 모신 티베트 제 1의 불보사찰인 타쉬룬포사원의 라마예불참석(사시예불)
제7일 (10/27)	새벽 대예불 참석, 시가체 출발, 라싸 도착 개별 자유 순례	특별불교행사 6 타쉬룬포사원의 방장님이 주관하는 새벽 대예불 참석
제8일(10/28)	라싸출발, 중국성도경유, 인천공항도착	

출발일 : 10월 20일(토) 7박 8일
접수마감 : 10월 13일
참가비 : 179만원(비자, 보험료 외 일체 포함)
문의 : (02)722-8121, 8125
주최 :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 문명과문화답사회

●백두산 · 고구려문화탐방여행으로 국내여행사 중 2년간 중국 송출 1위, 유럽미술관&영화제 참관투어, 일본신사유람단투어로 대한민국여행상품전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있는 세계일류여행사는 21세기 기획사업으로 "티베트에서 배우자"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독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일류여행사는 티베트 성지순례에 티베트어와 한국어를 동시통역하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국내유일의 여행사입니다.
●세계일류여행사는 세계 156개국의 여행사 중 최초로 정식허가를 받고 티베트사원의 라마예불에 참석한 여행사입니다.
●세계일류여행사는 국내여행사 중 최초로 티베트 세라 사원의 관음수행에 참관한 여행사입니다.

"환경운동 말보다 한번의 실천을"

신행현장

대불청 부산지부 환경신행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상류부터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곧 청정한 국토라는 달처럼 우리 청년불자들의 진지한 신심과 구도열로 청정한 낙동강을 가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가 6차례에 걸친 '낙동강 원류 따라 구도 도보순례'를 마치고 17일 중간보고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회원들은 이같이 다짐했다. 청년불자들이 침체된 청년불교를 활성화하고 청년불교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낙동강 원류 따라 구도 도보순례'가 어느덧 6개월을 맞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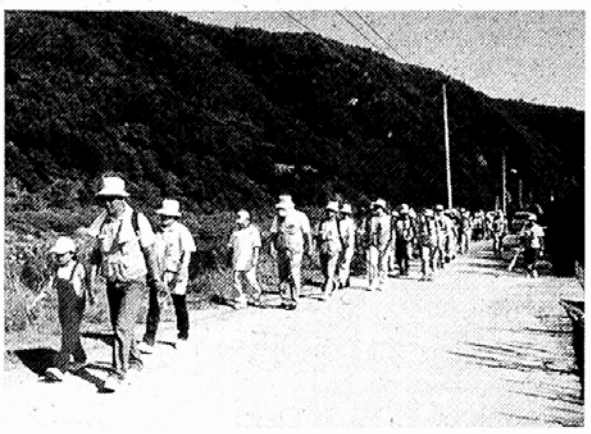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류상영) 대원들은 이날 중간 점검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염의를 다졌다.

그동안 매월 첫째주 일요일이면 30~40명의 청년불자들이 모여 낙동강을 따라 구도대열을 이루었다. 낙동강의 원류인 태백산 황지에서 시작한 이 발걸음은 한번에 30㎞씩을 더하며 중류인 경천대에 닿았다. 낙동강도보순례단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숱한 땀방울을 흘렸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소중함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곳곳에서 폐수와 생활오수가 흘러들고 쓰레기로 덮여있는 낙동강의 모습앞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그 상처난 낙동강이 대원들을 일으켜 세웠다.

"낙동강을 따라 걸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황인렬 도보순례단 총괄팀장은 "파괴된 자연환경의 심각성에 놀랐고 청년불자들이 더욱 전문가적 견해를 갖추어 환경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낙동강 원류따라…' 매월 첫째 일요일 구도 도보 순례 내년 초파일 회향

또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한 임장식 대원은 "6차까지 경과하면서 아이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운동이 말, 마음보다는 한번의 실천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일 대불청 부산지부 낙동강 도보순례단원들이 낙동강 중류인 경천대를 걸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사진 자료를 챙겨온 정영철 대원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도보순례기간동안 이들이 채택한 환경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 청년불자들의 생활태도도 전과 비교해 많이 변했다. '물을 아끼겠다' '음식물을 버리지 않겠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환경의 파수군이 되겠다'는 선언문의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불자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낙동강도보순례는 청년회 조직 재정비, 불교 운동 활성화, 포교라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도보 구간 곳곳에서 오염의 현장을 발견하면 해당관청에 항의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한 낙동도보순례단은 앞으로 남겨진 14~16차 정도의 순례를 이어가면서도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전야제에 맞추어 회향하게 되는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은 회향이후에도 도보구간에서 발견된 심각한 오염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주제별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도보순례단이 낙동강을 도보순례하며 불교적 환경관을 세상에 바로 펴고, 그래서 청정한 국토를 가꾸는 것은 이제 청년회원들이 꼭 해야 할 신행이 되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밭 갈지 않겠거든 먹지도 말라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은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유명한 회해(懷海) 선사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루 일하지 않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뜻이다. 서슬퍼런 칼날 같은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나섰다가 마침 농사 준비를 하던 한 바라문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나는 해마다 밭 갈고 씨 뿌려 내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있소. 당신도 스스로 씨 뿌려 먹을 양식을 구함이 옳지 않겠소?"

부처님께 일하지 않았으면 먹지도 말라고 종주먹을 들이댄 셈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 갈고 씨 뿌려 먹을 것을 얻고 있노라" 하셨다.

〈아함경〉은 이를 좀더 자세히 전한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을 가는 모습. 나는 신·구·의로 짓는 나날이 악업을 제어하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김 매는 것. (중략) 나는 이렇게 밭 갈고 이렇게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가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바라문의 밭은 땅이었지만 부처님의 밭은 중생의 마음이었음이다.

중생은 나날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더욱이 생각은 찰나에도 수백 번의 과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신구의 삼업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고 쌓인다. 그 중에 또 악업은 얼마랴?

불자라면 모름지기 마음의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실천해야 한다. 일상의 근로에서도 방일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마음의 밭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단 하루, 아니 잠시의 방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 —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는 일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불을 얻고자 할 때 나무에 불이 붙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할 일이다.

마음 공부는 무슨 학문을 연마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 공부는 한시도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되는 공부다. 풀어놓으면 찰나간에도 수많은 업을 짓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마음 밭을 갈아 감로의 열매를 따자.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중생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업을 쌓고 있습니다"



무공스님
삼각산 무량사 주지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며, 행함이 원만한 참깨침의 생명체 실현은 부처님과 조사의 한결같은 혜명이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근본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체 중생들은 무지 무명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고 오직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업과 집착의 관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운명이란 굴레를 지움으로써 한없는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세계를 윤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부처님께서는 "깨침이 곧 부처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하시며 "중생들도 다 불성을 갖추고 있거늘 어찌하여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있으며 또 죽이고 죽임을 받으며 속이고 속임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전·조사어록 마음쏟아 읽어야 자기 지혜로 활용

부처님께서는 또 최후 설법을 통해 "각자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믿으라.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되 무상한 것임을 생각하여 집착하지 말라.

변변치 않은 일에 마음을 쓰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도의 즐거움으로써 낙을 삼아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도의 열매를 취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혜명대로 부처님의 큰 지혜에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수행정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 깨침을 향한 수행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근기가 약한 하근기 중생은 우선 중근기로, 중근기 중생은 상근기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는 등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정진을 해 나감이 중요합니다.

하근기 중근기 중생이 곧바로 최상승 수행법인 참선수행에 들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삼보에 귀의하고 사홍서원을 세우며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육바라밀 수행을 지켜나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내를 갖고 맹렬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에는 우선 간경 수행이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을 열심히 읽고 관찰하여 그 뜻을 알아 자기의 지혜로 활용하는 수행입니다.

불사 수행은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조상을 위한 천도, 이웃을 향한 자비심과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성불의 인연을 짓는 수행입니다.

염불 수행도 있습니다. 화두를 놓고 염불하면 더욱 깨침을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24시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염불하며, 염불하는 그 부처님의 원력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효과적입니다.

참선은 만법의 근본을 밝혀내는 최상승의 수행법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참성품과 같은 불성을 보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법(지관법) 조사선(간화선)법 등이 있는데,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써 보리도를 증오(證悟)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오한 오도를 끊임없이 보임으로써 확철대오하여 부처님과 같이 중생교화에 나서서 정토 구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부처님의 몸이요, 산과 산, 물과 물은 그대로 조사의 마음이로다" 부처님의 이 마음에 안긴 우리들은 바로 미래세에 모두다 자각, 각타, 원만할 부처입니다.

신행캘린더

9월 28일 (금)

■노인의 날 행사=서울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은평구에 사는 12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5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02)358-1351

■불교교리 대강좌=국청회는 오후 7시 원안빌딩 3층 강의실에서 최종석 박사 초청 '불교교리대강좌'를 실시한다. (02)730-1249

■시민친절학교=대구 관음사는 오후 3시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시민친절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12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린다. (053)474-8228

■혜거스님 초청법회=농림부불자회는 오후 7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국제회의실에서 '참선의 바른 길'을 주제로 혜거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2)500-2648

■조계사 명심보감 한자교실=조계사는 매주 금 오전 10시30분 본오스님(조계사 도감국장)을 강사로 명심보감 한자교실을 연다. (02)720-1390

9월 29일 (토)

■정동진 일출 답사=터사랑은 무박 2일 일정으로 '한가위 맞이 정동진 일출' 답사를 실시한다. (02)725-1284

9월 30일 (일)

■인도성지순례=정토회는 제13차 인도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순례지는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라즈길, 상카시아 등. (02)587-8756

■티베트사자의 서 상영=광주 자비신행회는 오후 2시 교육장에서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의 강의와 '영상으로 보는 티베트사자의 서'를 상연한다. (062)222-1165

10월 2일 (화)

■최범술 스님 다례=반야로다도문화원은 오후 2시 강화 선원사 대웅전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추모 다례를 개최한다. (02)763-8486

■가족등산대회=서울 중랑구 봉화산 법장사는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11시 대웅전 앞. (02)971-0303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은 뚝섬 체육공원에서 추석명절을 기념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축구대회및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02)757-7388

덕숭총림 수 덕 사

2001학년도 승가대학 학인 모집

덕숭총림 수덕사 승가대학에서는 200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사미과 ○○명
· 사집과 (편입) ○명
· 사교과 (편입) ○명

응시자격
· 조계종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 및 각 학과 편입자격이 있는 자

접수기간
· 2001년 9월 15일 ~ 10월 15일(30일간)

제 출서류
(1) 입학원서 (본사소정양식) 1부
(2) 신상명세서 (본사소정양식) 1부
(3)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4) 사진 3×4 (오조착용) 1부
(5) 은사스님 추천서 1부
(6) 수료증 (편입생) 1부
(7) 건강진단서 1부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

특 전
① 교재, 의료 등 강원생 전원에게 본대학에서 책임 짐
② 학년별 우수생 장학금 지급

문 의 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승가대학
수 덕 사 승가대학 ☎ (041)337-5973 종 무 소 ☎ (041)337-6565

불기 2545 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

수 덕 사 승 가 대 학 장

불교의식 (범음 범패) 수련생모집

바라작법 특별반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 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지도과정 : (1)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주편 (도량석·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 (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49재·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 (관음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1년 10월 9일까지(현재 접수 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특징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 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바라작법반 모집
●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바라 작법 및 북·태징·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합니다.
● 수련기간 : 6개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4시~ 6시 (2시간)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법주·바라지 교육전문)
·작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복청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사물 : 북, 태징, 사물교육포함
● 접수방법 : 불교의식 속성반과 동일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전화 (02)720-1836·733-1959
Fax (02)737-5305
http://pubsa.buddhism.org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4.중국승려 혜심의 미대륙 발견설



◇미대륙에서 발견된 6세기경의 비취두상.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미국 뉴욕의 테러 대참사와 지난 3월 파괴된 바미얀 대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물론 바미얀 대불은 고대불교의 신성함을 상징하고 있고, 수많은 인명과 함께 파괴되어 버린 뉴욕의 무역센터는 현대의 경제적 성취를 대표한다. 그리고 감춰진 차원, 우리가 잃어버린 차원의 불교사에서 보자면 불교와 미대륙은 서기 5세기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불교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실은 십분의 일도 안 된다는 점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이 이야기는 황당하기 만한 가설이 아니다. 〈중국 북경대학 철학 사회 과학 우수 논문선(1988)〉에서는 북경대학 역사계 교수 라영거(羅榮渠)의 논문 '부상국(扶桑國)에 관한 추론과 미주의 발현'이라는 논문을 싣고 있다. 라영거는 이 논문에서 1492년 10월 2일 콜럼버스가 바하마군도의 산살바도르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5세기의 승려 혜심(慧深)이 458년 계빈국(카슈미르)의 비구 다섯 명과 함께 부상국에 가서 불교를 포교하다가 40년이 지난 499년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해명하고 있다. 여기서 부상국이란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 등의 여러 고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왜(倭, 일본)에서 일년을 항해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머나먼 땅이다. 라영거는 혜심의 기록을 바탕으로 혜심과 다섯 비구들이 도착한 땅은 바로 오늘날의 멕시코이며, 1,500년의 미대륙을 자연과 인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복원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최대의 '대여행가'들인 승려들의 미대륙 도착을 증명한다. 즉 〈양서〉에서 적고 있는 부상목의 특징을 들어 "그 나라 사람들은 부상목을 식용한다", "부상의 껍질로 실을 짜서 옷을 입는다"는 기록은 바로 용설란을 의미하며 "나무판자로 지은 집에 살며 성곽은 없다", "철은 없고 동(銅)이 있으며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남자는 모두 몸에 문신을 하며 문신에 따라 존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기록은 바로 인디언의 풍속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콜럼버스보다 1천년 앞섰다

나영거의 논문에 실린 기묘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단 콜럼버스 이전에 미대륙 발견설은 수 없이 많지만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미대륙 발견설은 B. 라우퍼의 〈콜럼버스와 중국〉, H.코르디에의 〈중국통사〉,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H.메츠의 〈중국인의 미주탐험에 관한 고대기록〉과 같은 1급의 구미동양학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메츠는 미국서부와 멕시코의 훼이 샨(慧深), 피쿠(比丘), 샤카(釋迦) 등과 같이 불교에서 기원하는 지명은 물론 연꽃문양과 코끼리를 조각한 문양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1,500년 전 그들이 가르친 선한 마음과 지혜는 지금까지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다"라고 쓴다. 또한 혜심의 미대륙 도착설에 대한 중국학자들에 의한 논문은 주겸지(朱謙之)가 쓴 '콜럼버스 이전 1천년 전 중국 승려에 의한 미주발현설 고찰'(北京大學學報, 제4기, 1962) 등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콜럼버스 이전한 중국 승려가 이끄는 다섯 비구들이 미대륙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왜 그토록 힘주어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만 지적한다면 그들은 남미와 북미대륙이 백인들만의 땅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미대륙의 해안과 내륙에서는 높은 수준에 이른 고대동양의 문화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멕시코의 태낭고에서 발견된 비취두상은 중국인의 얼굴 특징과 5세기경의 모자를 뚜렷한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야는 해명되어서는 안 되는 '미지의 고고학'이라고 한다.

▩경학회 회주

차 올리며 부처님께 조상영혼 인도

참불자의 길 — 불교제례의식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가 21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 학술대회에서 불교식 제례를 실연하고 있다.

차례상 술·고기 대신 차·과일·떡 등 검소하게

불교식 제사 '모범' 없어 지속적 연구·보급 필요

추석을 맞아 불교의식으로 차례를 지내려는 불자 가정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불교 제례 의식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종교는 불교이면서 유교식 제례를 행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불교식 가정 제례의 확산을 막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절을 세 번했다' '제수에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교식 제례를 지냈다고 할 정도다. 이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불교제례 의식의 모범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 한국장례문화연구회(회장 이덕진 · 고려대 강사)가 추석을 10여일 앞둔 21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를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열어 불교식 가정 제례의 예를 제시했다.

이날 실연된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실제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제례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유교식 제례는 영혼을 위로하는데 그치지만 불교의 제례는 조상들의 영혼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여 모든 장애가 소멸될 것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제례의식은 차례상에 술과 고기류 대신 차와 과일, 떡, 나물 등으로 검소하게 마련한다.

상차림은 첫줄에 과일과 과자를, 둘째 줄은 나물류와 식혜, 셋째 줄은 채소, 탕류, 넷째 줄은 전과 송편 차를, 다섯째 줄은 밥(메), 국(갱) 등의 순으로 진설하면 된다. 그리고 차례상 좌우에 국화 등 현란하지 않는 꽃으로 장엄하고, 잔을 올릴 때는 녹차로 한다.

위패, 제물 등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향을 사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 제례를 시작한다. 이날 실연된 불교식 제례의식의 순서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과정에는 게나 염불이 들어간다.)

△입정(조상을 추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다) △십념(十念 :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염한다) △봉향찬(奉香讚 : 향을 사르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정례(頂禮 : 조상에게 절을 한다) △독경(반야심경을 염송한다) △헌다(獻茶 : 영반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진수에 올려놓고 난 뒤 제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차례대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권공(勸供 : 조상에게 진지를 올린다) △가지(加持 :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 숭늉에 밥을 세 번 떠서 정성껏 권하여 올리고 진수에 놓여있던 젓가락의 끝을 가지런히 맞추어 다른 진수에 옮겨 놓은 뒤 제주 혼자 다시 분향하고 잔을 올리면 모두 재배한다) △축원 △염불(수저를 거두고 영반 뚜껑을 닫은 다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삼배한다) △봉송(封送 : 신위에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 위패를 태운다) 등이다.

입정부터 봉향찬까지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찬탄에 해당하고, 정례는 창혼과 청혼 절차에 해당된다. 반야심경은 영가에게 먼저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는 절차다. 헌다와 권공은 영가에게 차와 음식을 공양하는 과정이며 축원, 염불, 봉송은 발원과 함께 회향에 해당된다.

오늘 실연이 모범적이며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여법한 의식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禪과 21세기 — '서장' 통한 선 공부 ㉛

여사인(呂舍人)에 대한 답서(2)

범부는 사량분별 속에 머물며 집착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마른 똥막대기'는 어떻습니까? 붙잡을 곳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뱃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 다만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사량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른 똥막대기' 위에 돌려 놓고, 사량하고 또 사량하여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 기량이 문득 다하면, 곧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매일 매일 다른 일은 결코 사량하지 말고 다만 '마른 똥막대기'를 사량하되, 언제 깨달을 것인가는 묻지 마십시오. 지극히 빌고 빕니다.

깨달을 때에는 시절도 없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며, 즉시 고요해져서 저절로 부처도 의심하지 않고 조사(祖師)도 의심하지 않고 삶도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곳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위(地位)입니다. 부처의 지위에서는 본래 의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유(有)도 없고 무(無)도 없고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범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늘 불안에 떨면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불안한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왜 불확실하고 의문스러운가? 깨달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범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깨달아서 지혜의 바른 눈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의 가장 요긴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혜의 바른 눈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 지혜의 눈을 갖추기 전이라면 불확실하고 의문스러움에 의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집착하기 마련이다. 지혜의 눈을 갖추기 이전에 범부가 가진 눈이란, 보고 · 듣고 · 냄새 맡고 · 맛 보고 · 느끼고?의식하는 이른바 6근(根)의 눈이다. 그러므로 범부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들리는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냄새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맛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생각에 의지하고 집착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집착은 생각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 즉 사량분별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부는 사량분별 속에서 선(善)을 찾고 악(惡)을 찾으며, 중생을 찾고 부처를 찾으며, 옳음을 찾고 그름의 찾으며, 마음을 찾고 경계를 찾으며, 지혜를 찾고 어리석음을 찾으며, 삶을 찾고 죽음을 찾으며, 윤회를 찾고 해탈을 찾으며, 돈오(頓悟)를 찾고 점수(漸修)를 찾으며, 선(禪)을 찾고 도(道)를 찾으며, 공부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다. 범부는 이와 같이 사량분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그것에 머무르고 집착한다. 그러나 사량분별 속에서 무엇에 머무르고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뿐이고, 그 머무름과 의지가 또 하나의 불안의 원인이 되어 사실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지할 무언가를 찾는 그 마음을 포기함으로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 막막한 상황에서 본래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참된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잡을 것 없는 곳에서 살아 있는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이며, 지혜의 바른 눈을 갖추는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림 속에서 되살아나는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선을 공부하고 좌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의식 속에 의지하여 꾸며내는 망상일 뿐이다.

http://www.mindfree.net/

국제 불교 유적 성지순례 인도 · 네팔 · 중국 · 미얀마

인도 9일 상품가 1,690,000원

▣일 정 : 서울-방콕-캘커타-파트나-라지기르-보다가야-바라나시-쿠쉬나가르-룸비니-사라와스티-곤다-아그라-델리-방콕-서울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포함 사항 : 방콕 초특급 호텔 1박(관광 없음), 국제선 왕복 항공(타이 항공 이용), 인도 전지역 디럭스 호텔 숙박,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캘커타 국립 박물관 관광-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대학 관광
○ 마하보디 사원 관광
○ 갠지스강 보트유람 및 황금사원 관광
○ 부처님의 탄신지 룸비니 관광

인도-네팔 11일 상품가 1,990,000원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쿠쉬나가르-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방콕-서울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포함 사항 : 전일정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네팔 비자피 (40,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라지가트, 인디아게이트, 대통령궁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불리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로 갠지스강 일출, 화장터, 황금사원,힌두인의 목욕의식 관광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유적지
○ 열반지에 세워진 보리수나무와 불교사원
○ 포카라 향발중식후 포카라 시내 관광 - 페와 호수, 데비폭포 등
○ 히말라야 일출 감상
○ 스와양부나쓰 사원, 황궁광장, 보드나쓰 불교사원

중국 - 북경, 대동, 오대산, 태원 5일 상품가 : 599,000원

▣일 정 : 인천-북경(대동)-오대산-태원-북경-인천
▣출 발 일 : 수시 출발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중국 비자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사가잉 6일 상품가 : 1,690,000원

▣일 정 : 인천-방콕- 양곤-바가-폽빠-바간-파간-마달레이-민군-만달레이-양곤-방콕-인천
▣출 발 일 : 수시 출발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미얀마 비자피(30,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 투바드 투어
TUVAD TOUR. CO. LTD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번지 현대리버티하우스 102-4호
Tel : 02-797-7686~7 / Fax : 02-798-3877
URL : www.gagatour.com
E-mail : master@gagatour.com

이렇게 들었다

노인공경

"모든 어르신 우리의 부모"

▩만약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지장경>

▩부모님께 근심을 더해드리지 말고, 마땅히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이 병이 나셨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의사를 모셔 치료하라. <시가라월육방예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매년 이 날이 오면 노인복지 관련 학술세미나를 열고, 혹은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회성 행사라는 것이다. 매년 반복적인 행사로 이 날을 맞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보다는, 그 형식에 매몰되는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일 여든이 된 할머니가 자식들의 외면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병을 앓아온 일흔 살 할아버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 외딴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효 정신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것이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 이들 어르신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부모들이다. 〈부모은중경〉에서 부처님은 남방으로 가다가 뼈 한 무더기를 보고 오체투지로 정중하게 예배한 후 아난과 대중들에게 "이 뼈 무더기는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예배한 것이다"라고 설법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조상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는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 "의식을 제공함은 하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부모님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은 상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등에 아버지를 업고서 수미산을 백천 번 돌아서 살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 골수가 드러나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으리라"고도 하셨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그 과보는 자식에게 이어지고, 그 자식 또한 후손으로부터 공양받지 못한다. "나는 세세에 온갖 부처님의 지극한 효행을 본받아 행했으므로 덕이 높아지고 복이 왕성해져, 마침내는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게 되었느니라"고 설한 부처님의 뜻을 간절히 좇아야 할 때이다.

오종욱 기자

요행 바라는 사회…"복권엔 행복없다"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공동체의 게임 법칙이 예측 가능한 공정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요행을 바라는 심리는 훨씬 덜할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조폭도 잘만하면 월급 팔백팔십만원짜리 사장이 될 수 있는 사회, 오백원짜리 복권 한 장 사들고, 마치 1억원에 당첨된 듯이 착각 속에서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복권의 1등 당첨확률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택'도 없는 대권주자들이 날뛰는 사회, 더욱이 그런 요행을 얻은 자에게 '신지식인'이라는 근사한 '왕관'을 씌워주는 사회에서 한탕과 대박을 향한 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복을 더해주는 복표 말고, 주어진 작은 복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복-지킴이'가 있다면 나는 살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사행성 산업 날로 확대

"주어진 福부터 지키자"

오래 전에 친구와 등산을 겸해서 어느 절에 스님을 만나러 갔다. 작은 읍내에서 절 입구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지루하다며 복권을 여러 장 샀다. 종이 패넬을 긁어 그 자리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었다. 당장 확인하려는 친구의 욕구를 간신히 달래며 절까지 갔다.

스님을 만나 우리는 복권 두어 장을 내밀고 우리도 서너 장씩 확인했다. 친구는 같은 그림이 두 개만 나오면 높아진 당첨가능성에 흥분하면서, 노름꾼이 화투장 펴듯 조심스럽게 긁어 내려갔다. 그러나 오백원짜리도 한 장 당첨되지 않고 모두 '꽝'이었다.

스님은 우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타는 촛불에 불을 붙여 복권을 태워 버리셨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복 받을 짓을 했다고 복을 기다리느냐?, 복 받을 만한 일을 한번 말해봐라! 나는 평생 악업(惡業)만 지은 사람이라 화가 미칠까봐 겁이 나서 이런 거 못한다"하시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내 식구의 꿈을 과장 해몽하고, 선동하여 사게 하지도 않는다. 남이 주는 복권도 받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처럼 '나의 악행을 알아차리고 벌할까, 혹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행복마저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사회가 복권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민들이 일년간 복권(경마/경륜포함) 사는데 쓴 돈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경기 승패를 놓고 돈을 거는 오락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심지어 어떤 드라마는 극의 전개과정을 묻는 복권을 내 놓기도 했다.

이런 요행심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름지기 '쾌락주의자'다. 복권은 오락이고,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다. 그러면 인간은 왜 쾌락을 추구하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 마리의 제비가 여름을 부르지 않듯이, 한 순간의 쾌락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쿠스 윤리학)'의 말처럼, 쾌락의 총합이 행복은 아니다.

복권은 순간적인 쾌락을 준다. 그러나 복권을 긁는 순간의 쾌락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쾌락과 행복의 관계는 날씨와 기후의 관계와 같다: 쾌락은 하루의 날씨처럼 변덕이 심하다. 그러나 날씨가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기후가 바뀌지 않듯이 행복이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쾌락으로부터 온다. 복권을 통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쾌락의 궁극 목적인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어디 한국인뿐이겠는가? 유럽은 분명 우리보다 더하다.(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행성 문화와 유럽의 그것은 다르다.)

열린마당

사찰 결혼식

결혼 시즌이 되면서 사찰결혼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찰결혼식을 권하는 사찰들은 불자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결혼식이 됨은 물론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와 하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효과도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사인연을 맺어주는 결혼식을 사찰에서 올리는 것이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불자가정 만들기 한몫"



전대식 〈봉은사 업무조정실장〉

봉은사에서는 92년부터 결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도회 봉사자들로 구성된 20여명의 회원이 일주일에 2~3명씩 번갈아 근무하면서 결혼 상담을 하고 있다. 가입된 회원은 1천여 명이 넘지만 1년에 3~4건 정도 성사되는 편이다. 이들 중 좋은 인연이 이루어져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주지 스님은 부부에게 '마음 다스리는 글'을 담은 액자나 석주 큰스님의 친필 휘호 등을 선물로 주고 부부는 그에 대한 답례로 봉은사 불사에 동참하기도 한다. 또한 신도회에서는 합창단이 축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신도회에서는 축의금이나 화환을 보내주기도 한다.

일평생 한번 있는 결혼을 사찰에서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로 대웅전 또는 미륵 부처님 앞 광장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 전통사찰의 양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각들을 앵글로 잡을 수 있고 푸른 녹지를 초점으로 맞춰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으므로 약간은 소란하기도 하지만 부러운 듯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특히 절은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많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재공양 의식이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혼식을 축하하는 하객들을 상대로 하는 포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봉은사에서 맺어지는 부부에게는 항상 법구(法句)가 들어 있는 액자 떡으로 자연스러운 불자 가정이 생겨난다. 고요하고 엄숙해야 할 사찰이 조금 소란하다고 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찰 내에 평생의례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절에서의 과제는 어떻게 결혼식을 불교다운 법식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석문의범에 나와 있는 결혼 의식도 있지만 왠지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다. 성스러운 의식을 갖춘 사찰결혼식은 포교의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처 세속화 우려"



이제열 〈유마선원장〉

근래 들어 불교의 위상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찰의 활동도 변화되고 있다. 주로 기도와 법회 같은 신행활동의 공간이던 사찰이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중생을 섭수하여 포교의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 수행처라는 사찰 고유의 전통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는 비판하고 싶다.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그렇다. 언제부터 절에서 스님들이 주례를 서고 예식공간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스님들에게 있어 걸맞는 행위도 아니고, 사찰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합당한 일이 아니다.

우선 스님이 혼례를 주선하는 행위는 계율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율장에서 부처님은 비구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중매를 서거나 혼사를 이루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혼례를 주선한 비구가 세간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이 있어 부처님께서 꾸중과 함께 금계를 내리신 바 있다. 좋은 인연 맺어주고 스님이 축원을 해주면 그 보다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왜 부처님께서 이같은 일을 말리셨는지는 숙고해야할 일이다.

다음으로 사찰의 기능면에서도 그렇다. 사찰은 청정처이다. 청정처에서는 세속의 잡다한 인연사를 쉬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사찰의 분위기는 그 청정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포교도 좋고 방편도 좋지만 불교가 세속적 분위기로 바뀌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꼭 사찰에서 예식장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면 사찰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할 수도 있다. 스님의 역할도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 주례를 서기보다는 그들로부터 공양을 받고 법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고

"소수의 전제 국가와 함께 맞서고 있는 우리의 창과 방패에 축복을 내려 주소서"

언뜻 보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구호 같지만, 실은 미국 테러 참사 후 열린 기도회에서 럼스펠드 부통령이 읽은 기도문이다. 이 말을 듣고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인식의 차이는 접어두고라도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전쟁의 상징인 창과 방패에 신의 축복을 빌다니. 원수를 완벽하게 때려눕힐 힘을 달라는 기도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

"테러와 보복 폭력 악순환 '관용' 절실하다"



정웅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

섬뜩하기는 원인을 제공한 과격 테러분자들도 마찬가지다.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이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미제국주의의 양민학살과 똑같은 죄악이다. 테러로 인해 숨진 뉴욕과 워싱턴의 양민들과 미군 폭격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베트남, 이라크의 양민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이 교훈의 실천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다. 먼저 종교가 나서 '복수', '응징'의 신봉이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 종교인들은 아프간으로 출병하는 미군의 안녕을 축복하기 앞서 미국 정부와 국민이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양민희생 반대, 전쟁반대'를 용기 있게 주장해야 한다.

아랍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슬람은 먼저 자신들의 풍부한 종교성을 살려 테러가 교의에서 벗어난 행위임을 천명하고,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자체 조사와 국제사회 이첩 등을 수용해야 한다. 불교는 자비무적(慈悲無敵)의 정신을 인류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폭력의 악순환은 종결될 수 없다는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을 펼쳐 나가야 한다. 21세기 종교는 이때 비로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송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증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작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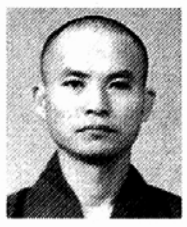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사·부·대·중

어제도 오늘도 '불사中'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계획이 어떻게 될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요즘 절중 불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도시 절이나 산중 절이나 365일 불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불자라면 누가 불사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겠는가. 문제는 불사 내용이다.

우리 불교계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사회복지와 교육불사다. 가장 절실히 종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불사를 외면하고 있기에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모든 스님들과 절에서 불교가 요구하는 이러한 불사를 안한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나 문화 분야에서 각기 소임을 다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나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생각할 점이 더 많다.

지난 윤달에 삼사 순례를 다녀왔는데 가는 절마다 불사중이었고 한결같이 기와 불사였다. 이번만이 아니라 이제껏 방생이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똑같이 몇 년째 하고 있었다. 어느 신도가 물었다. "스님, 가는 곳마다 기와불사를 하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당우를 얼마나 짓는 것입니까?"

나는 기와 지붕은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또한 산중이라 겨울에 동파가 나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초가 되면 도반은 물론이고 문중 절이나 유수한 사찰에서 서로와 달라고 편지와 함께 팜플렛을 보내온다. 이제 우리 불교도 먼 미래를 보면서 사회 속에서 중생과 함께 성장하는 불사를 수행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목탁소리

신도만의 잘못일까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19일 저녁, 관심을 끄는 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기복불교.'

'기복불교' 문제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사찰이나 불자들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기복불교를 극복해야만 한국불교가 제대로 길을 갈 것이라고 누구나 말은 하고 있었지만 기복불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거나 명쾌한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날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는 "기복불교 자체를 무조건 터부시하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복락에 대한 분출이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면서 "기복행위의 방편즉, 올바로 복을 짓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복짓는 일들을 망라, '복 채점표'를 만들어 이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불자들의 기복행위를 올바로 이끌어 불교적 이상에 걸맞는 복짓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효과적인 방편으로 기복을 올바르게 이끌고, 불교를 바로 세우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제언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자들 신행이 기복화되어 있다는 지적은 제대로 본 것일 것이다. 문제는 이를 바로잡고 정법을 가르쳐야 할 사찰의 스님들중 일부가 오히려 기복을 조장하거나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찰신도들 대부분은 스님의 지도력에 따라 좌우되며 신행모습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도들을 바르게 정법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신도들은 반드시 변화한다. 중생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해 사찰의 재정을 늘이거나 신도들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기복을 부추기는 타성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어쨌거나 종단이나 학계에서 기복신앙 문제를 방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기복불교가 나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덕불교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사찰 · 단체 인터넷 포교 어디까지 왔나

2백여곳 사이트운영…관리소홀 '네티즌 외면'

불교계 사찰 단체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200여개에 이르렀지만 관리 소홀로 네티즌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대다수 홈페이지들이 화려한 데뷔 후 관리 소홀, 기술력 부재, 전담인원 미비, 자금 문제 등으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 "작년에 본 모습이나, 오늘 본 모습이나 골동품이 전시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는 어느 네티즌의 따끔한 일침은 불교계 사찰 및 단체 홈페이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검색엔진 엠파스와 야후 코리아에서 교차 검색한 결과 사찰 홈페이지는 130여개, 불교 단체 홈페이지는 70여개로 나타났다. 몇 년 전 달마넷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꾸민 이후 인터넷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사찰 ·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포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숫자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은 몇몇 곳을 빼고는 관리능력, 디자인의 세련도 등이 타 사이트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불교계 정보화 마인드의 부재를 근본적인 이유로 꼽는다. 교계 IT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설의 필요성에는 스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시설투자 분야로 들어가면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조계종의 경우 24개 교구 본사 중 17곳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들답게 세련된 디자인과 방대한 정보, 활발한 게시판 운영 등이 돋보인다. 몇몇 사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행상담실 등을 운영, 신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열어 포교에 일익을 더하고 있다.

본사급 사찰들 외에도 한마음선원, 능인선원, 보리수선원, 불교정보센터,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게시판과 움직이는 쌍방향 네트워킹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한마음 선원은 인터넷 방송국과 커뮤니티, 웹 메일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을 포교의 최첨병으로 내세우며 네티즌들을 공략하고 있다.

벽공스님이 운영하는 마하선원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만 하다. 스님이 직접 매일 게시판을 체크하며 불교교리, 정진, 생활 등 전반에 걸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폰을 이용한 원격 인터넷 전화 참선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 세계를 운항하는 반야용선에 비유될 만한 페이지이다.

이렇듯 활발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 뒤에는 전담 관리자가 있다. 한마음선원은 아예 웹 쪽을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다. 이들 홈페이지 전담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페이지를 점검하고 정보를 보강한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일부분이다. 아직까지 웹 팜플렛에 머물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훨씬 더 많다. 경기도 B사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근 공지사항이 지난해 겨울에 올린 것일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 게시판이나 방명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신도들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

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에티켓 준수도 필수 요인이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들에서는 삼보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와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삼보 비방, 이에 화답하는 원색적인 욕설들로 가득찬 게시판은 불자인가 의아심을 갖게 만들 정도다.

전체 사찰 1만3천5백여개(대한불교진흥원 98년 집계)와 84개의 불교법인(01년 문화관광부 집계), 천여개에 달하는 단체들에 비해 200여개 밖에 안되는 홈페이지 숫자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은 불교계의 홈페이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내실을 다져 인터넷 포교의 기반을 닦아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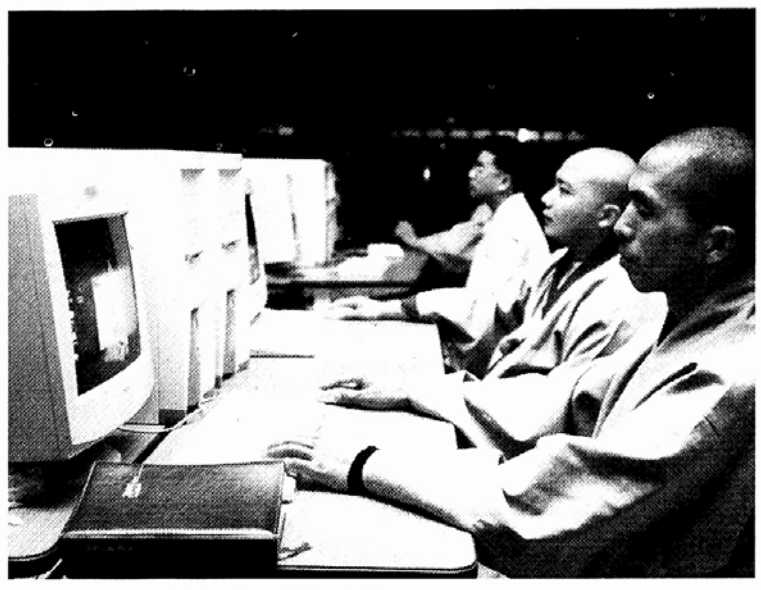
송광사에서는 얼마전 사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전산 마인드가 약한 스님에게는 주지 임명도 하지 않겠다는 정보화 의지를 공표했다. 이처럼 본사급 사찰들이 앞장서 정보화 마인드를 키우고 인력을 양성하며 시설투자에 앞장설 때 말사를 비롯한 다른 불교계 홈페이지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해당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꾸준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

강지연 기자 iygang@buddhapia.com

조계종 본사급사찰 한마음선원 등 몇몇곳만 '모범적'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 등 절실



◇일부 사찰 · 불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관리소홀로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고있다. 사진은 전산교육을 받고 있는 스님들.

종립학교 홈페이지 '활발'

청담정보고-사이버강좌

대구 심인중-인터넷 신문

대전 보문중-인터넷 도서관

전국 27개 종립학교들은 21세기 고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자율성 · 창조성 · 다양성을 추구하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대부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들은 주로 학교소개, 학생커뮤니티, 학습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소개는 학교장 인사, 학교 현황, 공지사항 등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학교를 알리고 있다. 명성여고의 경우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6년 학교 홈페이지를 제작해 지금까지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학생커뮤니티는 특별활동 동아리, 학생자치활동, 동창회 방 등의 코너로 나누어져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다. 종립학교 홈페이지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코너가 바로 학습 자료실.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자료실에 올려놓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내려받아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컴퓨터 관련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IT 뉴스, 컴퓨터 자격증 자료실 등을 운영해 실업고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대구 심인중와 대전 보문중학교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도서관을 별도의 홈페이지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논술지도는 물론 인성교육을 시키고 부산 금정중학교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E-mail을 통해 학생들의 인생, 진로, 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종립학교 홈페이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활발하게 운영되는 종립학교 홈페이지

동대부고	http://www.ddbk.net
명성여고	http://www.msong.hs.kr
진선여고	http://jinsun.hs.kr
정광고	http://www.jg.hs.kr
보문고	http://bomoon.cschool.net
광동여고	http://home.dreamx.net/kdghs
광동중고	http://kwangdong.hs.kr
금정중	http://school.kerinet.re.kr/kumjong-m
심인고	http://neungin.hs.kr
청담중	http://school.kerinet.re.kr/chongdam-m
청담정보통신고	http://www.ichungdam.net
심인중	http://neungin.ms.kr
홍제중	http://kyongnam.hongje.ms.kr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개원 인사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신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몇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금번에 소납이 포교원력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에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이라는 교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불지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도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소개 있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특히 불지촌에서는 선기공 정각회의 활동으로 신도님의 건강상담에 주력하고자 하오니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일과표 문의처 02-3444-4376

AM 10:30~AM 12:00 사시불공						
역학 개인지도반 : 매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사주정설 강좌와 관상학 강의						
오후4시 부터 오후5시 까지	기수련강좌	역학강좌	선체조	범패강좌	선체조	다도법회
	月	火	水	木	金	土
건강상담개인지도 매일 3명으로 제한, 1개월 코스, 일주일에 3회 수련 지도 오전 9시~10시 30분 [1명] 오후 3시~4시 30분 [1명] 오후7시~8시반 [1명]						
PM 6:30 ~ PM 7:00 저녁예불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126-64F TEL : 02-3444-4376
· 홈페이지 : WWW.BULLJICHON.COM 한글 도메인 주소 : 수산스님.COM
· 오시는 길 : 영동대교 입구와 청담사거리 사이 프리마 호텔 맞은편 조흥은행 골목길에 들어서면 불지촌이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지촌 주지 배수산 합장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㉖

이제 일곱번째 보광명전법회에 참석해 보자. 제27 십정품(十定品)부터는 등각(等覺) · 묘각(妙覺)의 부처님의 경지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래출현품 이전까지의 10품은 등각법문이고 여래출현품과 다음의 제38 이세간품(離世間品)은 묘각법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보광명전에서 다시 11품이 설해진다. 그 가운데 제32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사방과 사유(四維)에 있는 산과 바다를 소개하면서, "동북방에 청량(淸凉)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권속 일만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기(法起)보살이 그의 권속 일천이백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렇게 금강산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사실을 보도록 하자. 청량소에서 말하였다. "동해 동쪽 가까이 금강산이 있는데 산 전체가 금인 것은 아니지만 아래위와 네 방위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속에 모두 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체가 금으로 보인다. 또 해동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산중에서 가끔 성인이 출현하신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 금강산의 명성이 이미 오랜 옛날부터 중국에 알려졌었나 보다. '오대산(五臺山)의 문수(文殊) 신앙' 과 신라대의 '화엄십찰(華嚴十刹) 신앙' 을 성립시킨 증거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제 제37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을 보자. 여기서 '여래(如來)' 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 곧 삼불원융(三佛圓融)의 부처님이요, 중생신, 국토신 등으로 자재롭게 중생의 기도와 회구에 응하는 십신무애(十身無碍)의 부처님이시다. 관음보살의 32응신(應身)이나 석가불의 천백억(千百億) 화신이 그 좋은 사례가 된다. 출현이란 여래성기묘덕보살(如來性起妙德菩薩)을 통하여 화엄의 성기사상(性起思想)을 보인 내용이다. 먼저 경문을 잠시 보자.

"그 때 세존께서 눈썹사이의 흰 털(眉間白毫相)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여래출현(如來出現)이요, …그 광명이 시방 온 허공 법계와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열 번 돌아, 여래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보살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하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여래성기묘덕보살(如來性起妙德菩薩)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성기사상(性起思想)' 이란 법계연기사상과 함께 화엄의 중요한 법문이니 '선(禪)과 화엄(華嚴)의 사상적 통로' 가 되어왔다. 성기(性起)라는 말을 몇 가지로 간추린다면 ①여래의 출현 · 출생 ②수행이 무르익은 보살이 여래의 가문에 탄생 ③여래성(如來性)의 시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문에는 성기묘덕(性起妙德)보살 즉 문수보살이 여래께서 출현하신 10가지 모습을 질문하고 보현보살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해져 있다. 첫번째 '여래출현의 법' 에 대한, 선사(禪師)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게송을 보자.

"누구나 부처 경계 알고자 하면 그 뜻을 깨끗하기 허공과 같이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 멀리 여의고 마음 향하는 곳 걸림 없도록 하라(若有欲知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 遠離妄想及諸取 令心所向皆無礙)."

이어서 여래의 몸, 음성, 마음, 경계 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부처 알려면 뜻 허공같이 하라

망상 · 집착 여의고 걸림 없으면 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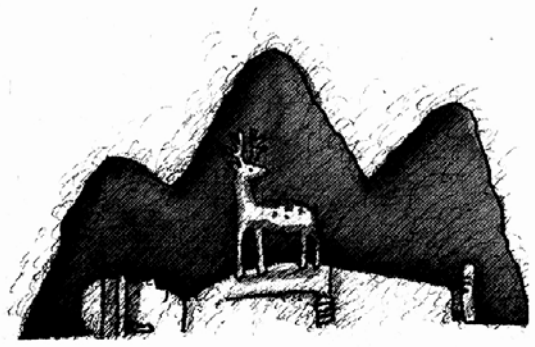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자연 – 인간은 한 생명체

불교와 과학 〈45〉

저기 서 있는 치악산을 보기 위해서는 치악산과 내가 어느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내가 치악산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산의 전체를 볼 수 없다. 내가 산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과 관찰자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생각이 바로 서구 과학을 잉태시킨 정신적 촉매가 되었다.

그리스어로 '테오리아(theoria:이론)' 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극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시어터(theater)' 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 즉 저기 멀리 떨어져서 대상을 본다는 뜻이 들어 있다. 시장에 싸움판이 벌어졌을 때 싸움을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 혹은 관객이 절대로 동참할 수 없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공연이 바로 시어터이며, 테오리아의 시작이다. 즉 테오리아는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일이다. 이러한 분리작업을 통해서만 과학이론이 형성된다. 따라서 과학의 객관성은 대상에서 관찰자가 떨어져 있을 때만 보장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객관성의 함정이 숨어 있다. 대상과 관찰자가 분리되어야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과학체계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그런 객관화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의 경험적 대상이 추상성의 수학적 대상으로 바뀐다. 경험적 대상을 수학적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은 서구 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의 기본이다. 이러한 플라톤 철학은 서구 사상 특히 서구 과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과학이론의 위대한 성과는 경험적 대상을 수학적 대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과학법칙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뉴턴에게 모든 경험 대상은 오로지 수학기호일 뿐인 질점(質點, mass point)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천문학의 대상인 달은 그 달의 무게중심인 질량의 중심점으로 환원되어 경험의 달이 수학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토끼가 방아 찧고 이태백이 놀던 달이 갑자기 만유인력 수학공식의 한 질량 중심점으로 전락된다는 말이다.

기하학으로의 환원을 통해 자연과학이 발전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환원된 자연은 그 생명성이 상실되고 오로지 수학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한 자연은 과학의 탐구대상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런 자연을 사람의 마음 속에 투영시켜 인간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연은 이미 화석화된 자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살아 있는 자연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과학을 배제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양자역학을 성립시킨 닐스 보어(Niels Bohr)라는 물리학자가 있다. 그가 자신의 상보성 이론을 설명하는 예를 보자. 생세포를 관찰하는 경우 우리는 그 세포를 살아 있는 조직에서 떼어 내서 염색을 한 다음 현미경의 대물 렌즈 앞에다 갖다 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세포를 관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생세포를 조직에서 떼어 내는 순간 그것은 생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 생세포에 대한 과학적 탐구 행위는 가능한 것인가? 고전과학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전통과학에서 과학이론의 성립은 결국 자연을 파괴시키는 데서 출발했다. 그 결과 자연과학의 성과와 환경문제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일이 잦아졌다. 자연환경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항상 저기 멀리 있는(there is) 기하학적 대상으로 전락된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은 환경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이다. 자연은 저기 멀리에 있는 박제품이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놓여지는 것인데도 말이다.

자연과 내가 공동의 질문거리를 가질 때, 비로소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연을 죽어 있는 화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기체라는 의미는 자연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보편인격과 생명성, 그리고 자비성이 내재한다는 뜻에서 자연을 유기체적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곶감 빼먹듯이 빼가기만 하는 그런 자원의 저장창고가 아니다. 그런 죽어 있는 자연은 그 안에 들은 자원을 다 쓰면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전락될 뿐이다.

그래서 친환경적 자연관이란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런 사실에 공감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개발의 명분으로, 골프장의 명분 등으로 생명의 나무들이 무참히 베어져 나가는 현실을 나의 손가락이 잘리는 아픔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바로 나, 나의 자아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자연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면 된다. 내 안에 투영된 부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과 너무나 같은 일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자연관

과 학 대상과 나를 분리해 놓고 관찰

불 교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 파악

무고한 생명살상 규탄 자비 넘치는 세상 발원

지구촌 불교 / 각국 테러참사 추모

지난 11일 미국 테러 사태와 관련해 각국의 불교계는 무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하면서, '자성' 이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참사 이후 예견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존재는 인연 소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것이다.

이번 테러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낸 곳은 국제불광회 세계총회. 총회는 12일 홈페이지에 "무차별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테러행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세상에서 테러와 같은 죄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선의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합께 손을 잡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세상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총회는 15일 홈페이지에 희생자 추모 페이지를 만들고,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도 실었다.



◇15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공원에서 이번 테러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스님들.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불교계 연합체인 미국불교회 역시 12일 성명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무차별로 살상한 이번 테러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며 테러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미국 정부는 이 일이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미국불교회는 15일 뉴욕에서 추모법회도 봉행했다.

국제불광회 희생자 위문 사이트 열어

캄 · 泰 · 中 불교계도 잇달아 천도법회

캄보디아불교연합는 15일 프놈펜 공원에서 희생자의 천도를 바라는 추모법회를 봉행했고, 태국과 중국 불교계도 18, 19일 추모법회를 각각 봉행하고 "미국 국민이 엄청난 테러 공격의 상처로부터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 국민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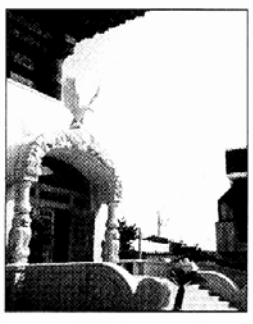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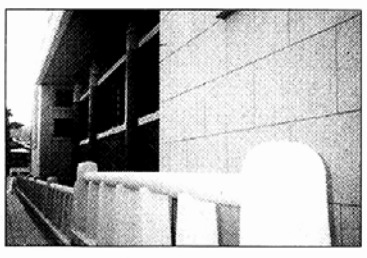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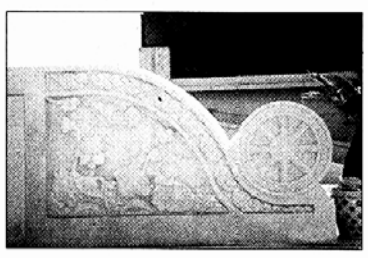
한편 티베트와 홍콩 불교계의 경우, 오사마 빈 라덴 및 비호 세력들에게 '선전 포고' 를 한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해 주목된다.

1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의 서한을 통해 "폭력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한 티베트 불교계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모든 폭력은 오로지 파괴를 가져올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비폭력의 길을 방해한다"며 "길게 보자면 비폭력만이 테러리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미국의 보복공격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홍콩 불교계의 지도자인 콕 퀑 씨는 15일 저녁 홍콩 불교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추도식 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천명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미국은 용서와 자비를 보여 달라"며 "테러분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잔학무도해도, 또 다른 인명이 살상되는 '살인' 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분노를 삭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석재 가공 및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석물 공사 전경

주요 공사 사찰

운문사. 봉녕사 부산해운정사
봉암사. 용운사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용수사. 청주 수도원 한마음선원 외...

합 동 석 물 (주) 대 표 탁 희 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 전 화 : 054) 955-8200~1 · FAX : 054) 955-8202 · 휴대폰 : 011) 509-1443

특허

"B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 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 루 막	남 · 여	130,000
	동 방	남 · 여	120,000
누비	上 下	남 · 여	190,000
	두 루 막	남 · 여	160,000
	방 한 복	남 · 여	130,000
	보 온 복	남 · 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 · 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福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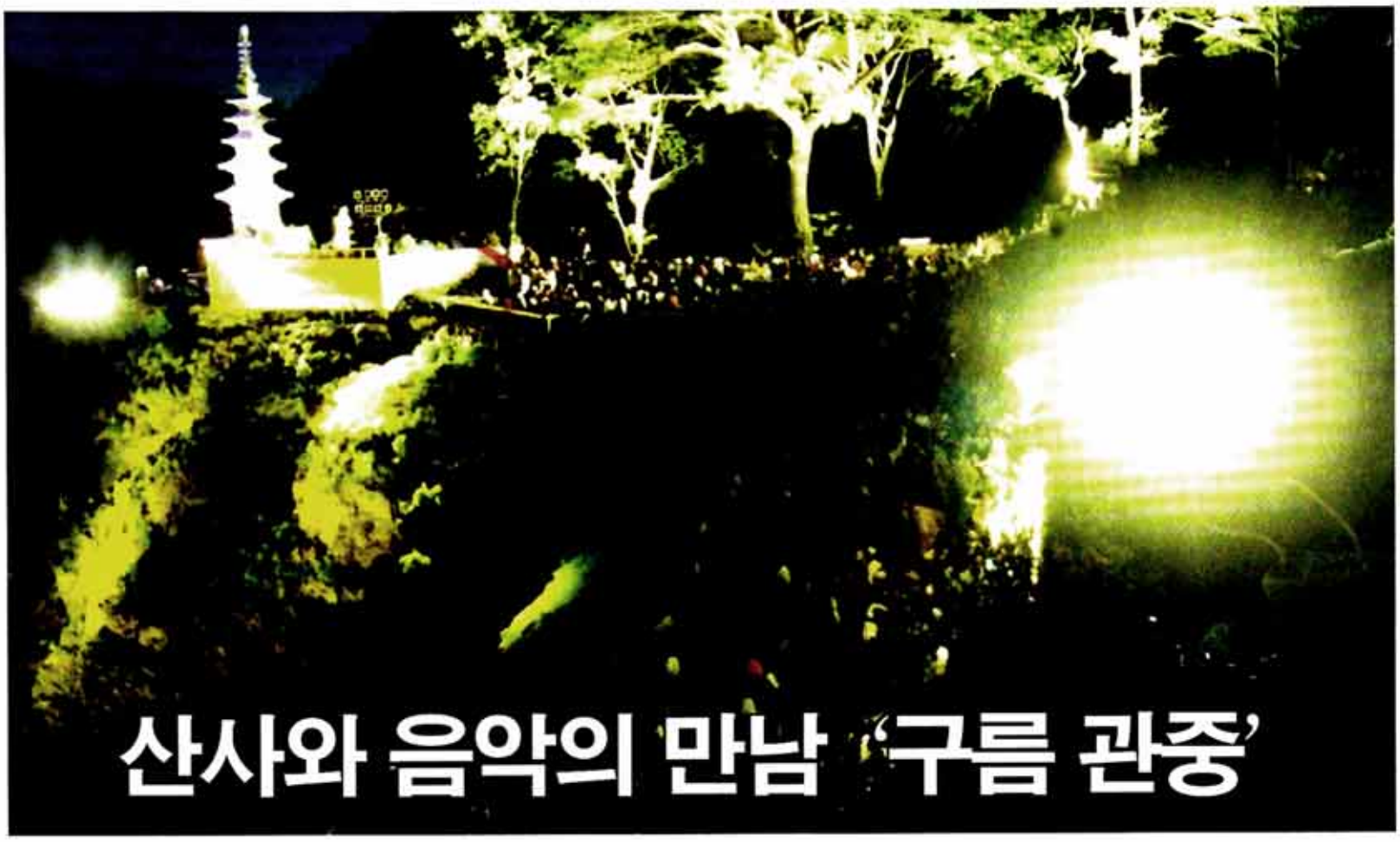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

불교사격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산사와 음악의 만남 '구름 관중'

봉화 청량사 음악회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청량사 개산 1338년 이래 최대인파
서울 · 부산 등 전국서 5천2백명 몰려
"청량산 열두암봉도 별빛과 함께 구경"

'불교와 절은 재미없고 따분하며, 할머니들이나 찾아가는 곳'이라는 일반의 편견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그저 마음만 활짝 열면 누구나 찾아와 그 속에 담긴 자연과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불교와 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산사음악회가 15일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에서 열렸다.

'천년의 속삭임,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주제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두 스님이 창건한 이래 올해로 개산 1338년을 맞는 청량사의 수행가풍을 잇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의 참 모습을 보게 하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특히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를 지향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종교적 색채를 최소화시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축제로 꾸며진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날 음악회에는 봉화, 안동, 영주 등 인근 지역민과 불자는 물론이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 전국에서 5천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철도청에서도 15일 무박 2일의 일정으로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와 정동진을 연계한 관광열차를 운행할 정도로 이번 산사음악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봉화지역 단일행사로는 최대규모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지역사회와 불교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이기도 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앞으로도 이 지역 청량문화제의 사전행사 형식으로 매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본 행사인 산사음악회 외에도 청량사는 산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전시회와 특별법회, 육법공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그야말로 한마당 문화잔치를 베풀었다.

음악회 시간이 다가오자 청량사를 에워싼 열두 암봉마다 은은한 조명이 밝혀졌다. 또한 절 아래로 이르는 길에는 연등을 내걸어 오가는 이들의 길을 밝히고, 청량산 전체는 무대가 되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한마당 잔치였다.



◇행사 당일인 15일 이른 아침부터 청량산 청량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절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무대를 중심으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법당 계단에, 화단에까지 발디딜틈 없을 정도로 경내는 사람의 물결로 넘쳤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산 중턱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드디어 하유스님의 힘찬 법고 시연으로 산사음악회가 막을 올렸다. 청량산의 산신과 하늘의 별들, 유리보전의 약사여래부처님까지 문을 활짝 열고 앉아 공연을 지켜보았다.

테너 최조웅씨(안동대 교수)가 부드러운 우리 가곡과 아리아의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 주었고, 국악인 성상희씨의 가야금 연주는 어깨춤을 들썩이게 했다. 가수 한영애씨의 공연으로 산사음악회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사회자 진명스님은 그 열기에 극적효과를 더하려는 듯 이번 산사음악회를 마련한 주지 지현스님을 무대로 모셨다.

진명 스님이 물었다. "스님, 이번 음악회의 주제가 '천년의 속삭임,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인데요, 실제로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겠지요!" 지현스님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지현스님은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 산사음악회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 하늘에 가득한 별빛들을 한 아름씩 안고가시기 바랍니다"라며 청량사를 찾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소리꾼 장사익과 노름마치의 구성진 노래가락이 울려 퍼졌고, 오랜 시간동안 청중들을 기다리게 했던 가수 안치환씨가 산사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손에 손을 잡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함께 부르며, 청량사의 밤은 깊어갔다.



◇가수 한영애씨의 열창.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천년 고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함께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사이, 관람객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어 돌아갔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향연으로 매년 지역주민 초대"

음악회 연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서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아 저렇게 많은 별님들까지 저희 음악회를 찾아주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산사음악회를 준비한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사실, 저희는 천명민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행여 음악회를 찾은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라며 음악회의 성공 이전에 청량사를 찾은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이번 음악회는 '마을로 내려 온 스님'이라는 애칭까지 얻을 정도로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지현스님의 원력의 한 결실이다. 스님은 최근 영주장애인복지관의 관장도 맡아, 하루도 쉴틈이 없다.

현재 스님은 우리 창작 찬불가를 제작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의 총재이기도 한데, 이런 스님을 중심으로 풍경소리를 비롯해 청량사와 인연 맺고, 청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

스님은 "오늘의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주제가 있는 산사음악회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면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고장과 청량사를 널리 알리고, 인근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알찬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철저한 준비-흥겨운 진행"

부산서 온 이경태씨 가족의 소감

"불자이신 어머니께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을 이용해 전 가족이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찾았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칠순을 앞둔 노모와 10개월 된 작은 딸, 3살 된 큰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청량사를 찾은 이경태씨. 자신은 불자가 아니라고 밝힌 이씨는 어머니 덕분에 모처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여기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곳 청량사의 산세나 분위기, 철저한 준비와 깔끔한 진행, 멋들어진 음악, 모두 감동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올 생각입니다."

이은자 기자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숲



중풍 · 당뇨 · 어린이 경기에 효능

서기 802년, 신라의 순응 대사에 의해 창건된 해인사에는 숲에 관한 일화가 전해진다. 당나라에서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은 대사가 고향인 서라벌로 돌아오던 때의 일이다. 가야산 산중에서 서광(瑞光)이 비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따라가던 대사의 눈앞에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졌다. 날이 밝은 뒤, 그곳 지형을 둘러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길지였다.

순응대사는 그곳에서 불사를 위해 숲을 만들기로 했다.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숲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내일이면 마을 장정들을 불러 숲을 마을로 옮기기만 하면 그간의 고생도 빛을 보는 것이었는데, 아뿔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많이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그 많은 숲가마와 숲덩이를 모조리 흙 속에 묻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응 대사의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이곳은 내가 400년 후에 와서 머물 곳이니, 그때 그대의 숲을 고맙게 쓰겠노라. 그대는 빨리 서라벌로 가서 숲으로 공주의 병을 고치라"고 이르셨다. 당시 신라 애장왕의 공주는 위궤양이 심해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 대사의 숲가루 처방 덕택에 공주의 병은 호전되었다. 그 후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해인사의 창건을 발원한 순응 대사를 크게 도왔다고 전해진다.

본래 식용 숯은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음식 또는 음식의 첨가제로 이용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쌀에 숯을 넣어 밥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돌림병이 들 때면 으레 숯가루를 탄 물을 마셔 저항력을 키웠다. 서양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간질, 현기증, 빈혈, 턴저병 등의 치료에 이용했다. 예로부터 숯은 살균, 정화의 효능이 뛰어나 우리의 장류(醬類) 음식을 만드는데 널리 이용되었고, 식용 숯은 대장염이나 위궤양, 숙변 제거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차콜(Charcoal)'이라 불리는 소나무 숯가루를 주로 식용하는데, 식용 숯은 선식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로 이용되었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효능과 이용법

① 한방에선 '죽염'이라 불리며 중풍, 당뇨, 어린이 경기 등에 사용.

② 진통, 해열작용과 공해물질 및 잔류농약 성분의 제거, 위염, 간염의 예방 효과.

③ 위암, 췌장암에는 참숯물에 황토아궁이 바닥을 긁어 물에 타서 먹으면 효험이 있다.

④ 수돗물 1리터당 숯 20~30g짜리 1~2토막을 넣으면 정화수가 된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백운선사 '無一花'

49세 이전의 행적이 없어 고려사의 기술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전북 고부에서 출생한 선사의 법명은 경한(景閑), 법호는 백운(白雲)이다. 충정왕 3년(1351)에 중국 호주 가무산 천호암으로 가서 선종의 거장이신 석옥청공 선사와 지공 선사에게 법을 구하였다. 석옥에게 법을 구한 지 1년만에 깨달음의 큰 전기를 맞이하였다. 선사는 무심무념(無心無念)의 참뜻을 깊이 인지하였다.

"골 내 마음에 맺혔던 의심은 얼음처럼 풀리고 무심무념의 위없는 참뜻을 깊이 믿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스승 석옥은 선사에게 인가를 하였다.

3월에 고려로 귀국하여 성각사에 주석하여 용맹정진하였다. 정진을 하던 계사년(1353) 정월 17일 오시(午時)에 단좌를 하고 입정에 들어 있는데 문득 영가 대사의 증도가(證道歌) 가운데

무심의 거울은 비추어도 항상 허공이로다.
골짜기 흐르는 물은 쪽물인 것 같고,
문밖의 청산은 자연 그대로이다.
산색, 물소리에 전체가 드러났으니,
그 속에서 무생(無生 : 모든 법의 실상은 생멸(生滅)이 없는 것)의 깨달음을 얻었노라.

선관(禪觀)

黃面瞿曇不良久(황면구담불량구)
室中維摩亦不默(실중유마역불묵)
恰似吹毛新發硏(흡사취모신발연)
外道天魔 處不得(외도천마처불득)

금빛 얼굴의 부처님은 유구한 세월도 없나니,
방장실의 유마힐도 침묵하지 않도다.
선의 본바탕은 새로이 연마한 취모리(번개같이 빠른) 검과도 같으니,

물속 달빛 허공서도 볼수있으나 무심의 거울은 비추어도 항상 허공

"망상을 버리려 하지도 말고, 진실을 구하려 하지도 말라, 무명(無明)의 실성(實性)이 곧 불성이요 환화(幻化)의 공신(空身)이 곧 법신이다"는 어구에 이르러 그 뜻을 깊이 담연(湛然)하였을 때, 무심이 되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전과 후가 아주 끊어져 조금도 의지할 곳이 없어 명연(冥然)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선사께서 확연대오 했다.

무일화(無一花)

一念不生全體現(일념불생전체현)
此體如何得喩齊(차체여하득유제)
透水月華虛可見(투수월화허가견)
無心鑑象照常空(무심감상조상공)
洞中流水如藍染(동중류수여람염)
門外靑山盡不成(문외청산진불성)
山色水聲全體露(산색수성전체로)
簡中誰是悟無生(개중수시오무생)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전체가 나타나려니,
이 본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으리요.
물속 달빛은 허공에서도 볼 수 있으나,
외도와 천마(天魔)도 넘보지 못하네.

선사의 깨침은 무념무심(無念無心)의 진종(眞宗)이다. 선관(禪觀)은 무심일도(無心一道)로서 이뤄졌으며, 무심무상(無心無上)의 선관(禪觀)이다. 선관의 가르침은 밝은 해도 밤에는 비추지 못하는 것이며 밝은 거울도 뒤에는 비추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진실을 찾고 또 찾아도 본체는 없는 것이며, 허망을 궁구해도 자취조차 없는 것이다.

선사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무심을 관하셨다. 마음에 뜻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의 법이 생기는 것이며, 마음이 멸(滅)하면 여러 가지의 법도 멸하는 것이다. 마음을 끊어서 무심이 되지 않으면 간화선에 있어서 화두도 본래의 뜻보다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을 일으키는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경계만 잊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멸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끊으면 경계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무심의 적조(寂照)로서 깨달음의 진종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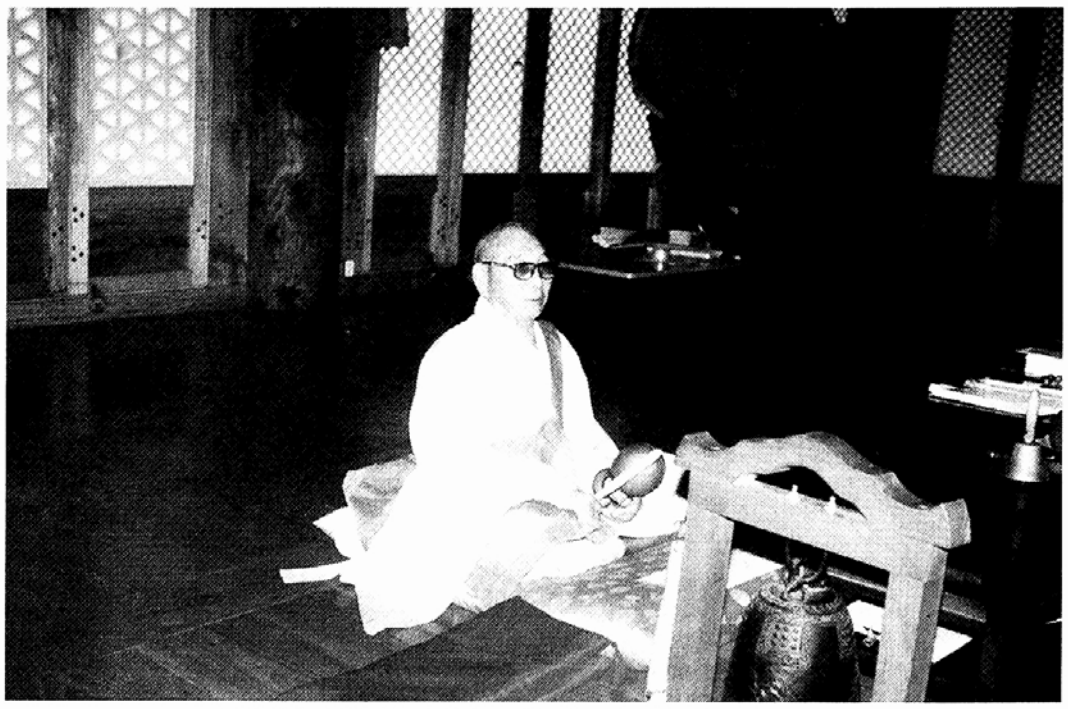
선사께서는 공민왕 3년(1374)에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하셨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구암스님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성불이란 완벽한 인간되는 것"



◇외부의 어건이 어려울수록 내면을 다져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구암 스님.

일상에서 묻어나는 갑갑함을 다스려 줄 시원한 폭포수 같은 사자후가 아쉽고, 예전의 선지식들이 그러하셨듯 깨우친 스승을 찾아 깨달음을 구하고픈 간절함이 잦은 요즘이다. 이렇다 할 갈등도 없는 일상이건만 속절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장난에 속을 때마다 '너의 갑갑한 마음을 내어 놓아라' 하는 일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안의 속진을 훌훌 털어버릴 대안을 찾고 싶어진다.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이신 구암 스님을 뵈러 가는 심정이 그러했다. 한번 가 본 적이 있는 기억을 더듬어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관음사를 들어서자 길지 않은 몇 년 사이 전각들의 모습이 크게 변해서 마치 처음 와보는 듯한 생경함이 몰려왔다. 그러나 구암 노스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인사를 여쭙자 "잘 삽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스님의 근황을 너끈히 알아차리게 한다. "절에서는 염불하고 바깥에서는 법문하는 게 요즘 생활의 전부"라고 덧붙인 스님은 전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국의 테러 대참사사건을 화제로 삼으신다.

응징보다 수습에 온 정성

"세상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아도 중요한 일들은 놓치지 않고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니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고 보복을 한다, 응징을 한다 떠들썩 하더군요. 사건이 더 위험한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도르겠으나 국제적인 인심을 얻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두루 두루 보살피는 덕을 베풀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심을 잃은 것이나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어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원한을 원한으로써 갚으면 더 큰 원한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응징보다는 수습에 온 정성을 쏟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국력이 세고 약한 것, 국토가 크고 작은 것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일체를 나와 동일시한 부처님의 세계관이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나아졌지만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왜정시대라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먹는 게 늘 부족해 배를 곯아야 했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행정진을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내면을 다지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구암 스님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점령되어 있던 왜정시대에 출가했다. 스님의 말씀처럼 그 당시 우리 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진리를 구하는 출가사문의 구도정신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점령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처음 출가해서는 성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 도가 터진다고 하는데 도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는가 하는 의심이 났지, 허허허. 지금은 남에게 포교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발전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지."

이어 스님은 "성불이라는 말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가 쉽지 않으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완벽한 인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 "마음 비울수록 대상과 일체가 되는 지혜 움솟아나요"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
만물여아일체(萬物與我一體)
처만변이여여부동(處萬變而如如不動)
윤호겁이완완상존(淪浩劫而宛宛常存)

게송을 읊고는 다시 자상하게 풀이해 주신다.

"태어나면 죽고, 가을 되면 곧 겨울이 오고 봄 되면 꽃이 피고,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물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한번, 열번, 백번, 천번, 만번을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곳에 처함이 성불이요, 또 태어나고 죽고 시간적으로 아무리 윤회를 한다고 해도 맴돌지 않는데 거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니 생사를 초월한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체적으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갓난 아이였던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시집 장가를 가고 장년이 되어서 모습이 자꾸 늙어서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들리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이처럼 변해가는 세상에 함께 살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찾는 자리이니 그것에 함께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개미가 물그릇 가를 맴돌 듯이 자꾸 윤회하더라도 그것을 좇아 윤회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좋은 법문을 듣고 나면 늘 남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법문의 내용을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법문의 뜻을 감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자리, 윤회 하지 않는 그 자리를 체득한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를 향해서 가는 길, 즉 완성된 인간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지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첫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

구암 스님은?

범음범패 전승 남다른 열정

틈틈이 서화…작품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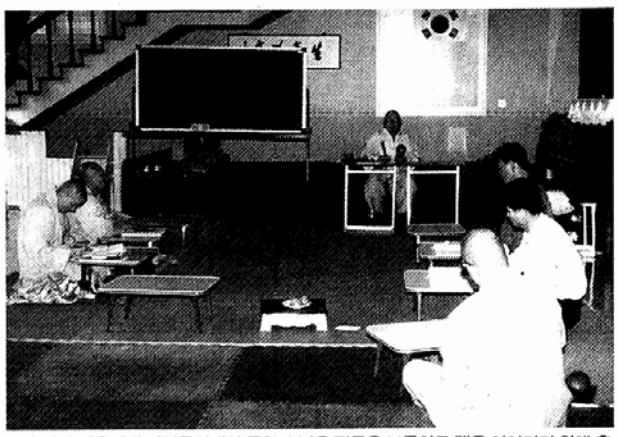
구암 스님은 대한불교 법화종 제6대 종정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자리일 뿐"이라는 스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 직함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세수 76세인 지금도 포교를 위한 원력과 실천은 오히려 젊은 사람을 앞지를 정도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량석, 타종, 예불, 정근, 축원을 단 하루도 빠트리지 않는 구암 스님은 범음범패 전수를 위한 교육을 관음사에서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한다. 또 용담포교원과 불교교양대학에 출강, 법문과 범음범패 교육에 여념이 없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청하는 사찰 법회나 단체에서 법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또 전국서화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을 만큼 스님의 서화 솜씨도 만만치 않다. 수준높은 기량과 그 속에 깃든 가르침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스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즐겨 선물로 주시곤 한다.

천미희 기자

1926년 경남 상북에서 태어난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고 명이 짧다는 걱정을 들으며 11살에 출가를 했다. 인봉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스님은 49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72년에는 당시 범음범패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였던 용운 스님으로부터 범음범패 의식을 전수받았다.

93년에는 범음범패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받았으며 96년에는 원형을 잃어가는 범음범패를 고스란히 보존하기 위해 영남범음범패집을 20개의 테이프로 집대성하기도 했다. 스님은 현재 영남범음범패 보존회 이사장을 맡아 범음범패의 맥을 잇는 도제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영남 범음범패 인간문화재인 구암 스님은 전통을 보존하고 맥을 이어가기 위해 후학 양성에도 헌신하고 있다.

밀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불법에 귀의해서 세계평화, 지상정토를 이룩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된 도리라고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법문을 통한 포교에 아주 열성적이다. 또한 평생을 한결같이 이어온 범음 범패 전수 활동도 스님의 수행이력 중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종정이라는 대한불교 법화종의 최고 어른이 된 지금도 영남범음범패 보존회를 이끌고 범음 범패 불교의식 전문교육원을 열어 범음범패의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처음 범음 범패 배울 때 배운 걸 복습하느라 길을 가도 버스를 타도 늘 염불 뿐이었어요. 한번은 법문이 있어서 원동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같이 있던 스님이 합장계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창문에 대고 하고 있었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 "'너와 나 구별없이 다같이 성불하자' 이것이 불교정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호통을 치는 거라. 우리는 그만 조용해졌지. 그런 자차장이 와서 가만히 계시는 스님들을 왜 그러냐고 두둔을 해주는데 마침, 원동에 도착이되어 얼른 내렸지. 으찌나 얼굴이 화끈 거리던지, 하하하!

그런데 젊을 때는 그처럼 연습에 몰두하면 옆의 상황이나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이 허다했어.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도 연습에만 골몰해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를 않았거든. 한마디로 염불 삼매에 든 거지"

스님은 50여년 동안 이어온 염불속에서 무수한 깨달음의 언어들을 만나고 범음의 소리 속에서 우주 생명의 근원과 부처님 세상을 만났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길을 인욕하며 이어온 스님은 이제 존경받는 사표가 되어 후학들에게 자취를 남기고 있다.

10년째 범음 범패를 전수받고 있는 수제자 대원스님(금불사)은 구암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범음 범패에 앞서 수행자로서의 자세나 사람의 도리를 먼저 배웠다고 한다.

진흙탕속의 연꽃처럼

"이해심이 많고 인자하십니다. 염불하고 경 읽은 것에 앞서 계율, 예의가 먼저라고 항상 강조하시죠. 부처님과 스님들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범음이나 범패 의식 자체가 모두 부처님에 대한 예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겁니다. 범음을 수행방편으로 삼고 살아오신 스님이고 보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외유내강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구암 스님은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목청과 마치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맑은 음색으로 영남 범음범패의 전통을 이어가며 후학들을 기르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깨끗한 곳에서 살지 않아요.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진흙탕속에 살지만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나 잎에는 묻히지 않아요. 즉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속에 처해 있는 불자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름답고 완성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과 같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성불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부처님 자비이므로 세상 누구라도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속진을 털어내려는 갑갑함으로 찾았던 길, 구암 스님의 법문을 새기며 오히려 속진속에서 내 아름다운 완성의 꽃을 피워올려야 함을 깨닫고 확 열려진 마음의 문을 따라 돌아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환기스님



환기(幻機) 스님은 묵언수좌라 불러야 옳다. 안거가 시작되면 환기 스님의 말문은 굳게 닫힌다. 그가 선방에 걸망을 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묵언패(默言牌)를 내놓는 일이다. 결제철마다 묵언 수행을 한지도 벌써 십 년째가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석 달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이 역시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행이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시비분별에 끌리지 않을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귀도 함께 막아야 마장이 적다. 입과 귀를 닫고 있으면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어느 정도 익어지면 오히려 확 트이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 말은 하지 않을 때보다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시비가 어느 정도 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 때 비로소 넉넉하고 정결한 자신만의 공간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선(禪)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 응시라고 말한다. 묵언은 이러한 자기 응시의 정갈한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묵언을 통해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

선방에 걸망 풀면 묵언정진

부모님 은혜 아는 출가자

행은 결코 벙어리 흉내가 아니다.

환기 스님은 이러한 묵언 수행을 통해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지도 모른다.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을 줄인다는 뜻과 통한다. 묵언수행 후 환기스님은 말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말을 마구 지껄이지도 않고 핏대를 돋우며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얼굴 가득 미소만 짓는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대화나 논리 이전에 따뜻한 가슴이 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 깨닫는다. 소리 없이 따스한 열기가 전해지는 난로처럼 그의 성품도 이와 같다.

환기 스님은 한 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병치레를 한 적이 있다. 큰 수술을 세 번이나 치르면서 육신의 덧없음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그 일이 환기 스님에게는 커다란 법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단다. 그 후 환기 스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용맹정진하고 있다. 지난 여름 안거 때에는 각화사 선방에서 하루 18시간 정진을 마친 구참(久參)이기도 하다. 산철(해제기간에 하는 정진)수행도 마다하지 않던 그가 최근 느슨하게 정진하는 것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서였다.

환기 스님은 정말 효자다. 흔히 출가를 하면 부모와 이별하는 것으로 알지만, 진정한 출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는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화해다. 환기 스님을 보면 '일등 수행자가 일등 효자'라는 공식이 딱 들어맞는다. 얼마 전 그가 느닷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무심코 넘겼는데, 알고 보니 홀로 남은 노부(老父)의 간병을 위해서였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겨울 안거 때 환기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위 스님들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출골 부음을 전하지 않은 환기 스님 잘못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몰랐다는 말을 한참 뒤에 들었다.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가족들이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제 중에 있는 환기 스님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노모의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의 그 불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환기 스님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운 모양이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몇 년 전 환기 스님과 미얀마 성지를 순례한 적



이 있었다. 그 때 환기 스님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모자(母子)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노모를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유적지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었다. 그 때, 출가한 스님들이 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아들을 산에 보내고 눈물짓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었다. 출가는 불효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산중이라고 해서 불효죄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환기 스님은 지금 속가에 잠시 머물고 있다. 날마다 정진하듯 아버지의 병간호를 지극히 한다. 걸망 지고 먼 곳에 가지 못하고 여러 날 지내고 오지도 못한다.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나마 간호할 수 있는 것도 해제 기간 뿐이다. 결제 기간이 되면 또 선방으로 향한다.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구족(九族)이 천상에 난다는 경구가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출가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환기 스님이 공부하는 뜻도 여기에 있는 듯 하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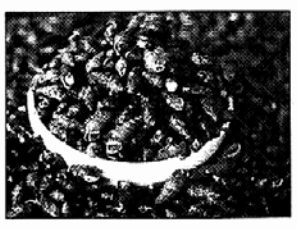
다슬기

예약문의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OLT 프로그램은 삶 속에서의 수련을 뜻합니다.

'나는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JUST DO IT!
바로 그것입니다.
On the Life Training Program

OLT 명상프로그램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되어있지만 스스로가 지어낸 관념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혼돈과 무질서로 내몰고 있습니다. 삶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당신은 그것을 고통의 무게로 느끼거나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 속에 들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는 탐사여행을
OLT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OLT프로그램은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합니다.

· 코스 기간은 5일간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인원한정)
· 예약은 e-mail로도 접수 가능

자신의 현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코스에 참여하세요.
·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8-3(신우신빌딩 2층)
· 문 의 : 017-201-5512 · 053-622-5511(대)
· E-mail : youha@oltcenter.com

행주좌와 일여체험

수행의 첫째단계인 행주좌와 일여의 체험도 없으면서 깨달은 척, 도인인 척 싱을 내어 봤자 스스로는 속이지 못하는 법
여기!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쉽고 재미있으며 심신에 절대 이상이 오지 않으며 일생 약 한톨 필요없고 저절로 수행이 되어지는 많은 선지식이 확인한 수행의 장으로 오십시요

◆ 출가 예정자 수행 체험(30일, 일체 비용 없음)
수행 위주의 철저한 대 신심 체험 교육으로 불교수행의 신심나는 테크닉을 배우게 됩니다.
수계식도 못해보고 낙오하는 인생의 오점을 씌지말고 체험의 장으로 오십시요

◆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7일 수행 교육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독경, 염불, 행선, 참선의 자세법, 운률법, 호흡법, 염불禪 삼매의 자동원리, 도인체조건강법

◆ 사업실패자, 명예퇴직자, 실직자, 실업자 소원 성취 기도
실패, 실직, 실업의 원인을 성공의 비결을 응기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불면증, 화병, 상기병,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당뇨, 환상 환시 환청, 악몽, 가위눌림, 당뇨, 디스크, 대인 공포증, 마마보이, 이형성 인터넷 중독자 특별수행을 통해 단시일에 극복됩니다.

▶ 수행일시 : 언제나 수시로 ◦ 준비물 : 기도포, 세면도구
▶ 10월 행사일정 : 13일 철야 정진 ◦ 27일 : 3천배 철야 정진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 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 경기도 양평 → 용문터널 → 단월면 → 대명 비발디 파크 스키장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다음넷 카페 : 소리산 참선 캠프 클릭)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 요법가 (氣 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병한 보통사람이 3일만 교육 받으면 레이키 요법가 (기 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길이 의심할 여지없이 있습니다. 레이키는 우주 근원의 생명 에너지(진기)이고 사랑의 파동입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질병 치료에도 쓰고 건강 증진에도 쓰는 것이 레이키 요법입니다. 레이키 요법은 미국, 일본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레이키 요법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 「레이키 요법가」를 단 3일만에 양성 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박희준식」 레이키입니다. 기공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기 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단 3일간의 교육으로 누구나 이런 능력자가 됩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 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인 등
- 각종 만성병 환자나 그 가족, 만성병 환자(특히 각종 난치병 환자)는 병원 치료와 함께 레이키 요법을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월등히 올라 갑니다
- 마음의 정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가족의 건강과 행복,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의 몸에서 생명 에너지인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치우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질병입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것을 신속하게 개선해 줍니다. 따라서 수천가지 질병에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 받으면
- 수천가지 질병에 대한 표준적 치료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하루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자기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 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정증은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받았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교육이 끝난 1개월 후 에는 원격진단법, 약식재령법 등의 무료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천연기념물 '다 모였다'

문화재청 11월 8일까지 동해·양구·전주 순회전

용문사 은행나무 송광사 곱향나무 등 사진·박제로 볼 기회

서울 조계사 대웅전 동쪽 옆에는 천연기념물 제9호 수송동 백송이 서 있다. 나이를 추정할 수 없는 이 백송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가슴높이의 둘레가 1.64m다. 전설에 의하면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져 흰빛이 되는 백송은 흔히 볼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라 중국을 다녀온 사신이 중국이 원산지인 백송을 이곳에 심었다고 한다. 대웅전쪽으로 뻗은 가지만 살아남아 수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조계사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강원도 정선 정암사는 천연기념물 제73호 열목어서식지로 유명하다. 정암사의 열목어서식지는 세계에서 열목어가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지역으로, 함백산의 원시림과 맑고 찬 계곡물이 열목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자연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찰에는 이들 외에도 경기도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호), 전남 구례 화엄사의 올벚나무(천연기념물 38호), 전남 순천 송광사의 곱향나무쌍향수(천연기념물 88호) 등 다수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평소 접하기 힘든 천연기념물을 사진과 박제를 통해 일반에 알리는 특별전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세상'을 17일~11월 8일까지 연다.

강원도 동해시 동해근로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양구군, 전주시 등 3개 지역을 순회하는 이번 전시회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및 독도 등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사진 230여점, 박제 25점을 전시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별 축제와 연계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은 식물 184점, 동물 61점, 광물 21점, 그리고 천연보호구역 5개소 등 총 271점으로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갖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는 석송령, 선조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조성한 방풍림, 식물지리학상 제주도와 한반도가 이어져 있었던 지사(地史)를 보여주는 왕벚나무, 부리가 쟁기처럼 생겨 가리새라는 이름을 가진 저어새, 많은 세월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동굴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우리 천연기념물들이 선보인다.(042)481-4886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조계사 대웅전 동쪽 옆에 선 천연기념물 제9호 수송동 백송

추석특집 보도·교양 등 다채

"BBS 주파수 고정"

불교방송은 추석연휴를 맞아 30일부터 10월3일까지 음악·보도·교양·대담 등 다양한 장르의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29일 방송되는 '10시간 특별 생방송, 고향의 정 가득히'(오전 11시10분~저녁 9시)다. 이 프로는 황청원, 김은정, 김병조 등 불교방송의 간판급 진행자들이 총출동해 귀향길 교통정보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의 한가위 추억담과 청취자들의 고향 이야기들을 신나는 음악과 함께 소개해 준다. 국악인 신영희씨와 개그맨 임종국씨가 진행하는 '한가위라 좋을씨고 돼지나 칭칭나네'(오후 2시~오후4시)에서는 이은관, 이생강, 김일구 등 명인명창들이 꾸미는 국악 라이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가위 분위기를 신명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양일간 편성되는 '2001년 문화계의 주역들'(오후 6시15분~오후 8시)에서는 하재봉(문화평론가)씨의 진행으로 김기덕(영화감독), 안재욱·김현정·김민기(가수), 신경숙(소설가) 등이 출연해 우리 대중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전진수 편성개발부장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고향가는 길이 오히려 짜증스럽게 바뀌고 있다"며 "주파수를 불교방송에 맞추면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신속한 교통정보와 불교소식 등을 들으며 즐거운 귀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석 특집의 편성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고영을의 탱화 독일가다

23~30일 베를린서 초대전



◇고영을 作 '관음보살'.

불화가 고영을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탱화 초대전을 갖는다.

23일부터 30일까지 2001년 아시아 태평양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고씨는 현대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지옥의 모습을 그린 '시왕도'를 비롯해 금박으로 표현한 '관음보살', 염색천 위에 그려낸 '월광이여 온누리 가피를' '물소리 바람소리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 '우리의 소원을 통일' 등 다양한 고씨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프랑스 미술평론가 마릴드골라네는 "비단이나 천으로 된 고영을의 대작들은 풍부한 감성과 선명한 색감, 그리고 내 마음이 곧 우주라는 불교적 정신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고씨의 작품을 평했다.

독 펠클링엔 제철소와 한국의 경주 '같음과 다름은?'

아트선재미술관 10월 17일까지 전시

아트선재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독일 펠클링엔 제철소와 한국의 경주를 연결하는 사이트익스체인지(Site-Exchange) 프로젝트 '같은 그리고 다른' 전을 10월 17일까지 연다.

1981년 문을 닫은 펠클링엔 제철소는 1994년 유엔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산업문화와 20세기의 기술사에 있어 획기적 증거물로서 등록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계문화유산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독일 자르 조형대학의 볼프강 네슬러 교수의 제자 14명을 주축으로 199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펠클링엔 제철소/한국의 경주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 작가적인 눈으로 바라본 펠클링엔 제철소를 전혀 이질적인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경주에서 선보이기 위하여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 10월 이래로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곳의 이질성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원동력으로서 대량의 강철자재를 생산해 온 대표적인 장소로서의 펠클링엔 제철소는 이성과 진보에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으며, 동양 종교의 성소로서 경주 석굴암은 공(空), 해탈,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상반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각과 사진, 설치, 전자매체, 음향설치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054)745-7075



◇세계문화유산인 독일 펠클링엔 제철소와 경주 석굴암의 같음과 다름을 표현한 설치작품.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방대한 사상의 세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과, 그리고 사고를 형식적인 틀에 갇히게 하는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번에는 정신세계에 대한 요령을 잡기 위하여 과학을 4박자로, 철학을 3박자로 생각해보았다. 이제 종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종교는 2박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의 핵심을 심(心)과 성(性)으로 보았다. '심'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세계를 가리키고, '성'은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세계를 의미한다. 전자는 배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있는 인간 마음의 무한한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마음을 백지상태로 보고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길러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차이는 공자의 가르침을 후대에 재해석한 신유학의 발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을 '성리학(性理學)'이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天命之謂性)을 잘 길러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여, '성에 곧 이치가 담겨있다(性卽理)'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시켜 가는 '양성(養性)'을 강조하게 되고,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히 교육을 중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왕양명이 주장한 심학(心學)은 인간을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물을 환하게 파악하고 있는 '양심(良心)'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교육보다 '자신의 양심에 대한 자각(心卽理)'과 그 실천이다. 그래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양가(兩價)적 태도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학(敎學)과 점수(漸修)는 '성'을 강조하고, 선(禪)과 돈오(頓悟)는 '심'을 강조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유교는 성을 중시하고 불교는 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근기와 상황에 따라 둘을 잘 배합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종교의 가르침을 배워갈 때, 인간에 내재된 이 두 능력을 혼동하지 않고 잘 가려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질과 가능성은 잘 길러가야 하기에 매일매일 쌓아 가는(一日一益) 것이고, 양심은 이미 완전히 구비되어 있고 다만 욕망과 업에 가려 있기 때문에 나날이 버려 가는(一日一損)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성(養性)은 배움의 세계이고, 존심(存心)은 깨달음의 세계이다. 배움은 더하기이고, 깨달음은 빼기이다.

불교사에서 심과 성은 서로 끊임없이 보완되며 발전해 왔다. 수도를 통해 견성(見性)하면 성불(成佛)이 되고, 즉심(卽心)이면 시불(是佛)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결정적으로 '심'이 '성'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유명한 혜능과 신수의 이야기이다. '마음은 깨끗한 거울이므로 먼지가 끼지 않도록 염심히 닦아야 한다'는 박식한 신수의 주장에 대해, '본래 아무 것도 없는 마음의 세계에 어디 먼지 끼일 데가 있느냐'는 무식한 혜능의 파격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걸림 없는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아는 것이 오히려 병통이다'는 말은 이것을 가리킨다.

■문학평론가

동양사상의 기본구조 (2)

心과 性 인간의 두 능력 보완 발전 관계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양말 30,000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삼베목수건 20,000원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극락왕생복 1,400,000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32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테마독서

사찰답사 안내서

울긋불긋 물든 산사를 찾아 기도하고, 아니면 계곡이나 요사채 마루에 앉아 가을의 풍광에 흠뻑 빠져보는 쾌감!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떠남의 시간에 책을 곁들여보면 어떨까. 가을 산사로 답사를 떠날 때 길잡이를 해 줄만한 책을 모았다.

우선 어느 산사로 떠날까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 전국의 대표적 사찰을 소개한 책들을 권해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서로 전국의 유명사찰 50곳의 역사와 문화재를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명찰〉(이호일 외 지음, 한국문원)을 들 수 있다.

최완수 씨의 사찰기행집 〈명찰순례〉(전3권, 대원사)는 불교문화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 보는 눈을 열어줄 책이다. 〈절을 찾아서〉(고은 지음, 책세상)는 강원도 동해바닷가 낙산사에서 출발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경기에 이르는 명찰 61곳을 찾아가는 기행집이다. 이 책의 매력은 사찰이나 산에 대한 정보보다 오히려 시인의 감성이 묻어나는 글맛에 있다.

'사찰과 전설' 또는 '고승과 사찰' 등을 주제로 하여 흥미 있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책도 많다. 불교문화를 전공한 김승호 동국대 강사가 쓴 〈절따라 전설 따라〉(대원정사)는 잊혀져 가



가을 산사에 가면 사색과 깨달음이 …

는 옛절에 얽힌 이야기와 절에 들어선 불상, 전각과 관련된 연기담을 들려준다. 〈고승과 명찰〉(황원갑 지음, 책이있는마을)은 한국불교 1,600년사를 빛낸 고승과 거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그들이 거쳐간 명찰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종교학자 조용현 씨가 13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내놓은 〈나는 산으로 간다〉(푸른 숲)는 고승들의 깨달음을 조명한 책이다. 변산 불사의방, 금강산 건봉사 등 전국 21개 사찰과 선승들의 깨달음을 담았다.

호젓한 산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전국의 암자순례기와 명상글을 한데 모은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정찬주 지음, 해들누리)와 〈새벽산사에 가 보세요〉(미영순 지음, 시공사)를 권한다.

사찰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한다면, 사찰의 성립과 배경 등 사찰이 지닌 의미를 분석한 교양서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효림)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허균 지음, 돌베개)는 25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을 답사하고,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또 〈한국불교기도성지〉(정성운 외, 불교시대사)는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특정 사찰이나 지역별로 사찰을 일별하고자 한다면, 대원사의 '빛깔 있는 책'과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김중근 기자





'붓다의 대중견성운동' '초기불교 개척사' 김재영 지음

"붓다에 대한 무지 심각한 수준"

"오늘날 불교도의 대부분이 치열한 구도의식을 상실했다. 동남아시아나 티베트 불교도들은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염원하고, 한국·중국·일본 등 북방 대승권의 불교도들은 거의 현세 이익에 집착해 있다."

오늘날 불교도들의 수행 풍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만인견성'을 주창한 초기불교 개척사 연구서 두 권이 나왔다. 70년대 동덕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를 창립하여 30여 년을 지도법사로 활동했던 김재영(63) 씨가 내놓은 〈초기불교 개척사〉와 〈붓다의 대중견성운동〉이 바로 그 것. 이 두 권은 그가 18년 동안 '대중견성론(大衆見性論)'을 화두로 포교 현장에서의 체험과 여러 사료를 천착해 연구한 노작이다.

지은이는 "오늘날 불교인들을 깨달음과 부처님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다함없는 연민과 헌신, 순교적 전도, 개척정신과 고행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초기불교 견성운동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불교가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단기간에 인도대륙을 정신적으로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견성운동의 성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인의 평화와 행복의 길'로서 인류역사를 근원적으로 전환시키고 보편적 구원의 빛으로서 찬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민중견성운동의 성공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중견성, 민중견성운동은 불교운동의 생명인 동시에 인류평화운동의 희망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8년 연구활동 결실
초기 불교 개척사 통해
만인 행복의 길 제시

깨달음에 대한 오늘날 수행자들의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한 지은이는 가장 시급하게 극복되어야 할 것은 '부처님에 대한 무지'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 대승권의 불교도들이 붓다 석가모니를 잘 알지 못하는 정도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이나 승가대학의 이수과목에서 초기경전, 빠알리-니까야나 〈아함경〉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 한 예로 든다. 부처님을 모르면서 부처님과 법을 논한다는 것, 스승을 알지 못하면서 스승을 뛰어넘겠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발상은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불교인들은 대중견성, 만인견성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신비하고 초월적인 깨달음의 환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의 삶의 궤적과 부처님 그리고 초기 대중들이 피땀 흘리며 열어간 순교적인 개척사를 잘 모르는 것이 지금의 위기상황의 근본요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구경고주역서〉를 토대로 한 대중견성 사건 통계표, 초기불교 개척·순교 지도 등이 지은이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한다.

이 두 권의 책은 초기불전을 통하여 부처님의 삶과 초기 대중들의 개척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대중견성운동의 실상과 견성원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방법론은 초기개척사와 견성사상 조명과 원형복원이다. 그러나 지은이의 궁극적 초점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 자신의 삶과 우리 시대의 인류견성운동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동서미술 오가며 한국미술 원형찾기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미술' 김경자 지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양화 기법을 중심으로 그림을 배운다. 물론 한국화도 배운다. 하지만 서양화에 비하면 그 비중은 매우 작다.

신간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 미술〉(다른세상)은 세계미술사에 주목을 끌었던 서양의 작품들과 우리 미술을 비교하면서 우리 미술의 원형을 찾는다.

지은이 김경자(한양대 전통종교미술원장) 교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의 첫 번째 예로 단청을 든다. 그 이유는 어느 회화도 감히 누를 수 없는 회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이는 수평과 수직의 선을 그어 세계미술사에 '차가운 추상'이라는 획을 그은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대비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말한다. 몬드리안이 과학문명의 질서를 향한 인간의 고뇌를 그렸다면, 단청은 하늘의 질서를 향한 인간의 고뇌를 그렸다고.

고흐의 '자화상'과 김명국 씨의 '달마도'에 대한 분석도 살펴보자. 지은이는 '자화상'의 눈동자처럼 '달마도'의 눈동자도 피할 수 없는 정기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달마의 눈동자에서는 공허함이 느껴진다. 불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같은 무서운 속도의 시선이 담겨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까지 초월하는 곳에 영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니 그렇게 한 우주를 열어젖히는 것이 김명국 씨의 '달마도'요, 달마의 눈동자란 것이다.

책은 이 외에도 불교의 수미단과 마티스의 파란 누드 Ⅳ, 고려의 수월관음도와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불교의 감로탱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지옥도 등 21가지 주제으로 나눠 한국 미술의 미학을 살핀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현재의 삶속에 있는 행복

지금 여기에 살아라 손민규 옮김



〈지금 여기에 살아라〉(손민규 옮김, 지혜의 나무)는 삶의 본질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질문과 바람에 대한 오쇼 라즈니쉬의 대답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라즈니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해방이다. 그 실천론은 바로 어제나 내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 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과거의 관습과 미래에 대한 이상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존재 자체의 행복과 즐거움,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금'과 '여기'란 바로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향기는 아직…' 수완 스님 지음

'차향기' 성우 스님 지음

찻잔에 담긴 깨달음 향기





성우 스님과 수완 스님이 나란히 시집을 내놓았다. 〈차향기〉(다도)와 〈향기는 아직 찻잔에 남았는데〉(부크)가 바로 그것.

팔공산 파계사 성우(불교텔레비전 회장) 스님이 펴낸 〈차향기〉(다도)는 스님이 차 생활에서 얻은 화두를 선사상과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 오랫동안 차를 즐겼던 스님은 '작설차' 외 58편의 시에서 차의 향기와 찻잔, 찻자리 등 차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 속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간명한 언어로 표현했다. 시 중간 중간에 실린 도예가 신현철 씨의 도자기 작품 또한 시어의 향기를 짙게 해준다. 값 6천원.

〈향기는 아직 찻잔에 남았는데〉는 현대불교문학회장과 계간지 〈불교문예〉 편집인인 수완 스님의 두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편들은 구도자로서의 일상의 편린들과 실크로드를 따라 떠난 여행의 길목 그리고 유년시절의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있다. 값 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2	영가현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4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달라이 라마	아 테 네
5	보면 사라진다	김 열 권	정신세계사
6	깨달음의 꽃	하 춘 생	여 래
7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8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9	발심삼론	탄 허	교 림
10	거울	원 성	이 레

도서 안내:(02)737-0695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9·10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징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특집
종교 민영교도소 도입과 불교계의 방안
2003년 종교 민영교도소 개소에 앞서 불교계와 타 종교계의 추진현황 및 외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특별기고 / 2001 중국기행 1
장장 40여 일 동안 광활한 대륙의 여정이 현장감 넘치게 펼쳐지는 일지스님의 중국 여행기.
제1화 - 실크로드의 관문, 장안(長安)에서 현장과 의정을 만나다
해외불교 법문 - 일본 禪불교를 미국에 포교한 스즈키 순류 선사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수행
연암 박지원의 불교이야기
「선귤당기(蟬橘堂記)」 - 사람의 이름은 매미의 허물이나 귤의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화보특집 - 밀교의식이 강한 일본의 불교 의식구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옛사랑이 그리워질 때 …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분황사 '약사불과 모전석탑'
풀잎의 승천(升天)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마지막 회) · 보시/신행
춘뢰 고자화 거사, 불국생 김미회 보살
▶ 그동안 언재된 7개 분야 총 26명의 불자들
· 학술 - 김잉석, 김영수, 황의돈, 박봉석
· 재가불교운동 - 장경호, 조인화, 윤주덕, 여동명
· 언론/출판 - 장상문, 이한상, 이희익
· 문화/예술 - 고유섭, 한영숙, 서창업
· 문학 - 김달진, 조지훈, 오상순, 양건식
· 사회운동 - 유대치, 김기추, 김성숙, 전진한
· 보시/신행 - 백선행, 김부전, 고자화, 김미회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禪文化 9월 2001년 14호
선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교양지
선문화 기행 · 중국 하북성 조현 백림선사
생활 선미(生活禪味) 피어났다
화제의 논문 돈오선(頓悟禪) 연구 [2]
화제의 책 숭산행원선사전서 『세계일화』
21세기 선(禪)의 종주국(宗主國) 선언
기획특집
7일 안에 깨달아라!
재가신자에게도 깨달음의 길이 있는가.
이 시리즈를 통해 7일안에 성불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나를 찾는 깨달음의 길, 3시간만의 깨달음의 체험, 해안선사의 공부법인 '칠일안에 깨쳐라'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다.
권두법어 등롱(燈籠)과 노주(露柱) 진제
마경대 평상심(平常心)으로 살아라 동광
선과 정신문화 이원홍
인간화를 성취하기 위한 정신세계로
논쟁과 사상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 비판
집중취재 미리보는 禪文化10月호
한국선불교의 25시
1천년간 이어온 한국선에 대한 탐구 그 진실을 밝힌다.
선과 차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 ⑪ · 사천성 성도시 대성자사
거리의 다관 꽃피운 무상선사 최석환
선인들의 茶話 · 이규보의 차시(茶詩)
名茶의 전설 · 대홍포차(大紅袍茶) 천병식
자순(紫筍) 찻잎의 붉은 전설
선과 문화
중국 선의 사상 조국경
중국 강서성 불교의 어제와 오늘
구산선문을 가다 동리산 태안사
중국 선 동류(東流)의 현장
구산선문의 공간미학 ① 홍광표
대자연의 순리에 이루어진 불국(佛國)
「임제록(臨濟錄) 노트」를 읽고 산룡순
강정중 시인께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1년(12회) 42,000원
정기구독은 은행온라인이나 지로번호로 구독료을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구독문의:733-8076
E-mail:alldara@hanmail.net
월간 선문화사 · 불교춘추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403호 TEL:(02)733-8076, 8078 FAX:(02)723-7461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국가차원 비지정문화재 회수대책"

문화재청 국감서 여야의원 촉구

지난 1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 감사 결과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은 줄어들지 않는 데 비해 도난 당한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은 겨우 1%에 머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가 적은 범인 검거보다는 도난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 국정 감사에서 정진석(자민련)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난 당한 비지정문화재는 1,276점(57건)에 이른다. 하지만 회수된 문화재는 13점(5건)에 그쳐 회수율이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난 당한 231점(10건)은 아직까지 한 점도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난 당한 지정문화재 회수율은 약 50%(총 14건 40점 중 7건 26점)여서 "지정문화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할 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확대= 박종웅(한나라당) 의원은 "전국의 주요 전통사찰에서도 자체경비를 들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10여 개소에 대한 건립 지원이 전부"라며 "불교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불교계의 자구 노력에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채(민주당) 의원 역시 "사찰문화재의 도난예방과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유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각종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중요 사찰문화재에 대해 박물관에 위탁보관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당 문화재는 당해 장소에 전시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사찰에 유물관을 건립해 이를 보관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경대(한나라당) 의원도 "불교문화재 보호 · 관리를 위해 사찰 유물전시관의 건립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 전담부서 신설= 지난 8월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론회서도 나왔던 방안이다. 강성구(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문화재청에 비지정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의 유형문화재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을 신설 불교문화재 전담과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도난 당한 경주 백률사 대웅전 후 불탱화.

"유물 전시관 건립 지원 도난 예방"

"성보보존 관리 전담부서 신설"



◇12일 열린 국회 문광위의 문화재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자료를 보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불교문화재는 국보의 56%, 보물 66%, 지방유형문화재의 48%를 차지한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문명대(동국대) 교수는 "불교문화재는 각 사찰마다 건축 · 조각 · 회화 · 공예 · 사적 등이 공존하므로 각 과로 분산된 행정기구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다"며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발견' 시부터 기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비지정 불교문화재 실태파악의 시급성 등이 지적됐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직지' 세계기록 유산 정식 등재

"신청 3년만에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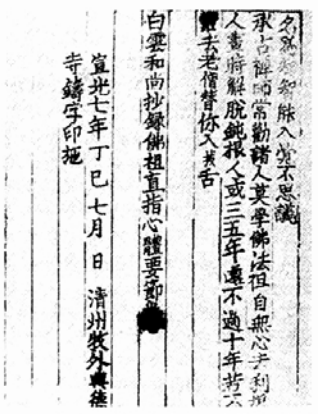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됐다.

청주시는 17일 "고이치로 마스루 사무총장이 4일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인정하는 인증서에 서명했고, 13일 인증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직지〉는 지난 6월 27~29일 청주에서 열린 제5차 세계기록유산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승정원 일기〉(국보 303호),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등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으로 권고된 바 있다. 〈승정원 일기〉도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나기정 청주시장은 "1998년 청주시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후 3년여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며 "앞으로 〈직지〉를 연구, 홍보, 발전, 보존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낸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하권만 전한다.

권형진 기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불조직지심체요절>하권.

"일제때 태안사 전경사진 발견 원형복원 중창불사 가능"

조계종, 태안사 지표조사 보고서

신라말 혜철 스님이 동리산문을 개창했던 전남 곡성 태안사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손실 이전의 전경 사진이 발견됐다. 이로써 선종사원의 가람 배치 연구 활성화와 태안사 중창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태안사 지표조사를 통해 이제까지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한국전쟁 이전의 태안사 전경사진을 발견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총무원 문화부장 정각 스님은 "전경사진을 보면 현재의 태안사 모습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태안사 중창 복원 불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교종 사찰에 비해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선종 사찰의 가람배치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적기 분석을 통해 1928년 적인 선사 탑비의 탑신부분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자 대사 탑비와 이수 부분이 뒤바뀌었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지표 조사의 성과다.

조사단은 1941년 펴낸 사적기에서 '1928년 중건 당시 광자 대사비의 이수를 옮겨와 적인 선사비의 이수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두 탑비의 받침대 격인 거북이 모양의 귀부와 이수의 문양 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태안사는 지금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의 말사지만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 무렵에는 화엄사와 송광사를 비롯해 지금의 곡성, 구례, 순천 등지의 여러 사찰을 거느린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였으며, 고려초 윤다 스님이 주석할 때는 건물만 126칸에 이를 정도의 거찰이었다.

또 조사단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남긴 태안사 재산대장과 현존 소장유물 비교를 통해 818점에 이르던 유물 가운데 98%에 달하는 803점이, 〈태안사지〉에 전하는 28동의 건축물 중 19동(68%)의 주요 전각이 주로 한국전쟁의 와중에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사찰문화재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형진 기자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실 이전의 태안사 전경 사진.

"사회문제 해결 불교서 실마리 찾자"

유승무 교수, 불교사회문화원 포럼서 주장

기존 사회문제이론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교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이 '사회문제를 보는 불교적 시각'을 주제로 20일 개최한 포럼에서 유승무(중앙승가대 · 사진) 교수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문제이론들은 사회문제를 유발한 특정한 행위자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함으로써 처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행위자 자신의 내적 각성과 성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불교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아함경〉이나 〈본생경〉 등 경전 속에 흩어져 있는 사회문제 관련 내용들을 통해 사회문제를 보는 불교적 시각을 재구성해 본 유 교수는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은 외적 강제의 동원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에서 행위의 판단 기준 혹은 사회통제의 궁극적 원천은 사회규범이 아니라 다르마(법)인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법적 규범의 구속력에 비해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다르마의 구속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인간사를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 개념이 성숙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좁혀 놓고 있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 기사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악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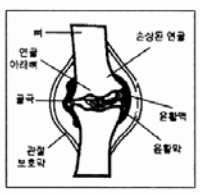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솝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 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眞經은 글자나 종이가 아닌 口傳心授될 뿐"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㊾

(48) 진경가(眞經歌)

스승 달마의 설법이 한 줄기 빛이 되어 혜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달마는 자비의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사람 몸으로 동녘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난사(難事) 중의 난사이고, 더군다나 진도(眞道)의 명사(明師)를 만나는 것은 바닷가 모래 속에서 진주를 구하기보다도 어려우니라. 그대는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났고, 대도(大道)를 알게 됐으니 서둘러 수련에 전념하여 초승(超昇)을 이루도록 할지어다."

혜가는 스승의 뜻에 따르기를 다짐하면서 거듭 예를 올렸다. 달마의 설법은 한층 장중하게 혜가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대가 궁금하게 여기는 성명(性命)이란 두 글자는 음양(陰陽)을 말하는 것이니라. 하늘(天)에서는 해(日)와 달(月)이 되고, 땅(地)에서는 물(水)과 불(火)이 되고, 허공(虛空)에서는 바람(風)과 구름(雲)이 되고, 방(方)에서는 남(南)과 북(北)이 되고, 시간에서는 자(子)와 오(午)가 되고, 괘효(卦爻)에서는 감(坎)과 리(離)가 되고, 사람 몸에서는 성(性)과 명(命)이 되는 것이 바로 음양이니라.

生死 性命 근원과 유래

하늘에 해와 달이 없으면 어찌 뭇 별자리가 존재할 수 있겠으며, 땅에 물과 불이 없으면 어찌 생령(生靈)을 기를 수 있겠는가. 허공에 바람과 구름이 없으면 어찌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방각(方角)에 남과 북이 없으면 어찌 사방(四方)을 알 수 있겠는가. 괘효에 감괘와 리괘가 없으면 어찌 수화(水火)가 승강(昇降)할 수 있겠는가. 시간에 자시와 오시가 없다면 어찌 낮과 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성과 명이 없다면 몸 둘레 전체에 주지(主持)할 것이 없게 된다. 음양을 떠나서는 단물이 결코 생겨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혜가는 내친 김에 미세한 것까지도 질문했다.

"스승님이시여, 사람 몸에서 무엇을 일러 높고(高) 밝음(明)이 하늘과 짝한다고 하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일러 넓고(博) 두터운(厚)이 땅과 짝한다고 하는지 하교(下敎)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는 즉답했다.

"건(乾)은 하늘(天)이고 곤(坤)은 땅(地)이니 선천(先天)에 있을 때는 하늘이 위(上)에 위치하고 땅은 아래(下)에 위치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어머니 뱃속을 나와 탯줄이 끊기면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면 사상(四相) 곧 눈, 귀, 코, 혀가 열리면서 건곤(乾坤)이 전도(轉倒)되느니라. 이때 건괘(☰)는 중효(中爻)의 양(陽)을 잃어 리괘(☲)가 되느니라. 리(離)는 헤어져서 떠남을 뜻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선천(先天)의 집과 고향을 떠났으니 다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라. 곤괘(☷)는 건(乾) 가운데의 양(陽)을 얻어 감괘(☵)가 되느니라. 감(坎)이란 떨어져 빠짐(陷落)을 뜻하는 것이니라. 한 점(一點)의 진양(眞陽)이 후천(後天)의 단전(丹田)으로 떨어져 빠져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라.

넓고(博) 두터움(厚)은 무겁고(重) 탁(濁)한 기(氣)를 뜻하는 것이니라. 리화(離火) 속의 진음(眞陰)을 감(坎)으로 보내, 감괘의 진양과 바꾸어 진음을 굳히면 곤(坤) 곧 땅(地)이 되어 박후(博厚)의 극(極)에 이르느니라.

높고(高) 밝음(明)은 가볍고(輕) 맑은(淸) 기를 뜻하는 것이니라. 감수(坎水) 속의 진양(眞陽)을 리괘로 뽑아 올리고 리괘의 진음과 바꾸어 진양으로 모이게 하면 건(乾) 곧 하늘(天)이 되어 고명(高明)이 극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면 하늘과 짝하고 땅과도 짝하게 되니 천지정위(天地定位)가 되어 본래의 선천(先天)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늘은 성(性)의 주인(主人)이고 땅은 명(命)의 빈객(賓客)이니라. 사람은 청정(淸淨)하기만 하면 천지(天地)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음양합일(陰陽合一) 곧 성명(性命)을 닦아 하나로 돌아가면 천지조화도 그것을 뺏을 수 없고, 천지도 또한 나를 감히 구속하지 못하리라. 하물며 어찌 십전염라(十殿閻羅)를 두려워할쏘냐. 사방(四方)으로 영산로(靈山路)를 열어가면 소요자재(逍遙自在)를 얻어 옛 관음(古觀音)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누구든 조화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참사람이니라."

설명을 마친 달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게송을 읊었다.

經은 지름길 徑과 상통

"뱃속에 진경(眞經)을 지녔나니, 니환(泥丸)이 주(主)와 빈(賓)을 아는구나. 벽력소리 한 번 울려 관통하니, 손을 털고 속세를 벗어나는구나."

혜가의 눈에선 감동의 눈물이 절로 흘러 내렸다.

"스승님이시여, 제자 비로소 생사(生死) 성명(性命)의 근원과 유래를 알았나이다. 제자는 수십 년에 걸쳐 설법을 해 왔지만 여태껏 그 근원을 깨닫지 못했었나이다. 그 동안 헛되이 세월을 보낸 일이 후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현묘한 이치를 깨달았으니 곧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제자는 종이 위에 적힌 경(經)이 한낱 가치 없는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달마는 혜가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경(經)은 경(徑)이라는 글자와도 상통하느니라. 경(徑)이란 지름길을 뜻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경전은 사람들을 입도수행(入道修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미몽에서 깨어나 깨닫기를 바란다면 서둘러 스승을 찾아 도(道)를 물어야 하느니라. 득도한 뒤에는 경전을 시금석(試金石)으로 삼아 도의 진위(眞僞)와 이치의 시비(是非)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나아가서 정도(正道)와 방문(旁門) 곧 사도(邪道)를 판별하고 쓸데 없이 사람들에게 염송(念誦)을 가르쳐서도 안 되느니라. 초생료사(超生了死)하게 되면 염군(閻君)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설해야 하느니라. 거듭 말하거니와 진경(眞經)은 글자나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전심수(口傳心授)될 뿐이니라. 그대 이제 진전(眞傳)을 받았거늘 육신(六神)이 조종(朝宗)할 곳을 알고 있는가?"

> **한번 진경을 얻으면**
> **그른 것을 내치고**
> **옳은 것 서로 합하니**



◇김명국 作 달마도(개인 소장).

혜가가 곧바로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한 점(一點)을 지점(指點)해 주셨을 때 금새 알았습니다."

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가 신선되는 도리를 이미 얻었으니 점차 금선(金仙)의 길로 오를 수 있으리라. 내가 진경가(眞經歌)를 들려 줄 터이니 마음에 새겨 둘지어다."

달마는 가락에 맞추어 진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진경가를 부르세, 진경가를 노래하세. 진경을 모르면 마침내 마(魔)에 잡히리라. 사람들아, 종이 위의 글자 뜻 찾지도 마소. 되지도 않은 소리 외우지도 마소. 송경과 염불하며 초탈(超脫)을 찾지 마소. 그리해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의 중들 어찌 모두 성불하지 않았겠소.

진경을 얻어야 고해를 벗어나오. 진경을 모르면 나락으로 떨어질 뿐. 진경이 무엇인지 가닥이라도 찾아보소. 진경, 진경 하지만 그것이 선천조화임을 왜 모르오. 순(順)의 길로 가면 죽음이 있고, 역(逆)의 길로 가면 삶이 있소. 오고 가며 가르쳐도 이치를 깨닫는 사람 없구려.

진경은 본래 글자 한 자도 없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극락에 가게 하오. 진경을 알면 도(道)와 마(魔)를 알 수 있소. 그른 것을 내치고 옳은 것을 서로 합하니 하늘을 낳고 땅을 낳고 사람을 낳았구려. 음양조화의 이치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소.

진경을 설(說)하니 웃음이 넘쳐흐르고 현관에서는 황금빛이 나오네. 오천사백 권의 불경이 중앙 황도(黃道)로 돌아오니, 이것이 바로 한 권의 대장경일세.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기온이 오르네. 땅에는 조수(潮水)가 밀려들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네. 달마 친히 입으로 전하니 대승(大乘)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로다.

초사흘에 서쪽에서 달이 뜨니 곡강(曲江) 위에 달빛이 고고하네. 꽃 한 송이 피어 올라 구슬 같은 이슬을 머금으니 호혈용담(虎穴龍潭)에서 탁함과 맑음을 찾네.

물(水)이 하나(一)에서 생(生)기니 참된 달(月)의 정기로세. 삼(三)을 기다린다면 가히 나아가지 못하리라. 임수(壬水)가 처음에 오고 계수(癸水)가 다음에 오네. 마땅히 급히 채취(採取)하여 부침(浮沈)에서 벗어나리다. 금솥(金鼎)으로 연단하고 옥로(玉爐)로 삶아내니 따뜻한 문화(文火)와 거센 불길의 무화(武火)로 조절하네.

진경를 쏘아 현관을 뚫으니 화살이 붉은 표적을 맞힌 것 같네. 온몸이 뜨거워지고 찜통같이 되니, 회광반조(廻光返照)로 중정(中庭)에 들어가네. 한 번 진경을 얻으면 숨을 마신 듯 호흡이 온몸을 돌아 뿌리로 돌아가네. 정(精)은 기(氣)에 들고 기는 신(神)이 다시 돌아오네. 이런 조화의 참 이치를 밝게 아는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꼬.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으니, 예로부터 신선은 진경에 의지했네. 이런 조화를 잘만 알면 염부세상(閻浮世上)의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으리라. 대도(大道)는 태극(太極)으로 단초를 이루니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네. 사람은 제도하려면 오직 진경으로만 할 수 있으니, 진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수은이 곧 연(鉛)이라고 대답하리. 진경가를 부르세, 진경가를 노래하세."

혜가는 스승의 노랫말에서 진법의 진수를 맛보았다. 스승에게 배례(拜禮)하면서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다. 혜가는 이미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을 스스로 느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스승에게 물었다.

"제자, 스승님의 교시(敎示)로 주천(周天)의 조화를 분명하게 알았나이다. 하지만 소장(消長)하는 이치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나이다.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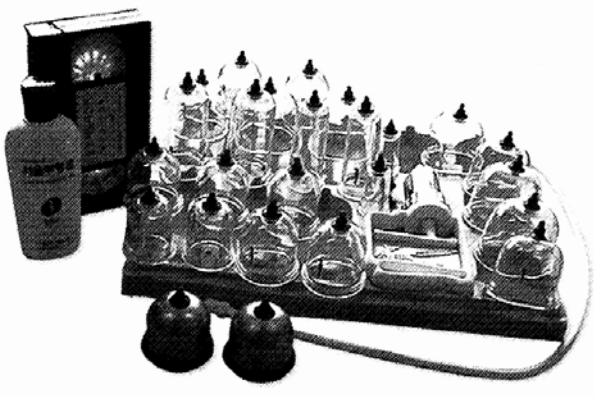
달마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몸속 보배 도둑 맞으면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이니, 무인(無人) 무아(無我) 무중생(無衆生)이어야 하느니라. 삼심사상(三心四相)을 깨끗이 하고 십악팔사(十惡八邪)를 청정하게 제거해야 하느니라. 은애정욕(恩愛情慾)에 물들지 말며, 탐진치애(貪嗔癡愛)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오묘유(子午卯酉)에 맞추어 부지런히 좌선하고 하루라도 방심하고 산만하게 수행하지 말지어다. 염라를 피하려면 언제나 미타(彌陀)와 옛 관음(古觀音)과 함께 해야 하느니라. 자기의 현관이 열리고 하늘 북소리가 들리면 황홀감이 온몸을 감싸면서 삼계(三界)를 벗어나게 되리라. 이때 육문(六門)을 굳게 닫지 않으면 육적(六賊)이 문밖에서 소란을 피워 자칫 주인공이 혼미하기 쉬우니 막아야 하느니라. 내 몸 속의 보배를 도둑맞으면 일신(一身) 사체(四體)가 편안키 어려우니라. 이것이 바로 소장(消長)의 이치이니 마음 닦기를 우선으로 삼을지어다."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종립학교를 가다

⑮진선여중 · 고등학교

한국 교육의 최고 열풍지대 강남 8학군. 1970대 후반 경기, 숙명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해왔고 생활수준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진선여중 · 고는 바로 이 강남 8학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진선여중 · 고는 1977년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지향하는 대한불교진각종이 지덕을 겸비한 선남선녀를 양성하고 호국정신과 전통문화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이타자리의 생활인을 기른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개교이후 24년 동안 강남지역 명문사학들과 어깨를 겨루며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전당으로 발전해왔다.

서로 칭찬하며 본받는 여성교육 전당

전선여중 · 고 학생들은 연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 은은함은 바로 진선만이 가진 독특한 인성교육에서 비롯됐다. 매주 월요일 H · R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명상의 시간. 학생들은 방송을 통해 나오는 명상의 말씀을 듣고 명상록을 쓰며 자신을 반성하고 올바른 심성을 키우고 있다. 또 심학시간을 활용한 칭찬노트릴레이도 학생들의 심성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 칭찬노트릴레이는 각 교실에 칭찬노트를 비치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급우의 선행을 칭찬하고 칭찬받은 학생은 또 다른 급우를 추천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심학시간을 활용해 칭찬노트를 학생들에게 읽어주어 자리이타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도 진선만의 자랑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진선여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 담그기. 매년 배추 300포기의 김장을 해 수서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학교 교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김장을 전달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 그들이 살아가는 므습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신지식인'이라고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시대에 걸맞는 인자를 필요로 한다. 진선여중 · 고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해 독서교육, 정보교육, 생활영어 교육의 충실로 국제경쟁력 제고, 특활 및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 월 · 화 · 금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 진행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연화학생회, 걸스카우트, 연극반, 방송부, 문예부 등 40여 개의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소양을 길러주고 있어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 매년 연화재를 개최해 동아리 활동으로 1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진선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한국중등교육에서 특별활동이란 교과학습에 가려져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진선에서는 나름대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숨은 심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있다.

진선여중 · 고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여고에서는 아버지의 학교방문을 권장하고 '학부모 참관의 날'을 지정해 수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여중에서는 어머니 합창교실, 배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 합창교실 수업을 들은 학부모들은 합창단을 조직해 매주 수요일 오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매년 한차례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발표회를 개최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있고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들도 명예단으로 활동하는 등 학교의 이미지도 높이고 있다.

인문계 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그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중의 하나. 진선여고는 매년 평균 15명이 서울대에 진학하고 있다. 반에서 1, 2등만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결론이다. 또 지난해 졸업생 398명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시내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무려 250여 명에 이르고 있어 명문사립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진각종립 진선여중 · 고는 자리이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신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다.

77년 강남 8학군서 개교
명문대학 진학률 높아

매년 독거노인에 김치 전달
학부모 초청 수업모습 공개

"어버이 마음으로 학생지도"





진선여고 이종원 교장

진선여중 한기수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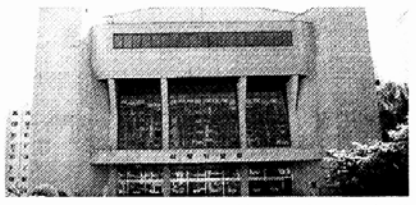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을 기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인성교육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진선여고 교장(사진 위)은 평소 학생들에게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이 학교교육의 시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와 물질주의 팽배로 인해 학생교육에 있어 지식전달 못지않게 인간성 회복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자리이타의 대한불교진각종의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그는 또 학생과 교사 등 학교 제 주체들 간의 믿음과 화합을 강조한다. 서로간의 신뢰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1977년 진선여중 · 고 개교와 함께 24년간 진선을 지켜온 한기수 진선여중 교장(사진 아래)은 막 피어난 꽃과 아기웃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꽃은 금방 시들고 아기는 자라면서 인성이 변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을 대한다.

한 교장은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를 실시하는 것이 꿈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어서다.

'민족 자주정신의 상징



회당 기념관

진선여중 · 고 운동장 옆에는 회당기념관이 있다. 2500석 규모의 극장식 회관으로 1979년 3월 착공해 80년 5월 완성한 회당기념관은 진각종 종조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교육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일제의 한일 합방과 해방 이후 안정되지 못했던 역사적 굴곡들은 모두 자주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회당 대종사는 불교사상을 통해 자주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회안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심성을 정화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교화와 교육활동에 매진했었다. 회당기념관은 바로 이 같은 회당 대종사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더불어 사는 법 가르쳐"

정교실에서

무외 · 법경 · 최선혜 · 김종훈 · 박미정



◇무외 정사



◇법경 정교



◇최선혜



◇김종훈



◇박미정

다한불교진각종에서는 참회에 의해 밝혀지는 마음을 심인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학문을 심학이라 부른다. 진선여중 · 고 정교실에는 정교실장 무외 정사를 비롯해 심학을 가르치는 법경 정교, 최선혜 여고 심학교사와 김종훈, 박미정 여중 심학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정교실장 무외 정사는 교화행정의 책임자로 진각종 7대절 법회는 물론 교직원법회 등 주관하면서 진각종 통리원에서 문화사회부를 맡고 있다. 법경 정교는 정교실장을 도와 교내 교화활동을 도맡아 기획 · 진행하고 있고 교사들은 심학 수업시간을 통해 불교를 알리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안내자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닌 세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심학은 자신을 알고 밝히는 것. 그래서 심학교사들은 심성순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칭찬노트릴레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가르치고 있다. 즉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매월초 정교실에서는 정례회의가 열린다. 한 달간의 행사를 기획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덕대, 심인중 · 고 정교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불교를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문예절서당'에서 절을 하고 있다.

"절은 몸짓보다 마음으로"

한문예절서당 열린 법안정사 대법당

"하나, 둘, 셋, 넷 … ". 16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주최 '한문예절서당'이 열린 목동 법안정사 대법당. 선진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의 '절하는 마음가짐과 요령'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이번 행사에 참가한 초등학생 1백명을 비롯해 학부모 등 2백여명이 일제히 구령에 맞춰 절을 따라 한다.

"어린이 여러분, 웃어른께 올리는 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반드시 깃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선 회장의 예절교육에 이어 이번 예절서당에서는 충남 논산의 한 학마을에서 초청된 훈장선생님들의 '예절소학' 강의도 이어졌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⑰

• 걷는선 •

1. 주변을 정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자리에 선다.
2. 손을 단전에 대고 '이'하고 소리를 내면서 한발 한발 단전에 집중해 걷는다.
3. 발뒤꿈치부터 땅바닥에 디뎌서 천천히 발끝이 땅바닥에 닿으면 반대편 발을 내딛는다.



소리듣는 근본 당처
관하며 천천히 걸어

4. 이때 기가 단전에서 발뒤꿈치로 다시 발가락 끝으로 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5. 발로 땅바닥의 기운을 느끼고, 음악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관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당처인 주인공을 '이뭐꼬' 하면서 관한다.
6. 생각이전의 자리, 알음알이 이전의 자리를 관하며 계속 천천히 걷는다. 이렇게 걷는 자체가 선(禪)이 된다.



'마음고요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길 따로 없고 사방 허공이 모두 내길

오늘 이렇게 같이 한자리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법당을 짓느라고 여러분께서 모두 더불어 애쓰시고, 여러분이 함께 애쓰신 반면에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성의와 스님네들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지었는데도 아직도 장소가 부족해서 모두 한자리에 앉게 되지를 못하니 제 마음에는 그래도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활은 마음먹기 달려

우리가 처음 여기에 법당을 짓고 부처님 한 분만 달랑 모셨었는데 이렇게 법당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혹성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 법계에서도 단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수 만 명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일불(一佛)인 것입니다. 진리가 똑같으니깐 말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적고 크고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점안식을 할 때 한 도량으로서 그 안에 법당이며, 법당의 구조 또는 바깥으로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점안식을 했습니다. 점안식을 한 것은 이 법당으로부터, 법당 내에 모신 분들과 또는 지옥고라든가 부처님 세계라든가 중(中)세계라든가 모든 분들을 다 모셔놓고, 또 부처님 십대제자 분들을 그냥 우리 모습으로 해서 모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큰스님들을 다 모시게 된 것은 모습은 달리했을지언정 우리 소박한 그 모습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낯설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셔놓은 줄만 알고 계시지마는 모신다고 하는 것은 모습만 모신 게 아닙니다. 모습만 모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신과 모습을 더불어 같이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점안식을 할 때에 전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고의 길이 무슨 다섯 개니 네 개니 하고, 또 보통 우리 지금 사는 데에 길이 네 개니 다섯 개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길이 없다는 거를 알면은 그냥 사방이 툭 터져서 허공이 다 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우리 공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량 내 모든 공간을 통틀어 모두 점안식을 한 겁니다.

점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만약에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할 때 가져갈 것이 많지는 않아도, 가져갈게 없어도 사람이 놀래니까 놀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모두 점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다르고 부처님 도량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도량입니다. 한 도량에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내 앞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면 부처님 진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면 모두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래, 위에 세분이나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데는 한 분씩만 계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적으면 한 분 더 계시게 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의 마음이니깐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더 무서운 거죠. 이 껍데기 모습이 그냥 지키는 거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된 걸 아시고 가정에서도 답답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쓰시는 것이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없는데 무엇이 있겠느냐 할 것도 없고, 또 했다고 할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없느니라. 없기 때문에 모두 자상하게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사계절이 생기고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그렇게 여여하게 살게 되는 것도 우리가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찰나찰나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근기가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를 본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모두 살면서 남의 말을 듣고 움죽거리고, 그림을 보고 움죽거리고, 또는 남의 형상을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모두를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게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머리에 입력이 돼서 없어지지 않는 거와 같이 그냥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십이연기법이라고 있죠. 여러분은 책을 다 읽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생, 노, 사 라고 했습니다. 이 열 두 가지의 모두를 살아나가는 데에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혹된 과거로부터 일어나는 번뇌가 바로 무명입니다. 우리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습니다. 무지로서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식에 대해서는 의식작용, 과거로부터 무명과 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명색, 이름으로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고, 마음 형체가 있는 물질입니다. 육입, 눈, 귀, 코, 혀, 몸과 의근, 육처라고 합니다. 촉이라는 것은 바로 사물의 접촉함이라고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바로 고락과 감각이라고 합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구합입니다. 취,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걸 다 자기가 취하고 산다는 뜻이죠. 생, 몸을 받아 현재 사랑을 취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노?사, 늙어서 죽음에 도달했을 때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따지고 보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사람 사는 데에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지으려면 무명이라는 이 모습이 공해서 없다고 했죠. 무슨 까닭에 없다고 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무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해서 찰나 찰나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움죽거리는 것이 그대로 천차만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랴, 어떤 거를 세웠을 때 내가 세웠다고 할 수 있으랴, 어떤 거를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랴, 어떤 거를 말해줬을 때 내가 말해줬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겁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이 모두가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명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고 불필요한 것이지만 무명이 없으면 진짜 근본 불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이 함이 없이 하고 간다는 뜻을 안다면 전체 일거수 일투족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고 다니는 운전수와 같은,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와 같은 내 주인공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무명'이 없으면 '불성'도 없어

그러니까 차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전수가 모든 걸 이끌어 가니까 그 운전수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냥 편리하게 살라는, 심부름하는 시자처럼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할 것도 없고 또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과 사도 없다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가서 무명이 없는데 어찌 행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행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행이 없는데 식이 어찌 있겠는가, 식이 없는데 명색이 어디 있으며 명색이 없는데 육입이 어디 있겠는가, 또 촉이 없는데 수가 어디 있으며, 애가 어디 있으며, 체가 어디 있으며, 생이 어디 있으며, 노사(老死)가 어디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없다,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지만 선장이라고 한다면, 운전수라고 한다면, 운전수는 보이지 않는 운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 차는 보이는 차를 말하는 거구요. 그래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돌고 있으나 같이 돈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로 돌아가니까 나도 없고 모두가 없다. 그런데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는 뭐냐. 여여하게 그냥 향내를 내면서 또 착하게 찰나찰나, 그냥 부처님 법을 한치도 버림없이, 또 버린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산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즉 사는 것이니까요.

생각하기 이전 한마음을 잘 내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수 있게 돼

사량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여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육바라밀이니 십이연기법이니 하는 것도 지금 과정이 다 몰락 놓아져야 만이 수승한 거죠. 십이연기법이 다 거기에서 몰록, 우리가 살면서 이날까지 거기다 놓고 온 결과가 얼만큼이나, 그렇게 모든 거를 놓고 살 수 있나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모든 거를 놓고 살 수 있나. 모든 거를 놓고 그냥 살 수 있나. 함이 없이 살 수 있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다 몰록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사까지도 놓게 되는 겁니다. 생사까지 놓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여여한, 이름해서 부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부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가. 사람이 한 몸을 가지고, 한마음 하는 것은 생각하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함이고, 하기 위함이고 방편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이름 없이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대로 정말 보배이고 정말 부처죠. 부처는 상대를 뛰어넘어야, 과거? 미래?현재를 뛰어넘어서 부처라고 한다면, 전체를 뛰어넘는다면 여래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저 바다를 한 생각에 의해서 한발로 건널 수 있을까, 한발로 뛸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가 넓고 좁은가 하는 거에 따라서 넓게 딛으면 넓고 좁게 딛으면 좁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살아나가는 게 자유스럽고 평안하게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음. 그 한마음은 누구나가 다 자유스럽게 낼 수 있겠지만 한마음을 내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서 어떻게 실천이 되게 하느냐는 문제죠.

지난번에도 육바라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끝으로 두 가지를 빼놓고 얘기했습니다. 정과 혜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서 선정과 지혜를 빼놓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거기서 들고 거기서 나는데 말입니다. 그대로 올바른 생각으로 실천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곧 선정이죠. 공심으로서 공생으로서 공체로서 공용하면서 공식으로 들어가는 도리입니다. 그게. 그리고 끄트머리의 지혜라는 건 그냥 마음만 잘 내고 크게 내면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다 받아들여서 대치할 수가 있어야 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차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했는데 모든 거를 지혜로 한데 몰아서 본다면 하나도, 그것을 이름해서 부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이연기법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정에서도 쉽사리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게 본다면 말입니다. 크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로 응용이 되고 또 '여보' 하고 부르면 금방 남편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아버지 노릇 한다, 나는 남편 노릇을 한다 이러고 누가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이던 모두가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고 여여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렇게 부처님을 모셨는데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근기를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의 근기를 알아서 관찰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를 갖다 놓지 않아도, 수없이 많이 그려놓지 않아도 아주 자상하시고, 예전에 달마대사처럼 말입니다. 양 무제 왕이 달마대사를 죽였는데 중국에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보았다고 하는데 그 보았다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짚세기 한 짝 끼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국을 떠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하는 게 곧 사는것

그러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였는데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고 달마대사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나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죽은 것도 없다. 살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고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살고 있다' 는 뜻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마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깔려있으면 모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깔려있지 않다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살면서 어지럽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

☞ 20면으로 계속

십이 연기법도 한마음에 들어 있어

모습 없기에 여여하고 생사도 없어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언제해도 해야 할 공부 지금이 적기

☞ 19면에서 계속

겠습니까마는 글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펄펄 뛰어도 고만이고, 살았다고 벌떡 일어나도 그만이니깐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눈 번쩍 뜨고선 여여하게 그냥 한길을 맞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때로는,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다 벗어나게 한 난 뒤에 자기는 맨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문고리

전체 뛰어넘으면 여래

를 잡고선 기다리고 있으니깐 들어가는 사람들이 끝이 나지 않더랍니다. 끝이 날 때까지 그냥 문고리를 붙잡고 영원히 산다고 합디다 지금도.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몇 천 년 몇 만년이 됐다 하더라도, 몇 만 년 전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날짜가 따로 없고 해우년이 따로 없는 이런 도리를 알고 본다면, 그냥 현실세계 물질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려니 하고, 좋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려니 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냥 한군데도 걸림이 없이 살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사람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야 모습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나투면서 이끌어 준다면, 길잡이가 되어 준다면 이 공장도 아마 없어질 수도 있겠죠. 모두가 불국토가 되니까 말입니다. 지수화풍으로 생긴 거는 항상 지수화풍을 먹지 않으면 못살고 지수화풍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수화풍 속에서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을 먹고 살면서 연구를 하고 뭘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차원이 돼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고 살던 집을 떠나서 큰 집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에서 알기 쉽게 그냥 하느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부처님이 대단하게 말씀해놓으신 뜻을 아주 대단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 자체가 지금 똑같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을 때 그것이 수 백 마디 해도 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수 백 마디 해도 새삼스럽게 닿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그냥 몇 마디 했는데도 다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꼬집어서 차례대로 끊간데 없이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기 이전에 모두 살아나가면서 극하게 욕심을 부리고, 극하게 집착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서 사람 사는 게 달라집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극히 그 욕심안내는 것만큼 다 갈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요새 IMF가 와서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죠.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고것뿐이겠습니까.

닥치는 일 놓고 가다보면 자유로워
자기가 알고 스스로 해야 진실한 법

새록새록 벌어지는 천차만별의 수많은 일들을 제각끔들 움켜쥐고 사시는데 그 움켜진 것을 그냥 놓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일 죽는다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를 겁내지 않는다면, 죽는 거를 겁내지 않고 버린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까봐 겁을 내니까 겁내는 반면에 모든 게 틀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겁을 내지 않는다면, 겁내지 않고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한다면 뭐가 안되겠습니까. 겁내지 않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여러 해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산을 하지 않았어도 입산을 한 것처럼 모두, 지금 스님네들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앉아서도 마음을 태연하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 건널 수 있고, 어떠한 마구니 틈바구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가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길은, 마음공부라고 이러는 이 길은 참, 그 길이 번듯한 대로(大路)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고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림을 하고 모두 살고 계신데 가정 살림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살아도 결국 언젠가는 또 해야되는 공부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친 거를 다른 누구한테 밀지 말고 꼭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길에 어지반 다 당도해서 갈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四聖諦)를 넘으라니까 무슨 그런 거를 넘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언짢아하죠? 그런데 쉬운 겁니다, 그게.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없을 때 이미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고는 바로 멸도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뛰어넘은 일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넘고 있을까. 어떠한 게 닥친다 해도 오만과 아만, 아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난 여러분한테 말을 예쁘고 미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 말이 참 진실한 말입니다. 나만 진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정말 울어도 여러분과 같이 울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어제도 내일도 곧 오늘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여러분보다 제가 하루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뛰겠죠. 하하하… 그런데 저기 모셔놓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은요, 먼저 간 것도 없고, 나중에 가는 것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뜻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먼저 간 것도 없고 먼저 온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젊은것도 없고 모두가 평준하니까 공법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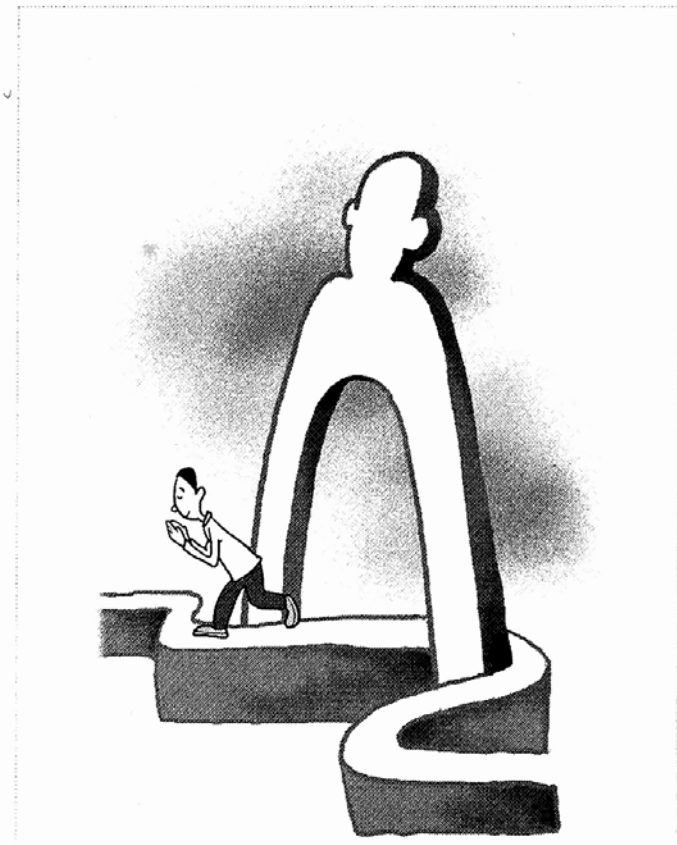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았지만 여러분한테, 여러분 차원에 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될 거고, 여러분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내 차원이 되는 거고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마음이야 어찌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생명도 같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귀다 아수라다 축생이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마음 탓입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못살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지만 심부름꾼도 아니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깐 모두가 공생으로 사는 거죠, 공체로 사는 거구요. 외부나 내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예요. 나를 발견해서 내가 진짜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시고 그걸 수긍해서 쥐고 나간다면 그게 반야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난 예전처럼 그렇게 말을 자주자주 할 수도 없는 거 같아요. 말이 이상하게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한 생각이 나면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묶인 걸 볼 때에 묶인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봐서 그냥 뛰어 넘으시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다 알아들으시겠죠?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가를 보신다면 바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뛰어넘지 않는다면 붙들어 매 가지고 그걸 집착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다면 어느 때에 벗어나겠습니까. 모두 나와 더불어 몽땅몽땅 놓는다면 더 더욱 좋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모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데 여러분이 고만 거기에 매달려서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사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공장에서 인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구들 가는 거니까 그저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놓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자유스런 때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공에 의해서 그냥 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런다면 그것이 스스로 녹아서 나중에는 해말갛게 다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된 걸 알게 되면은 그 아는 자기가 바로 자기한테 수기를 주게도 될 겁니다. 모든 게 서로 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

누가 수기를 주고 누가 수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화해서 말입니다. 내 자성 주인공이 화해서, 연등불로 화해서 나한테 수기를 주어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준 것이고, 내가 그 자리가 됐으니까 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수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구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해야지 진짜 자기 걸로, 자기 법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어서 안다면 자기 스스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법당을 짓는 데에 여러분과 스님네들이 모두 애를 썼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되고, 그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모두 그렇게 되시리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도 믿어야 하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믿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요 다음자리에 가서도 같이 할 수 있겠끔 해봅시다.
(대중박수)

※위 법문은 1999년 6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맑히는 책들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299-7700

성실하고 인자하신 공양주 보살님을 급히 구합니다
011)248-9480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환영
032)435-04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교당 운영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1)953-142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본인은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는 선방수자 입니다.
천도재 49재 각종 제사 기도회향, 법회의식, 기타등등 의식이 필요한 사찰에서는 연락바랍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011)883-1055
대우스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구운마늘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원조농산(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어성초 · 삼백초 총우회원 모집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철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스님)
분당구 구미동 달마사
031)713-0020

40대말 비구스님으로 사찰소임을 맡고 싶습니다.
또한 저렴하게 양도나 시주하실 사찰이나 암자가 있으면 인연 기다리 겠습니다.
<스님 직접>
011)463-4367

치악산 자락에 자리잡은 좋은도량입니다
참선 · 기도 · 수양공부 하실분 모십니다
기도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연화사
033)344-8616
011)732-8616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평생같이 수행하실 분 모십니다
비구 · 비구니 50세~64세
비구니행자 스님 하실 분
산세수려, 맑은 물
▷ 경기도 가평
017)708-0635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찬불가 피아노 3개월 완성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종정연주(법회 산사 음악회 결혼식)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옆

토굴 안내
- 위치 :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절골
- 평수 : 약 35평
- 특징 : 모든 생활 도구 갖춰져 있음, 인가하고 떨어져 있음, 집앞까지 도로, 옥실, 개인방, 부엌, 마당, 불상
- 가액 : 900만원

018)517-9996
054)262-1117(선우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산양
- 대지 : 104평
- 건물 : 2동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016)9880-5517

홍삼액 제조기
저렴한 가격으로 홍삼액을 드실 수 있습니다
▶ 판매처 : 백운파낙스
공장 053)762-2211

벽조목(기적의 神大)
벼락맞은 대추나무
염주 스님용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인감도장 = 8만원
※ 시험합격, 소원성취등은 용도에 따라 특수제작 효험 100%확신
국민 515-21-0517-898 이만택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인생상담요원교육
포교원 등에서 인생상담을 하실 분, 또는 전화에 의한 1:1인생상담을 하실 분들을 위한 전문교육
■ 과 정: 기초에서 고급까지
■ 기 간: 4개월(책임완수)
02)426-2182 자비사
(명일동 굽은다리 전철역 4번 출구)

혈압 / 혈당
"신비의 명치"
- 혈당조절과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 자연의 힘, 직접체험해 보십시요 15일후면 만족하실 겁니다
- 3代째 만들어온 제품으로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구입문의 031)966-5785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酢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의 효능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우울증증,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저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지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불편감이 없어져 몸이 기뻐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토굴 안내
- 가액 : 천만원
- 충북 충주시 동양면 소모천
- 한옥에 목욕탕, 현대식 부엌, 거실 있음
- 토굴마당까지 차량진입 **월할**

055)383-1288

아마타 불상을 모시고자 합니다
상호원만한 좌대포함 3자반 불상
특수불 제외.
(불상모시는 대금을 지불해드립니다)
055)382-5913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내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지리산 토굴터
- 경남 함양 마천
- 부지 : 2583평, 대지 : 100평
- 특징 : 600고지, 천왕봉안대
- 가액 : 3,000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굴(암자)안내
- 강원도 영월군 상원리
- 대지 700평
- 산신각, 대웅전, 요사체
- 가액 : 2천 오백만원

033)372-4227
011)884-422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양정동 4거리
- 평수 : 28평, 즉시 법회 가능
- 철학인이나 보살님 적지
- 가액 : 전세금, 보증금 포함 1800만원, 월세 20만원

011)550-4425
051)868-8011
※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4억 8천

051)245-4012
011)617-4013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찰 (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시내 소재)
- 건물 3층 법당(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크기 3자), 문수 원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5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부지 터 안내
명당 절터로 옛 도사가 지정한 곳 좌청룡우백호 경전 해수관음상 전면에 호수와 같은 바다와 옆으로 해송이 자연 경관을 이룸. 약수가 나옴 절터 바로 밑으로 논 230평 있음 임야 사천 20평 답 230평
- 위치 : 경남 남해군 해안지역 (시리암절터보다 낮다고 함)

011)694-2986 (주인집)

사찰안내
- 법당, 응접실, 방 7개, 창고 1, 부엌 2, 화장실 2
- 가액 : 1억 8천만원
- 위치 : 불광 1동 산 42번지 22통 3반 독박골

02)384-506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47-5
- 대지 : 1000평, 임야 : 30평
- 신축 대웅전 : 20평
- 요사채 : 30평
- 실투자 : 2억 7천만원
- 가액 : 1억 7천만원
- 연락처 :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영천당 061)867-2878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학인모집(통신생 포함)
- 과 목 : 풍수, 역학, 한의침술
- 자 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3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 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현재수업 진행 중, 학인에 따라 진행시간 조정 함

기숙하면서 수업가능, 출가자 지원과 각과목 개원시도 협조함
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69-6 원통사 승가대
☎ 061)334-9930
H · P : 016)639-9167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보문산 공원 입구 사찰
- 대지 : 100평 • 건평 : 40평
- 가액 : 4,800만원 (보살님 가능)
- 즉시 입주 가능, 기도방 많음

042)255-5063
011)9848-6298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대지 : 100평
- 건평 : 30평
- 빨간 벽돌 슬라브 임법당
- 가액 6천 (가격절충)

041)753-4519
018)430-4519

법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월광공원)
- 구조 : 단독주택, 방 5, 거실, 주방, 욕실, 후불 및 범종탱화
- 세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 및 권리금 : 1,000만원

053)632-1877
016)708-700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평수 : 3층건물 중 3층 60평
- 요사채, 큰방 주방 외에 방3개,
- 내부시설 : 석가모니불,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피아노, 대형에어콘, 시설 A급
- 보증금 : 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8)532-7249

임법당 안내
- 위치 : 의정부 도봉산 산하
- 건물 : 24평형, 2층, 삼존불
- 특징 : 주택가, 교통편리 (화룡역 옆)
- 가액 : 5천 3백만원

016)353-8025
031)876-9644

미주사찰 안내
- 위치 : 미국 뉴욕시 한인 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 (5억 7천만원)

※ 종교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212-244-1443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사 찰 안 내
사찰전세
- 위 치 : 서울시 정릉 소재
- 부 지 : 300평(국유지)
- 법 당 : 20평(인법당)
- 요 사 : 20평(한옥)
- 전세가 : 7천만원

※ 뒤는 산이며, 대로변 300M

- 위 치 : 전남 고흥 소재
- 대 지 : 1,000평
- 법 당 : 40평(반목재)
- 산신각 : 20평(목재)
- 요 사 : 60평(2동)
- 종 각 : 10평(목재)
- 양도가 : 4억

※ 신세줄은 고찰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찰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경남 진주시 동성동
- 평수 : 40평
- 법당 1, 방 1칸, 목욕탕, 주방
- 전세 : 50000만원 (전세설정 됨)

시설비 : 2500만원
011)9320-3396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부지 : 2000평,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연꽃안에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 기화건물 : 40평, 방 8개 주방 욕실 법당이 되어 있고 천탑을 조성하기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가 되어있음.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2억 3천 답사 후 절충

018)533-7780

암자(급)안내
- 위치 : 상주시내에서 6분거리
- 건물 : 목조, 마루, 임법당 25평 임법당 방4칸(비과세 가옥 등기필) 요사 15평, 현대식 거실 및 식당 주방 욕실 식당방 1 기름보일러 외부 화장실
- 부지 : 약 300평 사용
- 가액 : 일시불 4,500만원
- 특징 : 식수가 1급수 자연석간수 밖에 허드렛물 계속 흐름 절 앞에 1급 계곡수 단독 사용

055)326-7733/017)593-9698

류마티스 와 심장병
관절이 아프고 변형이 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찰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3대를 이어온 집으로
(초등학생 심장병, 심장판막증 무료)
011)567-9870
051)529-9870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 법당 : 30 (목조포집)
- 요사 : 6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5억

- 위치 :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억 4천

- 위치 : 인천
- 법당 : 30평(포교당)
- 요사 : 20평

※ 시설비 없음

- 가액 : 6천(전세)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토굴 안내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옆
- 법당 : 45평 • 방 2칸
- 주방, 삼존불 • 시설비 : 25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상 원 사
895-7512
011)230-7511/033)442-7827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 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창고겸 화장실 7평 답사 후 가격절충

011)455-6198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5억 3천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아주 좋음 (불기구 약 5천만원 상당, 무상제공)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873-156 신화부동산
031)446-1133
016)356-1133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사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삼배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뭣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질 바라며 달마도를 원하시는 분은 우표(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중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의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3억 9천만원
- 특징 : 산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종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법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기타 모텔 부지로도 가능함
전면 청정해역 바다
뒷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1)845-3430
017)844-944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051)245-4012
011)617-4013

지리산 사찰부지
- 위치 :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이 모셔져 있고 일찍이 스님께서 예언한 해동제일의 명당명계사를 마주 하고 있는 회계장터 입리 벗꽃길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
- 현재 100% 녹차 밭 (1954평)
- 지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30, 606-2, 607
- 도로접 즉시 건축 가능
- 가격 : 평당 10만원, 주인직접

011)875-5500

암자 및 토굴터
- 지리산 쌍계사에서 1.5Km
- 계곡낀 동남향 경관수려
- 부지조성
- 대지 387평
- 주인직접
- 가액 평당 10만원

011)559-3501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1천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309-1760
※ 특이사항 : 묵언이 좋은것 아닙니까

아미타불은 진리요 생명이요 광명이다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행법 논쟁을 일삼고 욕망이 세속과 승가에 만연하니 몸랑불사로 신심을 고취한다
오탁악세에 성불하겠다는 왕상을 버리고 염불수행을 선택하면 영혼, 윤회, 절대신, 해달음으로 부터 해방되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1. 염불신앙의 원리와 비결
2. 정토에 태어나 성불합시다
3. 한국의 염불 수행
4. 도로아 미타불 (아미타경소, 유심안락도, 대승육정참회)

총 4권 25,000원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처 033) 254-5397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신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 541-3545 H · P : 016) 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뉴질랜드에 한국불교교육원

교민 발심돕는 신행요람

교리공부 가족법회 열고 현지인 포교

지난 3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시에서, 이민 · 유학한 불자들의 신행 공간으로 개원된 한국불교교육원(원장 안종서)이 최근 교리공부, 가족법회 개최 등 활동을 본격화 하면서 뉴질랜드에서의 한국불교포교에 나서고 있다.

건평 50여평 지상 3층 건물의 2, 3층에 개원된 한국불교교육원은 1백여 불자들이 동시에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규모. 교육원은 오클랜드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교민과 유학생들의 신심을 다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본토인들에게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불교문화센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교육원 개원은, 국내에서 군법사와 교법사로 활동했던 안종서(46) 법사가 96년 이 곳으로 이민 온 후 한국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뉴질랜드에 이민이나 유학 온 한국인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에서 전통 사찰보다는 불교교육원과 같은 자유로운 발심 공간이 필요하다는 안 법사의 서원과 약천사 조실 혜인스님과 부산 불국토선원 조실 정관스님의 후원이 더해져 '한국불교교육원 개원'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안 법사는 "3천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시에서 한국 사찰은 2곳인 반면 한국 교회는 7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사찰에서조차 초파일 행사나 특별법회 이외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고 공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며 "한국불교교육원은 이민이나 유학온 불자들이 불법을 믿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교리공부 외에 참선이나 다도 프로그램도 곧 개설할 예정이다. 교민들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참석해 '가족법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등을 읽고 토론하는 교리 공부 외에도 108 참회기도와 신행상담 등 가족의 불심을 키우고 이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목 모임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안 법사의 부인 권미리 씨는 국내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불자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말 경전을 이용, 한국어와 한국불교사를 가르치는등 자칫 서구화 되기 쉬운 교민 2세에 대한 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불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돕고 싶다"는 안종서 법사는 "이런 발심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뉴질랜드 속에서 한국불교가 서서히 알려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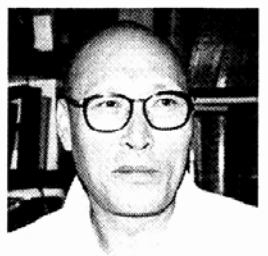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설립된 한국불교교육원에서 교포불자들이 예불하는 모습.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중앙탑 탑돌이 보존 문화포교 적극 나서

충주불교총련 의천스님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 중앙탑(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 7층석탑)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고 지역 불교문화재 보전운동에 나서는 등 문화포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충주사암련에서 확대개편된 충주불교총연합회 회장 의천(칠곡사 주지)스님은 19일 21세기는 문화포교의 시대라면서 "온갖 문화유산과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충주지역의 여건에 맞는 포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지난 7월 박상규 민주당 의원, 이시종 충주시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 등 지역 유지와 종교, 문화계 인사 170명으로 구성된 '중앙탑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중앙탑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영산대재 · 열린음악회 개최

양로원 · 교도소 위문등 후원

의천 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 5년간 계속해 온 탑돌이를 '6바라밀 탑돌이'로 재구성해 10월 8일 오후 3시 충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우륵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여상고교 학생 등 600여명을 동원해 시연하는 탑돌이는 10월 14일 오전 11시 중앙탑공원에서 '남북통일기원 중앙탑돌이 시연대법회'에서도 재현된다.

종교를 떠나 충주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중앙탑 탑돌이를 가꿀 계획인 의천스님은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국운융성 영산대재, 국민화합 열린음악회, 생태보존 방생대법회,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등을 잇달아 열어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충주시에 불교문화의 향기가 넘쳐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님은 충주불교총연합회 산하의 신행단체들이 개별 신행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사 및 재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주불교보리수회의 경로잔치, 충주불교소명회의 봉사활동, 충주불교청년회의 불교교양강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충주교사불자회, 충주지역대불련, 충주대 및 충주산업대 교수불자회의 양로원 및 청주교도소 위문법회 등을 후원할 방침.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충주사암련의 전통을 잇고 140여개 회원사찰의 총의를 모아 충주불교문화 중흥에 나서겠다는 의천스님은 "김생사지 복원 등 문화재 애호활동을 통해 충주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김재경 기자



◇19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유치인 생일법회 장면.

유치장서 자비의 생일잔치

밀양사암련, 경찰서서 법회

19일 밀양경찰서(경찰서장 송수태) 유치장안에서는 훈훈한 생일잔치가 열렸다.

밀양경찰서 유치인상담위원회(위원장 박태희)와 밀양시불교사암련 산하 연합합창단, 교화위원인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 등이 9월에 생일을 맞은 4명의 유치인들을 위해 생일상을 차린 것.

한복을 곱게 입은 합창단원들은 과일, 떡 등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유치인들이 자리에 앉자 직접 작사 · 작곡한 생일축하곡을 부르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생일축하곡은 밀양합창단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것.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생일잔치는 밀양경찰서 유치장의 환경개선과 함께 유치인들의 심적 안정과 감화를 위해 마련한 것. 불자인 송수태 서장과 정우 스님 등이 외부적 환경개선에 못지 않게 내면의 안정과 위로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결과였다.

매주 2차례 유치장을 방문하고 있는 정우스님은 "순간의 실수로 이곳에 있지만 많은 불자들과 경찰서 관계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들을 이끌어 준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인상담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매주 2차례 법률상담, 인생 상담, 건강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며 유치인들의 고민해결과 교화에 힘쓰고 있다.

밀양=천미희 기자

美테러 희생자 천도재

한나래문화재단 통도사 부산포교원서 봉행

(사)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회장 김건웅)는 20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로 희생된 영가들을 비롯 외국인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매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연등만들기, 차만들기, 전래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주관해 온 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가 그동안 참여해온 외국인들과 연관된 일체의 영가들과 이번 미국 테러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심산스님은 이날 천도재에서 "영가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닫고 극락왕생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김건웅 회장과 회원들은 "외국인들에게 천도재가 생소한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윤회의 한 과정임을 이해시키고 일체 영가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불교적 인생관을 일깨워주는 값진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양산=천미희 기자

천태종 분당 대광사 낙성식

10월7일…주지 운덕스님



◇대광사대불보전 전경.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에 이은 본사급 대표적 사찰로 건립코자 총력을 기울인 분당 대광사의 1차 불사가 완료됐다. 천태종은 10월 7일 오전 9시 30분 종정 도용 스님 등 1만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5번지에서 대광사 대불보전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천태종이 수도권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전통사찰을 건립하고자 발원, 97년 기공식 후 4년만에 1차 완공된 대광사는 총무원장인 운덕 스님이 주지직을 관장할 정도로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총결집된 수도권 대표적 사찰이다. 7일 낙성식을 갖는 대불보전은 연건평 1200평 지상 3층 지하 1층 으로 3층 대법당의 면적만 300평이다.

이경숙 기자



◇18일 부산 아시안로에서 나무를 심는 맑고향기롭게 회원들.

아시안게임 성공발원

'맑고향기…' 나무심기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본부장 박수관)는 18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푸른 부산 가꾸기 일환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벌였다.

초읍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이르는 아시안로에서 행해진 이번 행사에서는 옹벽 200m에 사철 담쟁이 800본을 심어 삭막해 보이는 도심에 푸르름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김칠성 보살 사리 50과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덕리에 소재한 대각선원 창건주 김칠성 보살이 14일 향년 81세로 입적한 후 오색영롱한 사리 50여과가 나와 화제다.

칠성 보살은 40여년간 대각선원에서 스님 이상으로 엄격하게 참선수행을 해왔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경 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전통적인 경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섬세한 조각!!
이음새 부분은 홈을 파서 제작!!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홈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 세로 33Cm ×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37°氣 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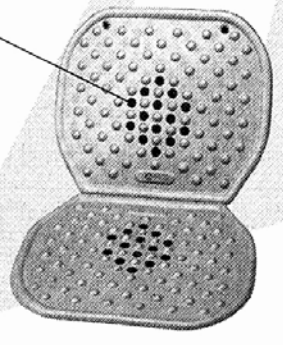
· 프리폼 (FREE FOAM)

※ 프리폼(FREE FOAM)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충격 흡수 소재입니다.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잦은 두통 · 불면증 · 어깨결림 · 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37°氣 방석세트

● 특징 : 지압효과 · 보온/방습효과 · 항균작용 미끄럼 방지 · 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낭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
● 재질 : 발포체(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미농 혼식 세트

아직도 흰 쌀밥만 드십니까?

신비한 효능을 지닌 버섯들의 균사체를 식이섬유와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 순 국내산 현미/보리쌀에 배양시켜 버섯이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끼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기능성 쌀입니다.

● 구 성 : 상황버섯 쌀(800g)
동충하초 쌀(800g)
영양균형 혼식(720g)
상황보리 쌀(750g)
● 총중량 : 3070g ● 가격 : 33,000원



동(銅)공예 달마도

100% 수작업의 동(銅)공예달마도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의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입니다.

● 사이즈 : 가로 38Cm × 세로 44Cm
● 가 격 : 120,000원
※ 100% 수작업으로 제작된 작품이라 상기 작품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송기간은 4일정도 소요됩니다.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마하몰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경산 '관음손 양초공장' 서 장애인들 재활의지 키운다

10월초 가동 30여명 일자리…사찰 폐양초 재활용

돈명스님 원력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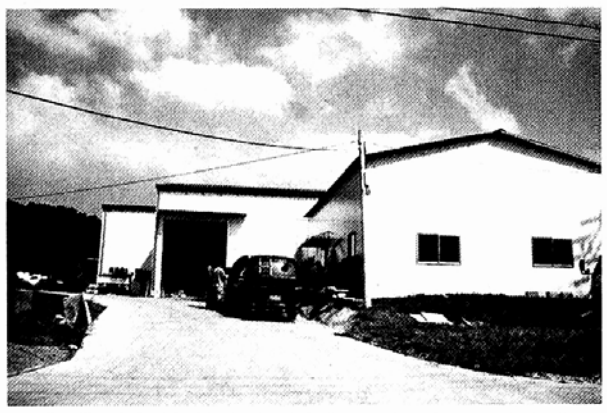


사단법인 관음손 이사장 돈명(팔공산 거조암 주지 · 사진) 스님이 최근 지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워 주고 사찰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되는 양초공장을 건립해 화제다. 장애인 재활센터가 설립된 것은 불교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21-2번지에 건립된 '관음손 양초공장'은 10월 초부터 전국 사찰에서 버려진 폐양초를 수거해 양질의 새 양초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4백여평의 부지에 건평 2백여평 규모로 건립된 양초공장에는 30여명의 지체 장애인들이 일을 하며 부처님 품안에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7년전부터 대구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을 맡아 온 돈명스님은 지난 9월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사단법인 '관음손'을 설립, 양초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복지시설 위탁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양초공장 설립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희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특별한 때에나 한 번 장애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에 소재한 '관음손 양초공장' 전경. 불교계 최초의 장애인 재활센터로서 장애인들의 희망의 터전이 될 전망이다.

돈명스님은 "각 사찰에서 폐양초를 모아 양초공장으로 연락주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가겠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양초공장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사찰 주지스님들과 불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7일 팔공산 거조암에서 5백 나한의 개채불사 회향과 함께 장애인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한 돈명스님은 3년전부터 장애인들을 초청해 사찰순례를 겸한 야유회를 여는 등 장애인복지에 앞장서 왔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들이 해야할 신행"이라는 돈명스님은 "더 많은 장애인 재활센터가 생겨 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자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토대를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054)858-2630

경산=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찰·복지관 추석맞이 행사 풍성

민족의 명절 추석(10월 2일)을 맞아 사찰과 복지관에서 이웃과 함께 지비를 나누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조계사는 1일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동차례를 모신다.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는 차례는 수덕사, 통도사, 동화사, 내원사, 법주사, 금산사 등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준비된다. 또 신흥사와 관음사는 경로잔치를 열고, 송광사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무료천도재를 준비한다. 월정사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쌀과 내복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복지관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펼친다. 성북노인사회복지관은 28일, 길음사회복지관은 25일, 두송사회복지관은 28일, 합동사회복지관은 27일 각각 이틀간 송편빚기와 투호던지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 프로그램으로 잔치를 마련한다. 용호복지관은 27일, 은평사회복지관은 26일, 원종사회복지관은 28일에 무의탁 노인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가위 잔치를 개최한다.

은평노인복지관장 성운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한가위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추석을 맞아 21일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여성노숙자 시설인 화엄동산, 영등포 보현의 집, 청소년 독서실 등 14개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오종욱 기자

"반부패 생활화 종교가 앞장"

반부패연대 토론회

'반부패 지도' 제작을 위해 마련된 제2차 반부패연대 토론회가 '종교와 반부패'란 주제로 20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회 이형용 운영위원의 발제에 이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봉일위원장 박창일 신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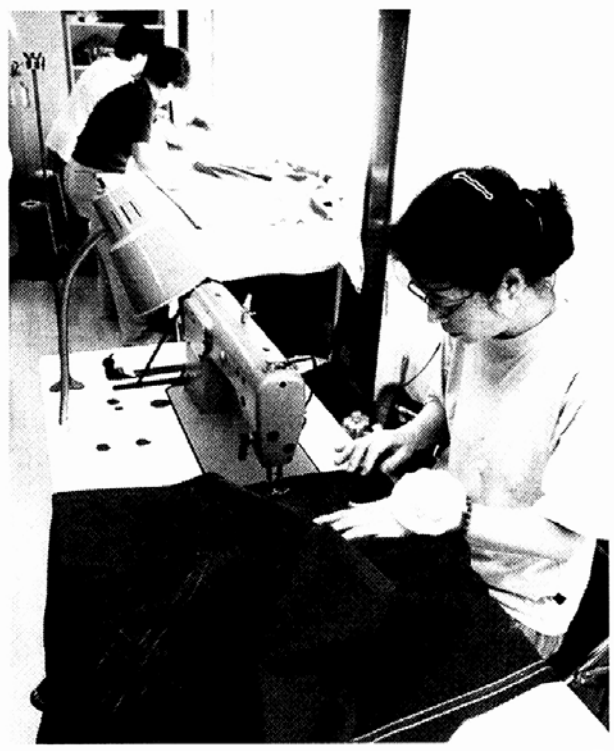
이날 발제에 나선 이형용 위원은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반부패 노력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종교가 전사회적인 반부패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의 운동성 회복을 회복하려는 노력 △다양한 반부패 교육활동의 수행 △종교인들이 반부패 행동강령 또는 투명성 지침 제정, 실천 △종교간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반부패 캠페인의 전개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투명성과 청렴성이라는 반부패운동의 수렴방향은 오늘날 종교계가 구비해야 할 중요한 덕목에도 닿아있다"면서 "오늘날의 종교는 자기쇄신의 한 방편으로 반부패를 생활화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림스님은 "현재 한국종교는 물량위주의 발전을 추구한 나머지 '종교의 상업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성직자의 사생활 및 예산공개와 함께 대형 사찰이나 교회의 경우 자발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일 신부는 "진정한 종교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정부패를 없애는 종교의 적극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 가사도감 설치 조계사가 최근 스님들께 봉정할 가사를 제작하기 위해 가사도감을 설치하고 18일 제작과정을 공개했다. 가사제작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병법 스님(가사제작 총책임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편수 스님(현장감독)의 지도 아래 마름질, 재봉, 바느질, 다림질 등 가사제작 전의 과정을 직접 진행한다. 사진은 가사를 만들기위해 재단하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노인작품 1만여점 '한자리 모인다'

10월 6~28일 수도권 순회

연꽃마을 전시회 마련

전국 노인복지시설 회원 1천 5천명이 모여 각종 공예품 등 1만여점을 직접 만들어 한달 일정으로 순회 전시한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 각현)은 '2001 노인작품 전시회'를 마련, 10월 6~28일 서울(잠실 롯데백화점), 안양(문화예술회관),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고양(일산신도시 호수공원 꽃전시관) 등 4곳을 순회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 10곳, 서울 4곳, 인천 2곳, 대구 · 광주 · 청주 각 1곳 등 전국 19개 노인복지시설과 중국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노(老) 간부대학이 참여했다. 노인들과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2만5천여명이 지난 7월부터 작품 제작을 시작해 대형 작품 십수 점을 제외하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인들이 여름 내내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들은 종이접기에서부터 민속공예, 죽공예, 십자수, 목공예, 전통 도예, 뜨개질, 서예 등 32개 종목에 1만여점이 넘는다. 이 중에는 짚신, 삼태기 등 노인들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추억의 공예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종이 꽃송이 3천개로 만든 대형 한반도 지도, 바둑알만한 색종이 2천5백장을 말아 만든 대형 태극기, 한지로 만든 사찰 모형, 신문지를 물에 적셔 말아 만든 석가탑, 만리장성을 수놓은 자수 등 이색 작품들도 눈에 띈다. 전시 기간에 실버밴드 연주, 현대무용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며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노인복지시설의 복지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김민정 전시회 기획총괄팀장은 "노인들이 조그마한 생산 활동에 직접 참가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노인 복지"라며 "진정한 실버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한 · 일 최범술 스님 문도회

10월2일 강화 선원사서 차례

"월드컵 성공기원 발원"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한일공동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효당 최범술(1904~1979) 스님의 한일합동 추모 차례가 10월 2일 오후 2시 강화 선원사 대웅전에서 거행된다.

효당 차도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과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 스님), 일본 최범술 스님 문도회가 공동 주최하는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최범술 스님 한일 문도 추모 차례'는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두 나라가 차선(茶禪)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효당 스님 입적 22주년을 맞아 한일 두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범술 스님의 문하생 50여명은 이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발원차를 전통 작법에 의해 시연한 뒤 최범술 스님의 차선 사상을 알리는 '공수선차(共修禪茶)' 행사도 개최한다.

최범술 스님의 차선 사상을 전수받은 반야로차도문화원의 채원화 원장은 "이번 행사는 효당 스님의 차선 사상을 한일 두 나라 제자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대 차 대중화의 중흥조이자 독립운동가인 효당 최범술 스님이 저술한 첫 차서인 〈한국의 차도〉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읽히는 정통 차서로 손꼽히고 있다. (02)763-8486 김재경 기자

한국방문 외국관광객

'참선 · 다도체험' 선호

서울시-갤럽 설문조사

한국을 방문한 미주 유럽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동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선, 불교 다도 체험 관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설문조사', '200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고궁 박물관 등 역사적 명소를, 중국인 관광객은 코엑스몰 63빌딩 등 대형 건물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우 기자

'저승갈때…' 용산스님 입적



100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저자 용산 스님(사진)이 19일 법랍 28세, 세수 56세로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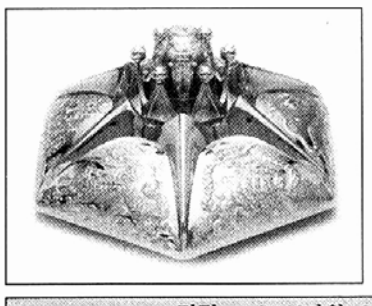
용산 스님은 팔공산 파계사 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공덕원 회주,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영결식은 25일 오전 11시 공덕원 대구 분당에서 각 지역의 공덕원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미희 기자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하고, 범종은 천지(天池)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身將)이 항상 수호해 줌으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 벌집의 힘 ☘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벌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필요 합니다.

1.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않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리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화가 겹치시는 분 5.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 6. 결혼을 앞두신 분
7.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 육기(氣)방 ☎ 051) 865-9933, 864-7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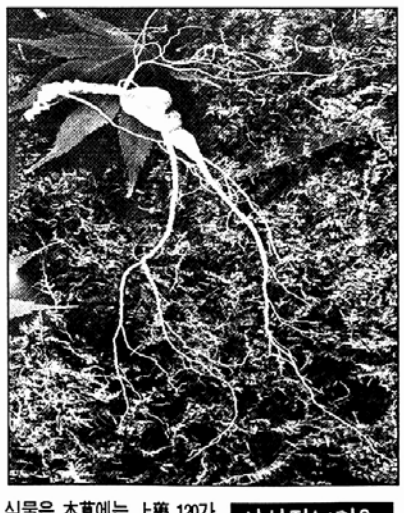
일본지사(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願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경계 벗어나니 참마음 빛나네



◇금릉 봉곡사 연못가의 석상.

감성으로 보는 절

<15>탈속의 선승-연못가의 석상

나가 아는 어떤 분의 집 뜰 안에 감나무가 있는데, 몇 년 전 감이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린 적이 있었다. 워낙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분은 탐스런 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겸 나눠 주곤 했는데, 어느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나무에 주렁주렁 달렸던 감이 쭉정이만 몇 개 남겨 놓고 모조리 없어졌다는 것이다. 도둑(?)이 들어와 감을 몽땅 따 간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 주기로 큰소리(?)쳤던 약속이 부도수표가 되버려 민망해 하고 있었다.

O`와 비슷한 감나무 이야기가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에도 있다. 오성이 한양 집에 올라와 쉬고 있는데, 뒤뜰의 감나무에 감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매일 탐스런 감을 한 바구니씩 따는데 이상하게도 하인들이 담장 너머의 감을 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성이 하인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옆집이 병조참의 권형의 집인데, 그 하인들이 담 너머 온 그 쪽 울안의 감나무 가지에서 열린 감은 자기네 울안에 있는 것이니 자기네 감이라고 우기며 따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치와 슬기가 뛰어난 오성은 옆집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사랑방 장지문 창살 안으로 오른팔을 냅다 질러 넣었다. 깜짝 놀란 권철이 호통을 쳤다. "아니, 웬 놈이냐? 웬 놈이 방안으로 주먹을 박어?" 오성이 태연스럽게 말했다. "이웃집 사는 이항복입니다." "이항복? 그러면 판서댁 자제가 아니냐?" 이항복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는 권철은 다소 겁 먹은 듯 말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례한 짓이냐?" 이항복이 말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뭘 묻고 싶은 게냐?" 이항복이 물었다. "방 안에 있는 팔이 누구의 것이 옵니까?" "이놈아, 그야 네 몸에서 뻗은 팔이니 네 것이지 누구꺼여?" 이항복이 의기 양양하게 말했다. "그런데 담 너머 온 감나무 가지는 왜 이집 것이라구 우깁니까?" 권철은 할 말이 없어서 하인들의 잘못을 꾸짖고, 오성의 지혜에 감탄했다는 옛 이야기다.

그런데, 난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팔이야 오성의 몸이 한 줍기니까 당연히 오성의 것이지만, 나무야 오성의 울 안에서 담 너머로 넘어갔다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무의 것이지, 그게 왜 오성이나 권철 대감이 네것 내것 해야 할까? 우리 인간은 매사에 이렇다. 임자 없는 것(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은 먼저 갖는 사람이 제 것이란 생각이다. 인간의 소유에 대한 관념과 욕망은 집요하고 끝이 없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도 이런 땅따먹기의 욕망 아닐까? 땅은 그냥 땅일 뿐인데-.

난 사랑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이 쓰는 사랑이란 말은 다분히 소유와 지배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묻는다. "당신 나 사랑해?" 멍청이 같은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러자 방금 전까지 상냥하던 여자는 서슬이 퍼래져 펄펄뛰면서 노발대발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기어코 떠나가 버렸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란 감정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장사처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이란 장사를 한다. 내가 한 개를 주고 한 개 반 이상을 받아야 사랑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닐까? 사랑을 소유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 어수룩하지만 포용력 있고
> 좀 밑지는 듯 사는
> '고향같은 사람' 만난다면
> 더불어 사는 맛 날텐데…

나는 예전엔 무척 따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덩달아 으쓱해져서 법률을 전공할까 해 본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좀 밑지는 듯한 인생이 아름다워 보인다. 내 것을 조금씩 조금씩 뜯겨가면서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참 부러워 보인다. 약속은 칼 같이 지켜야 한다고 열내는, 아주 자기편엔 정확히 산다는 사람이 있다. 흘지, 맞다. 나도 예전엔 그러고 살았고, 그것이 진짜 멋진 인생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좀 어수룩해도 사람의 잘못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보다 더 좋다. 내 마음이 무디어진 것일까? 아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과나무' 까지는 아닐지라도 님의 잘못을 덮어주고, 포용해 주는 사람이 '고향같은 사람'으로 언제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만나도 만나도 실증나지 않는 흐뭇한 사람인 걸 나는 깨닫는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여러 사람과 어느 시골로 촬영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약속이 귀하다고 하면서, 집의 정원에 옮겨 심어 키우겠다고 길섶에서 펑화룹계(?) 잘 자라고 있는 쑥나무를 무참하게 쑥 뽑아 비닐 봉지에 쑤셔넣고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아파했는지 모른다. 왜 인간은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것일까? 걸망과 바리때도 없이 저승길에 들어서는 인간의 생명인데.

心若著境 心卽是妄
今旣無境 眞心獨照
마음이 경계에 붙들리면
마음이 곧 미망에 빠지나
이제 이미 경계가 없어지니
참된 마음이 홀로 빛을 비치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한글대장경을 봉안해 경전 읽는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찰과 불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4질의 한글대장경을 법당에 봉안한 안성 도피안사의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모시기 운동 모습.

1인 1권 보시…번지는 법보 봉안

한글대장경 보급 '경전읽기 신행' 불붙여

도피안사 · 관음사등 동참
'대장경 시주' 모임 결성 늘어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봉안하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경전 읽기 신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권 318권을 사찰에 봉안해 신도들이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이 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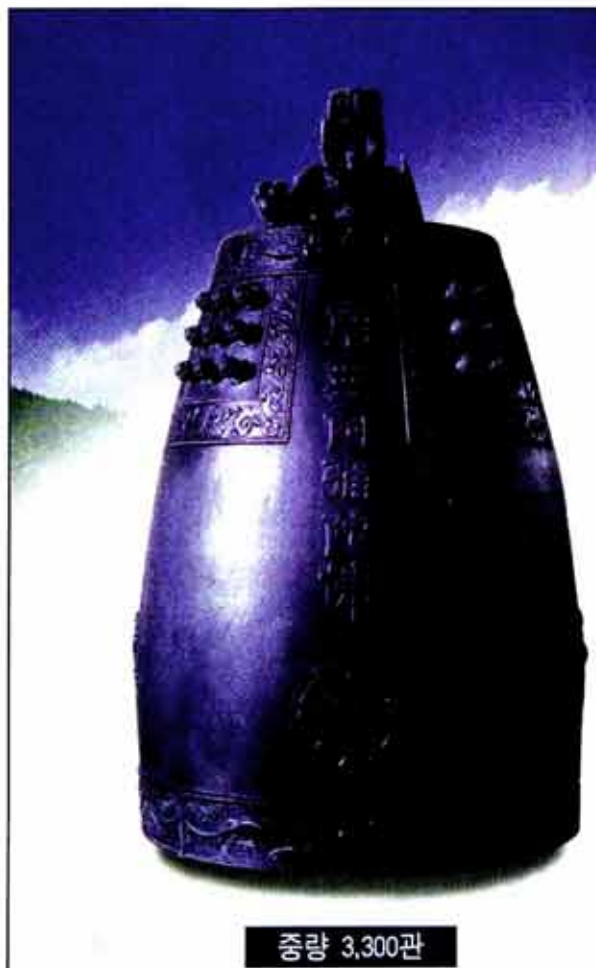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9월 2일 우란분절까지 1200여명 이상이 동참했다. 도피안사는 한글대장경에 동참불자 개인의 이름을 기록해 사찰에 '원봄'을 모시듯 법보를 모시는 방법으로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전개했다. 특히 도피안사는 자신이 모신 한글대장경을 2개월 간 집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 불자들이 경전을 통해 신심을 다지기는 기회를 삼았다.

군산 관음사(주지 재관)도 법당에 한글대장경 1질을 봉안했다. 가족단위 또는 개인별로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에 동참토록 했으며 동참한 불자들은 언제나 법당에 봉안된 대장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관음사는 지난 7월부터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전개해 9월 11일 한글대장경봉안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용화사(주지 법운)도 8월부터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시작 현재 불자들의 동참을 접수받고 있다. 용화사는 지속적으로 봉안불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지원장 혜문)과 울산지원(지원장 혜안)도 신행 소모임과 뜻있는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한글대장경과 장경각을 함께 봉안했다.

한글대장경은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가장 훌륭한 시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구미 죽림사 주지 해관스님은 최근 한 신도로부터 한글대장경 1질을 시주받았다. 한글대장경 구입을 희망해 오던 해관스님은 "법보를 받는 것보다 큰 시주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 귀중한 법보를 장경각에 모셔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들에게 한글대장경을 시주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도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여성불자는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경전을 시주하는 것은 절을 지어 드리는 것만큼이나 값진 불사라는 생각으로 3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매월 일정액을 모아 인연 있는 스님들에게 한글대장경을 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동국역경원과 공동으로 '한글대장경을 읽읍시다 한글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원력으로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고 있다. 현업을 은퇴한 이후 죽는 날까지 경전을 읽겠다는 원력을 세운 불자들이 한글대장경 구입을 희망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 또 한글대장경 법공양 운동에도 동참하는 불자가 늘고 있어 군부대등지에 부처님 말씀을 보내고 있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